

坡州研究

제3호. 2005

■ 研究論文

高麗壁畫 墓 出土 權準 誌石 考察	이윤희 • 7
坡州地域 關聯 漢詩 調查 研究	이동률 • 22
옛 義州路 燕行路程에 관하여	성희모 • 77
紺岳山 薛仁貴 說話 考察	이기형 • 135
崔慶昌과 洪浪 文學 研究	오순희 • 154
風水로 본 明堂 –黃喜 墓와 尹瓘 墓 –	우관제 • 170
파주 임진강 유역 철새 연구	문성수 • 177

■ 教育研究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기형 • 198
---------------------	-----------

G&G PAJU 파주시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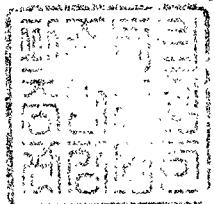
AM036645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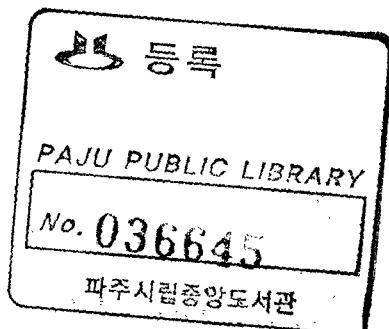
여

坡州研究



第3號. 2005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 발간사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연구성과물을 담아 〈파주연구〉지를 발간해 온 것이 벌써 3호째를 맞았습니다.

우선 〈파주연구〉 제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상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열정을 다해 연구활동에 참여하시고 성과물로 제출해 주신 여러 연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학문의 깊이와 문학적 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들을 접하고 보니 지역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며 생활 공동체인 파주지역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연구하여 온 연구위원님들의 노력은 우리지역 향토사에 있어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는 전통적인 문양의 기풍을 중시해 왔으며 존중과 예의라는 전통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파주연구〉지에 실린 논문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주연구 3호에 수록된 연구위원들의 개인 연구 성과물인 『고려벽화 묘 출토 권준 지석 연구』, 『파주지역 관련 한시 조사』, 『옛 의주로 연행 노정 연구』, 『감악산 설인귀 설화 연구』, 『최경창과 홍랑 문학에 대하여』, 『풍수로 본 명당』, 『임진강 유역 철새 연구』 등 7편의 연구논문은 파주지역의 향토색 짙은 연구물들로 파주지역만의 특성을 고찰하고 분석한 향토사 자료의 집성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올 해 처음으로 연구된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 실태와 과제』에 대한 교육연구는 향토사 연구의 접근에 있어 교육적 환경에 대한 관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논문이라 할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 해의 연구지는 보다 풍부하며 체계를 갖춘 성과물들로 진일보 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소의 발전 가능성이 한층 기대된다 고 생각됩니다.

우리지역의 향토문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훌륭한 자원이자,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이를 연구하는 것은 향토문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라 생각 됩니다. 〈파주연구〉지가 파주 지역민들에게 선인들의 지혜를 통해 전통을 배우고,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

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파주연구〉 제3호 발간을 위해 그 동안 애써오신 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향토문화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12월

파주문화원장 신 춘 범

여

여

차 례

■ 研究論文

高麗壁畫 墓 出土 權準 誌石 考察 이윤희 • 7

坡州地域 關聯 漢詩 調查 研究 이동률 • 22

옛 義州路 燕行路程에 관하여 성희모 • 77

紺岳山 薛仁貴 說話 考察 이기형 • 135

崔慶昌과 洪浪 文學 研究 오순희 • 154

風水로 본 明堂 -黃喜 墓와 尹瓘 墓- 우관제 • 170

파주 임진강 유역 철새 연구 문성수 • 177

■ 教育研究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기형 • 198

여

여

高麗壁畫 墓 出土 權準 誌石 考察

李 閏 熙*

1. 序 論
2. 高麗壁畫 發見
3. 墓誌石 出土와 誌文 內容
4. 誌文의 特徵
5. 結 論

1. 序 論

最近 坡州市 津東面 瑞谷里 山 112番地에 위치한 고려시대 분묘(一名 高麗壁畫墓)¹⁾의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大法院의 上告審에서 특이 할 만한 判決이 나와 世間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약 300餘年에 걸쳐 清州韓氏 宗中에 의해 守護되어 오던 墳墓의 既地權에 대해 安東權氏에게 그 權利가 인정된다는 判決을 함으로서 피장자가 바뀌어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 온 사건이다.

이 墳墓는 그 간 청주한씨 종중에서 3백여년에 걸쳐 麗末鮮初의 人物인 韓尚質²⁾ 墓로 수호 관리해 오던 묘이다.

그런데 1991년 1월 14일 청주한씨 종중으로부터 도굴분으로 신고되어 발굴 조사 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채색 벽화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당시 조사과정에서 4片으로 쪼개진 墓誌石이 出土되었고 묘지석 誌文에 安東權氏 權準에 관한 기록이 발견됨으로서 청주한씨와 안동권

* 研究所長

1) 원래는 韓尚質 墓이나 1991년 분묘 내부에서 채색된 고려벽화가 발견되어 〈高麗壁畫 墓〉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21일 「서곡리 고려벽화 묘」로 파주시 향토유적 제16호로 지정되었다.

2) 韓尚質, ?~1400(정종 2)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清州, 자는 仲質, 호는 竹所, 조선 개국공신 尚敬이 아우이며 세조때 공신 明滄가 그의 손자이다. 공양왕때 형조판서를 거쳐 우부대언, 우상시, 예문 관제학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1392년 7월 조선왕조가 건국된 뒤 예문관학사로서 秦聞使를 자청하여 명나라에 가서 朝鮮이라는 국호를 결정받아 이듬해 2월에 돌아왔다. 시호는 文烈.

씨 간의 분묘기지권 소송이 야기되었고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서 묘지석을 결정적 증거물로 인정해 결국 안동권씨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음을 判示 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분묘기지권에 대한 두 종종간의 분쟁으로 볼 수 있으나 결국 분묘의 기지권은 무덤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채택된 결정적 증거물이 묘지석이라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따라서 묘지석이 사망자의 生平事績을 기록해 무덤에 묻는 부장품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밝혀 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사례³⁾로 남게 되었다.

묘지석은 이처럼 무덤의 주인공으로서의 증거물 뿐만 아니라 지석의 材質 및 제작기법 등에 있어 美術史 및 陶瓷史 研究에도 귀중한 자료이며 특히 묘지석 誌文의 기록은 사망자의 생평사적에 관한 1차 金石文 자료는 물론 書藝史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本 글에서는 최근 분묘기지권 논란이 벌어졌던 고려벽화 묘에 대해 살펴보고 당시 고려벽화 묘 조사 당시에 출토된 墓誌石에 대한 誌文內容과 그 特徵 을 考察해 보고자 하였다.

2. 高麗壁畫 發見

民統線 지역인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 소재해 오던 청주한씨 한상질묘에 대해 지난 1991년 도굴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도굴된 흔적을 발견한 청주한씨 종친회로부터 묘의 지하 내벽부분에 그림으로 보이는 彩色들이 보인다는 제보가 있어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가 실시되게 되었다.

발굴조사에서 시신을 안치하도록 조성한 石槨의 東、西、北 3壁 內面과 門扉石 內面에 각각 人物像이 그려져 있고 天井石 中央에 星辰圖가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⁴⁾

조사당시 墳口의 외형은 반구형이고 평면은 원형이며 높이는 150cm, 지름

3) 李閏熙, 「京畿 坡州地域 出土 誌石 研究」, 中央大 人學院 碩士學位 論文, 2005,

4)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坡州 瑞谷里 高麗壁畫墓 發掘調查 報告書」, 1993

은 420cm였다. 내부 석곽은 평면이 장방형이고 東·西·北 3壁과 天井石·門扉石 등은 모두 안쪽면을 잘 다듬은 거대한 화강암 판석을 이용하였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85cm·너비 128cm로 조성 되었다.

석곽은 구릉의 비탈을 L자형으로 파서 평坦하게 정지한 평지의 자연암반층에 마련한 길이 394cm·너비 202cm·깊이 103cm 크기의 장방형 수직광 안에 축조하였는데 석곽의 동·서벽은 각각 크고 작은 판석 2장으로, 북벽은 크고 작은 판석3장으로 구축하였고 천정에는 판석 3장을 가로로 놓아 덮었다.

석곽의 동벽은 너비가 좁은 판석 1장을 토광 바닥에 놓고 그 위에 길고 넓은 거대한 판석 1장을 올려 놓았으며 서벽도 동벽과 동일하게 좁은 판석 위에 거대한 판석을 올려 놓았다. 북벽은 토광 바닥에 너비가 좁은 작은 판석 한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너비가 넓고 방형에 가까운 큰 판석 1장을 올려 놓은 다음 다시 너비가 좁은 판석 한 장을 올려 놓아 구축하였다. 천장에는 폭은 좁으나 길이가 아주 긴 판석 3장을 가로로 놓아 덮었다. 그리고 남벽 쪽에는 한 변의 길이가 130cm인 장방형 판석 1장으로 이루어진 문비석을 세워 막았는데 문비석 안쪽 좌우 가장자리와 접하는 동서벽석 남쪽끝 안쪽 모서리에는 각각 L자형의 문홀을 파서 턱이 지게 하여 문비석이 단단하게 고정되도록 하였다.

석곽의 바닥에는 한 변의 길이 35cm, 두께 4.5cm인 정방형의 경질흑갈색 전을 깔았으나 이미 거의 없어지고 석곽 입구 가까운 바닥에 6장, 안쪽 바닥에 1장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벽화의 배치상태는 동·서벽 내면에는 입구 가까이에서 북벽쪽을 향하여 각각 26cm의 간격을 두고 1列로 5名의 인물상을 그렸는데 맨 안쪽 북벽 가까이의 동·서벽면에는 正坐像을 그렸고 나머지 인물상은 모두 立像이며 또 북벽면과 문비석 내면 중앙에도 각각 1명의 인물 정좌상을 그렸다. 그리고 천정의 성진도는 가로로 놓은 천정석 3枚 중 중앙에 놓인 천정석 내면에 그려져 있다.

벽화는 돌벽면에 陰刻線으로 인물상의 輪廓을 잡고 그 위에 墨線을 그어 그렸는데 얼굴의 세부와 손에 칸 笏, 넓은 소매의 주름 등은 잘 다듬은 돌벽면에 직접 묵선으로 그렸고 머리에 쓴 幡으로 보이는 帽와 코, 입술, 볼 등과 긴 옷고름, 허리에 맨 넓은 띠 등은 먹선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붉은색으로 彩色 하였다.

그러나 벽화는 침수에 의하여 묵선, 채색 등이 거의 씻겨져 대부분의 벽화가 분명하지 않으나 북벽의 인물정좌상과 동·서 벽면의 입구 가까이에 그린

인물입상 및 천정의 성진도는 잘 남아 있다.

1) 東壁 人物像

입구에서 북벽을 향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5명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그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입구 가까이의 인물입상은 벌린 입에서 가느다란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뱀의 머리를 頂部에 그렸으며 책으로 보이는 붉은색 모를 쓰고 긴 붉은 옷고름을 맨 오른섶에 소매폭이 넓은 우임활유포를 입고 폭이 넓은 붉은 띠를 허리에 매으며 소매에 가린 두 손으로 홀을 쥐고 서 있는데 어깨를 약간 앞으로 꾸부린 자세이다.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 얼굴은 넓고 진한 눈썹을 높게 붙였으며 눈동자는 유난히 동그랗고 긴 눈매는 약간 위로 올라가 있으며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으나 엄한 인상을 준다. 그리고 둥그스름한 코, 작은 입술, 양쪽 볼 등은 붉게 칠하였으며 팔자수염과 턱수염은 잘 다스려졌다.

두 번째 인물입상은 훠손이 심하여 잘 알 수가 없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인물입상 2명은 붉게 칠한 모·옷고름·파포의 윤곽목선이 약간 남아 있을 뿐 세부는 알기 어려우며 북벽 가까이 다섯 번째 인물상은 오른쪽 어깨선과, 앓은 자세일 때 좌우로 뛱겨 나오는 무릎을 그린 타원형 윤곽 먹선이 잘 남아 있어 정좌인물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2) 西壁 人物像

서벽도 동벽과 마찬가지로 입구에서 북벽을 향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5명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입구 가까이의 인물입상은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다리 아랫부분과 옷자락은 석곽 바닥에 쌓인 토사에 덮여 지워져 알 수가 없다. 이 인물입상은 염소의 머리 부분을 정부에 그렸고 책으로 보이는 붉은색 모를 쓰고 긴 붉은 옷고름을 맨 오른섶에 소매폭이 넓은 우임활유포를 입고 폭이 넓은 붉은 띠를 허리에 매으며 소매에 가린 두 손으로 홀을 쥐고 입구쪽을 향하여 단정하게 서 있는 입상이다. 얼굴은 등글넓적하고 비교적 큰 눈에 높게 붙인 눈썹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둥그스름한 코, 작은 입술, 양쪽 볼 등은 붉게 칠하였고 팔자수염, 턱수염은 잘 다스려졌다. 그 다

음 3명의 인물입상은 얼굴의 윤곽선이 흐려서 세부를 알아보기 어려우나 붉은 색 모, 포, 붉은 띠 등은 잘 남아 있어 앞의 인물입상과 동일한 옷차림을 알 수 있다. 북벽 가까이의 다섯 번째 인물상은 앉은 자세의 무릎 윤곽선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 좌상임을 알 수 있다.

3) 北壁 人物像

이 무덤의 벽화 중 가장 잘 남아 있는 인물좌상이다. 인물좌상은 크고 작은 판석 3장으로 구축한 북벽의 중앙에 그려져 있는데 머리에 쓴 모의 상반부는 맨 위에 놓인 판석의 하단 가까이에 그렸고 중간의 크고 넓은 판석에는 모의 하반부에서부터 앉아 있는 인물의 자세를 그렸다.

이 정좌한 인물은 서쪽으로 돌린 쥐의 머리를頂部에 그렸고 책으로 보이는 붉은색 모를 썼으며 긴 붉은 옷고름을 맨 오른섶에 소매폭이 넓은 우임활유포를 입고 폭이 넓은 붉은 띠를 허리에 매으며 오른손으로 홀을 비스듬히 쥐고 서 앞을 바라보고 단정하게 앉아 있다. 얼굴은 넓고 길며 높게 붙은 진한 눈썹에 큰 눈을 하고 코끝은 둥그스름하나 콧등은 곧고 길며 붉은 입가에 팔자수염을 길렸고 잘 다듬은 긴 턱수염은 웃짓을 가지고 있다. 육중하고 위풍이 당당한 풍모의 인물정좌상이다. 그리고 이 인물정좌상은 주인공상을 정실 또는 현실의 북벽에 배치한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일하게 석곽 북벽 중앙에 배치하였고 또 좌우 측벽에 그린 인물입상은 덕흥리 벽화고분의 전실 서축벽에 그린 13군태수가례도와 흡사한 면을 지니고 있어 제1호묘의 피장자인 주인공상으로 추정된다.

4) 門扉石 人物像

문비석 상단부가 30cm 정도 벌려져 있어 이곳으로 흘러들어간 토사와 침수 등에 의하여 벽화는 심하게 훼손되어 앉은 자세인 무릎의 윤곽선이 약간 남아 있을 정도여서 세부는 알 수가 없다.

5) 天井石 星辰圖

천정에는 장방형의 큰 판석 3장을 덮었는데 중앙에 덮은 천정석 안쪽면에 굵은 음각선으로 원을 돌려 천공을 표현하고 그 원 안에 북두칠성과 삼태성을 음각하였다. 별들은 얇게 음각한 동그라미 먹선으로 테를 돌리고 그 속에 백회를 칠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7개의 별들을 평행먹선 사이에 백회를 칠한 흰 선으로 연결하여 국자 모양의 별자리를 표현하였고 삼태성은 3개의 별을 일정한 사이를 두고 길이로 배치하였다.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은 동서로 길게 놓였는데 동쪽의 국자바가지 쪽은 북쪽으로, 자루끝은 서쪽으로 향하였다. 삼태성은 이 자루의 중간쯤 아래에 남북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다.

각 인물들은 머리에 쓴 모자의 가운데 부분에는 四神과 마찬가지로 방위의 수호신인 십이지상을 방향에 맞추어 그렸다. 이와 같이 모 또는 관에 12지신상을 그린 벽화묘에는 수락암동 제1호분, 법당방고분 등의 고려벽화묘가 있다. 이처럼 무덤의 4벽에 12지신상을 그려 넣고 천정에는 별을 그려 넣은 것은 무덤의 내부를 일종의 소우주적인 공간으로 간주하여 사자의 영혼이 향하게 되는 천상의 세계를 나타내는 삼국시대 이래의 전통이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벽화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 주목된다. 즉, 종래의 고분들에서는 북벽에 子(동)와 亥(서)를 동벽에 丑·寅·卯·辰을, 남벽에 巳(동)와 午(서)를, 서벽에 未·申·酉·戌을 표현하여, 동벽과 서벽에 각기 넷씩, 그리고 남벽과 북벽에 각각 둘씩 배치하였는데 비하여 이곳은 북벽(子)과 남벽(午)에는 오직 하나씩만 배치하고 동벽(丑·寅·卯·辰·巳)과 서벽(未·申·酉·戌·亥)에는 각각 다섯씩을 배치하고 있다. 12지신들은 꼬리가 달린 빨간모자·포·붉은색의 장삼을 착용하고 있으며 한결같이 긴 홀을 벗겨들고 있어 마치 死者에 사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얼굴은 이마가 좁고 불이 넓어서 둔중한 인상을 풍긴다.

얼굴의 묘사는 고졸하고 섬세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몸의 의습은 활달하고 숙달되어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의습의 선이 유연한 한편, 관모·얼굴·폐슬에 붉은색이 칠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백묘화의 전통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3. 墓誌石 出土와 誌文內容

1) 墓誌石 出土 經緯

벽화묘의 조사과정에서 2기의 묘 중 앞쪽의 묘 表下 30cm 지점에서 크게 4등분된 묘지석편이 출토되었다. 발견 당시 지석의 석질은 청색계통의 판암으로서 앞면만 각자되어 있었고 상태는 판독이 가능한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이 지석의 가장 상단에 쓰여진 ‘贈謚昌和權公墓銘’ 이란 題額과 피장자 권준에 대한 내용의 기록을 근거로 그 동안 실전되었던 권준의 묘소라는 안동권씨의 주장에 대해 청주한씨와 안동권씨간의 피장자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법적 소송으로까지 야기되었다. 이 논쟁에서 지난 2004년 12월 대법원의 상고심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권준 묘지석을 결정적 증거물로 인정해 청주한씨 종중에서 300여년간 분묘수호를 해 온 한상질 묘가 안동권씨 권준의 묘소라고 판시하였다.⁵⁾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1991년 문화재관리국 산하 문화재연구소가 묘역에 대한 발굴조사시 네 조각으로 분리된 묘지석이 출토되어 하나의 묘지석으로 복원하였고 묘지석 지문의 내용에 ‘贈謚昌化公墓銘’ 이란 題額 아래 ‘有元高麗國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 吉昌府院君 權公墓誌銘并序’ 라고 기재되어 있고 권준의 행적과 曾祖, 祖, 父 및 子女, 孫에 이르기 까지 家譜, 葬地를 생전에 선정하여 분묘를 조성한 경과 등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분묘 내부에서 발견된 청자편, 동전 등의 제조시기와 내부벽화의 특징, 공민왕 시해사건으로 인하여 권준의 장손인 권용이 몰락한 경위 및 권준 분묘의 위치에 대한 족보기재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분묘는 권준의 분묘이고 당시 귀족이던 권준의 후손은 이 사건 분묘 기지의 소유자로서 혹은 구 소유자인 제3자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권준의 후손인 원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하여 청주한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 2004년 12월 9일 대법원 제1부 사건번호 2004다 15003 분묘기지권 확인등에 의한 판결문

2) 墓誌石 誌文 內容

권준 묘지석은 판암의 석재로 크기는 가로 54.3cm, 세로 100.2cm, 두께 3.7cm 규모로 모두 1매이다.

지석은 앞면만 각자되어 있고 도굴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일곱군데 발견되었으며 지석앞면에 물방울에 의한 침해로 보이는 결루현상으로 많은 선이 그어진듯한 현상을 띠고 있다.

刻字는 가장 상단에 '贈謚昌和權公墓銘' 이란 제액이 篆書體로서 횡으로 쓰여졌고 그 아래 내용은 楷書體로 쓰여졌다. 제액과 내용은 모두 右에서 左방향으로 向하고 上에서 下로 刻字 하였다. 내용은 가로 27行, 세로 48行으로 구성되었으나 14행에서 '辰' 字가 다른 行에 비해 1단 위편에 새겨져 있다.⁶⁾

분묘기지권을 놓고 법적 소송분쟁을 일으켰던 결정적 증거물인 권준 묘지석 지문의 原文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1) 誌文 原文

「贈謚昌和權公墓銘」

有元高麗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吉昌府院君權公墓誌銘 幷序
門人征東行中書省左右司都事奉翊大夫密直司進賢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李仁復撰

孫子宣授宣武將軍合浦等處鎮邊萬戶府萬戶重大匡寶文閣提學玄城君 權 鏞書并篆

至正壬辰秋七月乙酉 吉昌府院君權公卒旣殮 其壻 三司左使洪君 以狀來曰
先外舅顧言 銘吾葬者莫若吾門人而□□⁷⁾李仁復其言不華可信於後世其以屬筆母容辭仁復謹受命拜手稽首而言曰 惟氏

望福州 世有人德 史不絕書 翰林學士諱於公爲曾祖 削議侍郎贊成事諱胆諡文清 於公爲祖 永嘉府院君諱溥諡文正公 於公爲考 卞韓國大夫人柳氏 於公爲妣 公諱準字平仲生九歲以門功補□齋庫判官積九年爲大殿行首甫冠舉進士登第 由行首□六遷爲右左代言 又六遷 至檢校僉議政丞 大右文監春秋上護軍賜號三韓壁上功臣 階累陞三重大匡 爵累封府院君 大德末 公至京師 忠宣王

6) 이는 皇帝의 地位에 대한 존엄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7) '□'는 글자는 있으나 정확한 판독이 되지 않은 것임.

見而喜之 遂擢爲代言 年二十七 自是 恩遇愈久愈豐 前後所賜無算 明年至大之元 王自元還 践位於壽寧宮 有旨帥衛士直宿事內 其冬 從朝于京 明年 從遊五臺 又明年 從至上都 又明年 秦以爲武毅將軍 合浦萬戶 皇慶初 王遜位于忠肅王 因與之俱歸 既而還朝 屢以使事命公 口是亟往亟來 至延祐末乃已 至治中忠肅王又至 輦下 與濬王相持 群不程 在本國 爲謀益甚 公自以義固守事定拜爲贊成事 且知應舉試曹頭之變 公廢門自絕 頭敗 進府院君 開府置官 明陵旣薨 中外無所屬望 公乃與耆舊大臣獻書宸極 願奉今王爲君 去年冬 王就國公有疾 醫問不絕于家至是 竟不起 春秋七十又二 訃聞 王慟不視朝 命有司理喪事依禮 謂曰昌和 以八月丙辰 葬于慈孝寺之西原 公之志也 初 中書令 昌和李公葬在臨津 卽其旁有寺 曰慈孝 公嘗爲之重修 且曰是寺廢久 而吾所以修之者若此 吾安知其前身 不爲昌和耶 吾死后 以是寺口而葬於此 口口口乎 公儀表秀偉 望之巍然可尊 文正公嘗曰 吾兒必大吾門及貴 見其拜於庭下 必爲之興 其在相位也 口口口口口口口之爲體 性純重 常寡言笑 口居簾間據几終日 無散痛刺者 自奉甚厚 甘旨燕飲 尤極豐腆 每旦 飯十僧者三十餘年 所與口 權醴泉漢功 裴完山珽 蔡平康洪哲 奇德城轍 皆當世偉望 公年六十有四 以韓國卒 又二年 文正公卒 公母弟三人 皆賴公起家 卒至大官 夫人姓口吳氏 宰相仁永之子 子男二人 廉先卒 合浦萬戶 玄福君 適王府斷事官 花山君 子女二人 長適行省郎中 益城府院君 洪鐸 季適儒學提舉 三司左使 洪彥博 曾孫三人 皆幼 予惟洪範五福⁸⁾是人之所欲而能有以享之子蓋鮮 豈天鞋 是必待其人而昇之歟 世之所謂貴富家者 得之於功 或失之於德 得之於初 或失之於終 樂之於身 或不能無憂於其心 言之 可不慎哉 公於富貴 無是數者之患 又得其壽而子孫皆貴顯 於乎 天之所昇於公者 爲何如也 銘曰 匙 昧 蜀 劙 弁 弁 勤順於親 不獲於君 公遇宣王 允也其臣 匪孝曷恩 旣富且貴(缺)..... 滿無不溢 高 無不危 我則異是 克守克持(缺)以有譽 胡不令終 刻銘玄堂.....(缺).....

至正 月 旣望 義堅刊』

(2) 誌文 内容

“ 유원 고려국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길창부원군 권공 묘지명 병서

8) 흥법(洪範)의 오복(五福) : 흥법은 『書經』 주서(周書)의 편명으로 대법(大法) 곧 천지의 큰 법이란 뜻임. 흥법은 9강(綱)으로 나뉘었는데 아홉째가 五福、六極인데 오복은 ①수(壽) ②부(富) ③강녕(康寧) ④유호덕(攸好德) ⑤고종명(考終命)이다.

문인 정동행증서성 좌우사도사 봉의대부 밀직사사 진현관 대제학 지춘추관
사 상호군 이인복⁹⁾ 지음”

손자 선수선무장군 합포동처진변만호부만호 중대광 보문각제학 현성군 권
용¹⁰⁾쓰고 전까지 아울러 씀

지정(至正)¹¹⁾ 임진년(공민왕1, 1352) 가을 7월 을유일(14일)에 길창부원군
권공이 별세하였다. 염습을 마친뒤에 그 사위 삼사좌사 홍군(洪君)¹²⁾이 행장
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작고한 장인이 임종하실 때 말하기를 ‘내 장사때
묘지명을 지을 사람은 내 문인만한 사람이 없다.....(2자빠짐)... 이인복은 그
말이 걸치레로 화려하게 하지 않고 실다워서 후세에 믿을만 하다.’ 하였소.
그래서 묘지명을 지어주기를 부탁하니 사양하지 마시오.” 한다. 인복은 삼가
명을 받고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적는다.

생각컨대 권씨는 복주(福州)¹³⁾의 망족(望族)으로 대대로 인덕이 있고 역사
서에 이름이 끊이지 않았다. 한림학자 휘 위(懇)는 공에게 중조가 되고 첨의시
랑찬성가 휘 단(胆)은 시호가 문청(文清)이니 공에게 조부가 되며 영가부원군
위 부(溥)는 시호가 문정(文正)이니 공에게 아버지가 되며 변한국대부인 유씨
(柳氏)는 공에게 어머니가 된다. 공의 휘는 준이고 자는 평중이다. 9세에 가문
의 공훈으로 □재고판관(□재고판관)에 보임되고 9년이 지나서 대전행수가 되
었다. 관례를 갖 올리고 나서 진사시에 급제하고 행수를 거쳐(□
□)..... 여섯 번 옮겨 우·좌대언이 되었다. 또 여섯 번을 옮겨 검교첨의정승
· 대여 삼중대광에 이르렀으며 관작은 여려차례 봉해져서 부원군에 이르렀다.
대덕(大德)¹⁴⁾ 말엽에 공이 경사에 이르니 충선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여 마침내
대언(代言)으로 발탁하였는데 나이 27세였다. 이로부터 왕의 은우가 갈수록
더욱 풍성하여 전후로 중여한 바가 헤아릴 수 없었다. 이듬해 지대(至大)¹⁵⁾
원년(충렬왕 34, 1308)에 왕이 원으로부터 돌아와서 수령궁에서 왕위에 오르
고 전지를 내려 위사를 거느리고 직숙하여 대내를 섬기게 하였다. 그 해 겨울에
왕의 원나라 서울 조회 행차에 따라가고 이듬해 오대에 종유하였다. 또 이듬해

9) 李仁復,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출생, 공민왕 23년(1374) 별세, 자는 克禮, 호는 槭隱, 시호는 文忠,
본관은 星州, 벼슬은 判三司使를 거쳐 侍郎에 이름, 홍안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창화공의 문인임.

10) 權鏞, 초명은 錢, 본관은 안동, 창화공의 손자로 합포만호를 거쳐 密直副使에 이름

11) 至正, 元順帝의 年號

12) 이름은 彥博

13) 福州, 安東의 옛 地名

14) 大德, 元成宗의 年號, 1297-1307

15) 至大, 元武宗의 年號

에 상도에 따라갔더니 이듬해에 황제에게 주달하여 무의장군 합포만호로 삼았다 황경 초년에 충성왕이 충숙왕에게 양위하고 인하여 함께 돌아가셨다. 얼마 뒤에 환조하자 여러차례 사신의 일을 공에게 명하였다. 이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가 연우 말년에 와서야 그만 두었다. 지치 연간에 충숙왕이 또 원나라 서울에 와서 심왕과 서로 버티었다. 불만을 품은 나쁜 무리들이 본국에 있으면서 나쁜 모의를 함이 더욱 심하였는데 공은 스스로 의리로서 굳게 지키었다. 사건이 진정되자 공을 임명하여 찬성사로 삼았고 또 과거시험을 주관하였다. 조적의 변란¹⁶⁾에 공은 문을 닫아 걸고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어버렸다. 조적이 폐하고 영릉¹⁷⁾이 복위하자 부원군에 올려 봉하고 개부하여 관원을 두었다.

명릉¹⁸⁾이 승하하자 중외가 축망하는 바가 없었다. 공은 원로대신과 더불어 원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 금왕¹⁹⁾을 받들어 임금으로 삼기를 원하였는데 지난 겨울에 왕이 즉위 하였다. 공이 병이 들자 왕이 보낸 의원의 문병이 집에 끊이지 않았다. 이때에 와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니 춘추가 72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왕은 슬퍼하여 조회를 보지 않고 유사에 명하여 상사를 예에 의하여 치르게 하고 시호를 창화라 하였다. 8월 병진일에 자효사의 서쪽 언덕에 장사지내니 공의 뜻이었다. 이전에 중서령 창화 이공의 묘지가 임진에 있었고 그 곁에 절이 있었으니 자효사라 불렸다. 공이 일찍이 그 절을 중수하고 또한 말하였다.

“이 절이 폐한지 오래 되었는데 내가 이를 수리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내가 어찌 그 전신이 창화가 아닌줄 알겠는가. 내가 죽은 뒤에 이 절로..... 이 곳에 장사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공은 의표가 수위하여 바라보면 우뚝하여 존경할 만 하였다. 문정공이 일찍이 밀하기를 “우리 아이가 반드시 우리가문을 크게 일으킬 것이다.” 하였다. 귀하게 되어 그가 들에서 절하는 것을 보고는 반드시 일어났다. 그가 재상의 자리에 있을적에 (9자빠짐).... 반드시 예로 대하였다. 천성이 순수하고 중후하여 항상 말씨와 웃음이 적었다. 평상시에 발 사이에서 안석이 기대어 있었는데 종일토록 감히 통자하는 이가 없었다.

16) 曹頓의 變亂, 忠肅王 복위 8년(1339)에 정승 曹頓·蔡河中 등이 濟陽王 墓를 왕위에 추대하려고 반역을 도모한 변란.

17) 영릉(永陵), 忠惠王의 墓, 곧 충혜왕을 가리킴.

18) 명릉(明陵), 忠穆王의 墓, 곧 충목왕을 가리킴

19) 금왕(今王), 곧 恭愍王을 가리킴

자신의 봉양을 매우 잘하였는데 맛나는 음식과 잔치 술상등을 더욱 풍요롭게 하였다. 아침마다 중 10명을 밥먹여 준 것이 30여년이었다. 함께 교유한 이는 예천부원군 권한공, 완상군 배정, 평강군 채홍철, 덕성부원군 기철 인데 모두 당세의 위대한 인물이었다. 공의 나이 64세에 변한국대부인이 별세하고 또 2인이다. 염은 공보다 먼저 죽었는데 합포만호를 지내고 현복군에 봉해졌으며 적은 왕부단사관을 지내고 화산군에 봉해졌다. 딸은 2인이나 맏이는 행성 중랑 익성부원군 홍탁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는 유학제거 삼사좌사 홍언박에게 출가 하였다. 손자는 6인이나 용은 합포만호이고 현은 전의령이고 호는 상호군이고 균, 주는 모두 별장이고 현은 □계관직이다. 증손은 3인이나 모두 어리다. 내가 생각건대 홍범의 오복²⁰⁾은 사람이 원하는 바이나 능히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대개 드물었으니 어쩌면 하늘이 아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을 기다려서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이른바 부귀한 집이란 공으로 그것을 얻어서 혹 그것을 덕에서 잃어버리기도 하며 처음에 그것을 얻어서 혹 마지막에 잃어버리기도 하며 몸에서는 즐기나 혹 그 마음에 근심이 없지 못하니 그것을 말하자니 불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이 부귀에 이 몇가지의 근심이 없고 또 그 장수를 얻고 자손이 모두 귀현하니 아 하늘이 공에게 내려준바가 어떻다고 하겠는가.

명(銘)은 다음과 같다.

“어버이에게 순종하고서 임금에게 신임얻지 못할 이 누가 있겠는가
공은 충선왕을 만나 진실한 그 신하였네
효도가 아니면 어찌 충성하겠으며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은총 베풀겠는가.
이미 부유하고 혼귀하니.....(원문4자 결).....
가득차면 넘치지 않음이 없고 높으면 위태롭지 않음이 없는데
나는 이와 달라서 능히 지키고 또한 부지했네.
(1자 결).... 명에 있으니 어찌 좋게 마치지 않으랴.
현당에 명을 새기니.....(원문 4자 결).....
지정(.....원문 3자 결.....)16일에 의견(義堅)은 새김.”

20) 洪範의 五福, 洪範은 『非經』周易의 편명으로 人法 곧 천지의 큰 법이란 뜻, 箕子가 천지의 대법을 서술하여 周武王에게 전달한 것이다. 홍범은 9강으로 나뉘었는데 아홉째가 五福 六極이다. 五福은 ①壽 ②富 ③康寧 ④攸好德 ⑤考終命 이다.

4. 誌文의 特徵

1) 權準의 行蹟과 家系

묘지문을 통해 피장자는 고려시대 말경의 인물인 權準으로 그의 字는 平仲, 謚號는 昌和이며 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吉昌府院君에 이른 인물이다. 묘지명을 지은 이는 주인공의 문인인 李仁復²¹⁾이고 글을 쓴 이는 손자인 鏞²²⁾, 지석을 새긴 이는 義堅이다.²³⁾ 지문의 글을 지은 이인복은 序文에서 ‘지정 임진년 가을 7월 을유일에 길창부원군 권공이 별세하니 그 사위 삼사좌사 홍군(洪君)²⁴⁾이 행장을 가지고 와 묘지명을 지어줄 것을 부탁해와 삼가 머리를 조아려 글을 짓느다’고 적고 있다.

묘지문의 내용은 크게 권준의 사망 연월일과 행적에 대해 적고 증조부로부터 증손에 이르기까지의 가계를 기록했으며 특히 葬地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 권준의 행적을 찬양하는 銘文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권준이 사망한 해는 1352년 7월 14일로 그의 나이 72세때이다.²⁵⁾ 묘지명 내용에는 권준의 曾祖, 祖, 父 및 子女, 孫子에 이르기까지 家譜가 기록되어 있으며 葬地를 생전에 선정하여 처음부터 묘지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계에 대한 기록은 曾祖인 謚 隱로부터 祖父 胆, 父 淳와 母 변한국대부인 柳氏로부터 증손에 이르기까지 관직과 출가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문에 기록된 권준의 家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李仁復,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출생, 공민왕 23년(1374) 별세, 자는 克禮, 호는 槐隱, 시호는 文忠, 본관은 星州, 벼슬은 判三司使를 거쳐 侍中에 이름. 홍안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창화공의 문인임.

22) 權鏞, 초명은 錠, 본관은 안동, 창화공의 손자로 합포만호를 거쳐 密直副使에 이름

23) 「門人征東行中書省左右司都事奉翊大夫密直司提學玄城君 權 鏞書并篆」
將軍合浦等處鎮邊萬戶府萬戶重大匡實文閣提學玄城君 權 鏞書并篆」

24) 이름은 彥博, 창화공의 사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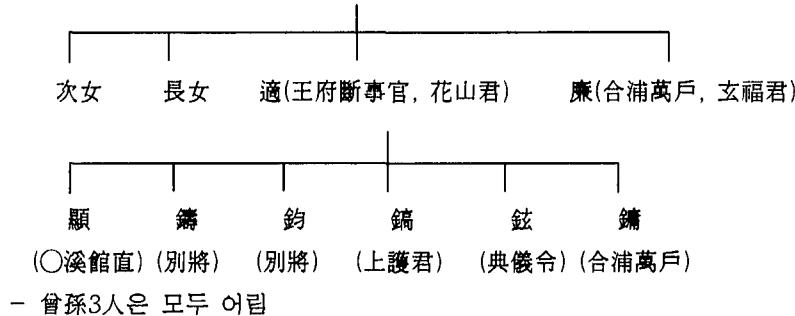
25) 「...至正壬辰秋七月乙酉 吉昌府院君權公卒...」

(曾祖) 趙(翰林○)

(祖) 朋(謚 : 文清, 僉議侍郎贊成事)

(父) 濬(謚 : 文正, 永嘉府院君) ----- (母) 柳氏(卞韓國夫人)

(本人) 準(謚 : 昌和, 吉昌府院君) ----- (夫人) 吳氏(1344년 卒)



圖表1. 〈權準 墓誌石 誌文에 나타난 家系圖〉

2) 葬地選定에 대한 理由

권준 묘지석 지문에서 특이 할 만한 기록은 葬地선정에 대한 기록이다.

권준은 생전에 장지를 부탁하였는데 그 곳은 본인이 직접 중수한 慈孝寺라는 사찰이며 사후 본인을 이 곳에 장사지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권준의 묘소는 본인의 遺志에 따라 慈孝寺의 서편 언덕으로 선정되었으며 주인공은 평소 이 곳이 좋은 터임을 헤아려 이미 폐사된지 오래된 慈孝寺를 중수하고 積德을 쌓았으며 또 30년간 10명의 스님에게 아침식사를 공양함으로써 적덕을 더하고 인연을 맺음으로써 장차 절 서편에 그의 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⁶⁾ 장사일은 주인공 권준이 죽은 7월 乙酉日부터 8월 丙辰일까지 32일만에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⁷⁾

3) 銘文內容

權準 墓誌石 誌文의 말미에는 권준의 생전 업적을 찬양하는 銘文을 기록하

26) 「...昌和李公葬在臨津 卽其旁有寺 曰慈孝 公嘗爲之重修 且曰是寺廢久 而吾所以修之者若此 吾安知 其前身 不爲昌和耶 吾死后 以是寺口而葬於此 □□□乎...」

27) 고려시대 장사기간이 확인되는 몇몇 왕들의 경우 왕이 죽은 후 26만에 장사를 치루었다는 문헌기록이 보이고 있어 권준의 32일 장사는 왕보다 그 기간이 길어 격식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고 있다.

4언절구로 되어 있는 명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임금에게는 진실한 신하로서 효도가 아니면 어찌 충성하겠으며 사랑이 아니면 어찌 은총을 베풀겠는가?²⁸⁾라고 하여 권준의 품성에 대해 극진히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석의 명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훼손이 심해 12字가 판독되지 않고 있다.

5. 結 論

이상에서 최근 분묘기지권 논쟁을 벌였던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 112번지에 소재한 高麗壁畫 墓인 權準 墓 誌石에 대해 考察해 보았다.

본 분묘 유적은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고려시대 분묘로 이 지역은 고려의 수도였던 開城의 주변 지역으로 고려시대 사대부 묘역들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 1991년 본 분묘에서 채색된 고려벽화가 발견되므로서 학계의 비상한 관심과 함께 고려시대 美術史는 물론 服飾史, 生活史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려벽화 발견 당시 출토된 1매의 묘지석은 무덤의 주인공을 바꿔버리는 일대 사건을 불러왔으며 그 과정에서 묘지석은 결정적 증거물로 인정 되었다.

따라서 묘지석이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生平事績을 기록해 무덤에 묻는 부장품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무덤의 주인공을 판가름하는 결정적 증거물로서의 역할기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향후 개발과정 및 분묘이장 등의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분묘기지권 논란에 묘지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先例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묘지석은 1차 사료로서 金石文연구는 물론 美術史, 生活史, 書藝史, 陶瓷史 등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으며 향후 각종 개발과 분묘의 移·火葬 등으로 인한 묘지석 자료의 출토가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묘지석과 관련한 연구는 美術史, 書藝史, 陶瓷史는 물론 個人 人物史, 生活史 등 많은 歷史分野에 있어서 좋은 研究材料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28) 「孰順於親 不獲於君 公遇宣王 允也其臣 匪孝曷恩 既富且貴(缺)..... 滿無不溢 高 無不危 我則異是 克守克持口以有譽 胡不令終 刻銘玄堂.....(缺).....」

파주관련 한시(漢詩) 조사

이동륜*

1. 서론

- 1) 한시(漢詩)의 정의
- 2) 한국의 한시(漢詩)
- 3) 조사목적

2. 본론

- 1) 조사목적
- 2) 파주관련 한시(漢詩)

3. 결론

1. 서론

1) 한시(漢詩)의 정의

한시(漢詩)는 한자(漢字)로 기록된 시(詩)를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한대(漢代)의 시(詩)를 일컫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중국 및 주변의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로 쓴 시를 포함한다.

한시(漢詩)의 분류기준은 자수(字數)·구수(句數)·압운(押韻)·운자(韻字)·위치(位置) 등이다.

자수(字數)는 오언(五言)·칠언(七言)이 대부분이며 사언(四言)·육언(六言)도 있다.

구수(句數)는 사구(四句)·팔구(八句)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사구는 절구(絕句), 팔구는 율시(律詩)라고 한다.

압운(押韻)에서 운자(韻字)는 대부분 구말(句末)에 둔다. 그러나 고대시(古代詩) 가운데는 구수, 구중에 압운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시(長詩)에서는 도중에 운을 바꾸기도 한다.

한시(漢詩)는 그 성격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구위원

첫째. 고시(古詩)이다.

일반적으로는 근체시 성립 이전, 즉 태고의 가요(歌謡)에서부터 위진(魏晉) 남북조의 악부 가행(歌行)을 가리키지만, 근체시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시(詩) 중 근체시 규격에 부합되지 않는 시를 가리키기도 한다. 근체시에 비해 구법(句法)과 연(連)의 구성 및 구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5언·7언이 주가 되나 4언·6언도 있다. 압운(押韻)은 존재하지만 엄격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언고시(五言古詩)와 칠언고시(七言古詩)이다.

둘째. 악부(樂府)이다.

악부(樂府)는 악가를 관장하던 관청의 명칭으로서, 여기에서 채집·보존한 악장(樂章)이나 가사(歌辭) 또는 그 모작을 통털어 악부시(樂府詩)라고 한다.

셋째. 근체시(近體詩)는

고체시(古體詩)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시(詩)로서 당대(唐代)에 그 형식이 완성되었다.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구법이 있으며, 연의 구성과 대구(對句)의 구속이 있고 구수의 규정이 있다. 율시(律詩)·배율(排律)·절구(絕句)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5언·7언의 구별이 있다.

① 율시(律詩)는 1편이 4운 8구로 이루어졌으며, 2구절을 묶어 1련이라고 하고, 수련(首聯)·함련(頷聯)·경련(頸聯)으로 구성되며, 이 때 함련과 경련은 반드시 대어(對語)를 사용하여 연구(聯句)를 이루어야 한다. 오언 율시(五言律詩)에는 제2·4·6·8구에 압운(押韻)이 붙고, 칠언율시(七言律詩)에는 제1·2·4·6·8구에 각운(脚韻)이 붙는다.

② 배율(排律)은 한 편이 6련 12구로 구성되며 한 구는 5언이 정격이나 7언도 있다. 평측(平仄)과 압운(押韻)은 율시와 비슷하지만 6련을 모두 대어 연구(對語聯句)로 한다. 절구는 기승전결의 4구로 이루어지며 1·2구는 산(散), 3·4구는 대(對)가 된다. 오언절구에는 제2·4구의 끝에, 칠언절구는 제1·2·4구의 끝에 압운을 둔다.

2) 한국의 한시(漢詩)

한국에 언제 한시(漢詩)가 도입되어 창작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한글 창제 직전까지는 한자를 사용하였고, 그와 동시에 중국의 시(詩) 형식을 빌려 한민족(韓民族)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한시(漢詩)는 전통적으로 문학형

태의 하나로 인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한시(漢詩)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를 전후하여 근대 민족주의 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였다. 국문(國文)과 한문(漢文)에 의한 2원적 어문(語文)생활로부터 국문으로의 단일화가 진행되면서 국문시(國文詩)가 주체적 자리를 차지하게 되자 한문시(漢文詩)는 한시(漢詩)로 인식되어 표현하게 된 것이다.

(1) 고대 및 삼국시대

최초의 한국 한시로 알려진 기자(箕子)의 《맥수가(麥秀歌)》는 BC 11세기 무렵의 작품이다. 그 뒤 고구려 때 밧사공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공무도 하가(公無渡河歌)》, 고구려 유리왕의 《황조가(黃鳥歌)》, 가야 수로왕(首露王)의 강림설화(降臨說話)로 전하는 《구지가(龜旨歌)》 등 고대가요가 사언사구체의 한시(漢詩)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후대에 와서 한문으로 번역된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당(唐)나라에 유학하여 한자(漢字)를 경험하고 학습함으로써 보다 많은 한시(漢詩)가 창작되는 등 본격적인 한국 한시의 터를 잡게 되었다.

(2) 고려시대

958년 과거제도의 실시로 한문학이 융성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1세기에 들어서자 박인량(朴寅亮) · 김부식(金富軾) · 정지상(鄭知常) · 고조기(高兆基) 등 뛰어난 시인(詩人)이 등장하였다. 고려 중기 무신집권 시기의 한시는 옛 귀족 세력의 후예인 이인로(李仁老) · 임춘(林椿) · 오세재(吳世才) 등을 위시한 죽림고회(竹林高會) 그룹과 신진 사인(士人)을 대표하는 이규보(李奎報)의 대조적인 시세계로 특징지어진다. 이인로는 소식(蘇軾)의 시어(詩語)나 그와 관련된 고사들을 즐겨 사용하였다. 이규보는 독창성을 강조하는 진취적인 창작 자세로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 주었으며 문학적 수준이 높은 작품을 많이 남겼다.

고려 후기는 불교 승려와 신진사대부총에 의한 다양한 시작(詩作) 활동이 있었다. 또한 원(元)나라의 지배하에 민중이 겪은 고난을 비롯해 세속의 일들을 성리학(性理學)의 이념을 받아들인 고려 말기의 학자들은 작품 속에 구국(救國)의 뜻과 도학적(道學的)인 이념을 시(詩) 속에 담아낸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고려 말 국운(國運)의 쇠퇴함을 자연귀의사상에 합축하여 표현했

으며 이러한 시풍(詩風)은 조선조 초까지 이어졌다.

(3) 조선(朝鮮) 전기

조선(朝鮮)은 통치이념으로 성리학(性理學)을 채택함으로써 주자학(朱子學)이 문학위에 군림하는 재도관(載道觀 : 도(道)를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덕주의적 문학관)이 성립하였으나, 이러한 문학관이 문학의 생산을 방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조선 전기의 전체적인 시단(詩壇) 분위기는 고려 시대에 송상한 송시학(宋詩學)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서거정(徐居正) · 김종직(金宗直) · 김시습(金時習)에 이르러 조선왕조 시단의 터전이 굳어졌다.

김종직의 『청구풍아(青丘風雅)』는 시대의 풍상에서 멀리 떨어져 엄중(嚴重) · 방달(放達)한 시관(詩觀)으로 일관하고 있어, 시사(詩史) 연구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한편 체제에서 일탈된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시습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시로써 해명한 보기 드문 시인으로 현실비판의 시,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기행시를 많이 남겼다. 조선의 한시(漢詩)가 다양하게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중종(中宗) 때를 전후한 시기이다.

특히 칠언율시에서 특징을 보인 정사룡(鄭士龍)은 다음 시기의 노수신(盧守慎) · 황정옥(黃廷璣)과 더불어 관각(館閣)의 뛰어난 시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조선의 시단이 본격적으로 당풍(唐風)을 배워 크게 일어난 것도 이 때이며,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박순(朴淳)이다.

삼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리는 이달(李達) · 백광훈(白光勳) · 최경창(崔慶昌) 등이 모두 박순으로부터 당풍(唐風)을 배워, 고경명(高敬命) · 임제(林悌) 등과 함께 호남시단(湖南詩壇)을 빛나게 하였다. 이 시대 시사(詩史)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황진이(黃眞伊) · 이매창(李梅窓) · 이옥봉(李玉峰) · 신사임당(申師任堂) · 허난설헌(許蘭雪軒) 등 여류시인들의 활동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4) 조선(朝鮮) 후기

임진왜란 · 병자호란 후부터 숙종(肅宗) 때에 이르는 70여 년간은 시단(詩壇)의 침체기이다. 숙종 이후에는 정치가 당론에 휘말리자 사림(유학)은 다시 빛을 잃고 침체하였다. 김창흡(金昌翕) · 이광려(李匡呂) · 신팍수(申光洙) 등이

서로 다른 처지에서 시를 썼고, 이른바 사가(四家 : 李德懋, 柳得恭, 朴齊家, 李書九)의 풍류시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시(詩)·서(書)·화(畫)의 삼절(三絕)로 유명한 신위(申緯)는 민족의 애환을 시로써 노래하였고, 박식하기로 이름난 이학규(李學達)는 68수의 연작시 《영남악부(嶺南樂府)》를 남겼다. 조선 후기는 사대부의 시(詩)가 침체해진 반면 위향시인(委巷詩人)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홍세태(洪世泰)의 《해동유주(海東遺珠)》를 필두로 《소대풍요(昭代風謠)》, 《풍요속선(風謠續選)》, 《풍요삼선(風謠三選)》이 60년 간격으로 간행되었으며, 조수삼(趙秀三)·이상적(李尙迪)·정지운(鄭芝潤) 등이 작품을 남겼다. 말기에 강위(姜璣)·이진창(李建昌)·김택영(金澤榮)·황현(黃玹) 등은 한국 한시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특히 강위는 조선왕조의 멸망을 통분해 하는 시를 지어 조선 말기의 문단을 빛내는 동시에 한 시대의 종언을 예감한 시인이었다. 그 밖에 조선 후기에 한시의 형식을 해체시킨 방랑시인 김립(金笠 : 김삿갓)은 지배층에 대한 야유와 풍자를 한 시에 담아 표현하면서 파자(破字)·국문(國文)·육담(肉談) 등을 뒤섞어 전통적 한시형식을 뒤집었다. 한국 한시(漢詩)의 역사가 막을 내린 이후 1918년 장지연(張志淵) 등이 한국 한시의 통시적 총정리를 시도한 《대동시선(大東詩選)》을 엮어냈다.

2. 본 론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오랜 기간 우리 한국문학의 한 분야로서 국문학사를 빛내고 있는 한시(漢詩) 중, 파주(坡州)와 관련 있는 작품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파주 문학의 뿌리를 재조명하고, 그 바탕위에 현대 파주문학의 지평(地平)을 열어 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파주관련 한시(漢詩)

臨津江(임진강)

金富軾

秋風嫋嫋水洋洋	가을 바람은 산들산들, 물은 출렁출렁
回首長空思渺茫	머리 돌려 공중을 쳐다보니 마음 아득하네.
惆悵美人隔千里	쓸쓸하다 임은 천리나 떨어졌는데
江邊蘭芷爲誰香	강가의 난초와 구리대는 누구를 위해 향기로운고?

【김부식(1075~1151)】

고려 중기의 유학자·역사가·정치가·문학가로 호는 뇌천(雷川). 신라 왕족의 후예로 아버지 근(觀)은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까지 이르고, 김부식은 고려 최고의 관직인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었으며, 동시에 한국 최초의 정사(正史)인 《삼국사기(三國史記)》의 편찬 책임자가 되었다. 1145년(인종 23) 50권으로 완성된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그의 정치이념인 유교사상·사대주의사상(事大主義思想)·신라중심 사관(史觀)이 반영되어 있다. 의천(義天)의 비문과 《진락공 중수 청평산 문수원기(眞樂公重修清平山文殊院記)》 등이 전해진다. 1153년(의종 7) 중서령(中書令)에 추증되고 인종묘정(仁宗廟廷)에 배향되었다. 저서에는 《김문열공집(金文烈公集, 20권)》, 《봉사어록(奉仕語錄)》 등이 있다.

題天尋院壁 (천심원의 벽에 쓰다)

李仁老

待客客未到	손님을 기다려도 손님은 오지 않고
尋僧僧亦無	스님을 찾았으나 스님도 또한 없네.
惟餘林外鳥	오직 저 숲 밖에 새들만 있어
款款勸提壺	술병 들라고 정성껏 부탁하네.

(註) 天尋(壽)院 : 장단(長湍) 남쪽 임진강 가에 있었던 원(쉼터)

【 이인로(1152~1220) 】

고려 명종 때의 학자.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문장과 글씨에 능하였다. 1180년 진사과에 장원급제. 직사관에 있으면서 당대의 학자들인 오세재(吳世才)·임춘(林椿)·황보항(皇甫抗) 등과 친구가 되어 시(詩)와 술을 함께 즐겼다. 그의 한시 산거(山居)는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시이다. 저서로 〈쌍명재집(雙明齋集) 3권〉, 〈파한집(破閑集)〉 등이 있다.

臨津江(임진강)

李奎報

扁舟駕浪疾於飛	조각배 물결을 타니 나는 것 보다 빠르고
水氣淒涼過客衣	물기운 서늘하게 나그네 옷에 스며드네.
綠岸有時雙鷺立	푸른 언덕에는 가끔 백로가 쌍쌍이 서 있고
碧天何處一帆歸	푸른 하늘 어디로 배 한 척 지나 가는고?
山合紅日低村樹	산은 붉은 해를 합해 마을 나무에 나직하고
風捲銀濤碎釣磯	바람은 은빛 파도를 거두어 뉘시리를 부수네.
初出東門尚惆悵	처음 동문을 나설 적에도 쓸쓸했는데
渡江無乃益依依	막상 강 건너 보니 쓸쓸한 생각 더해가네.

【 이규보(1168~1241) 】

고려 시대의 문신·문장가로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 9세 때 이미 신동으로 알려졌으며 14세 때 성명재(誠明齋)의 하과(夏課)에서 시를 지어 기재(奇才)라 불렸다. 소년시절 술을 좋아하여 자유분방하게 지냈는데, 과거지문(科舉之文)을 하찮게 여기고 강재칠현(江在七賢)의 시회에 드나들었다. 이로 인해 16, 18, 20세 때 등 3번에 걸쳐 사마시(司馬試)에서 낙방했다. 23세 때 진사에 급제했으나 이런 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출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개성 천마산에 들어가 백운거사를 자처하고 시를 지으며 장자(莊子)사상에 심취했다. 그의 문학은 자유분방하고 웅장한 것이 특징인데, 당시 이인로 계열의 문인들이 형식미에 치중한 것에 반해 기골(氣骨)·의격(意格)을 강조하고 신기(新奇)와 창의(創意)를 높이 샀다. 자기 삶의 경험에 입각해서 현실을 인식하

고 시대적·민족적인 문제의식과 만나야 바람직한 문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했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백운소설(白雲小說)〉·〈국선생전(麴先 生傳)〉 등의 저서와 다수의 시문을 남겼다.

(註) 묘 : 강화도 길상면 길직리

紺 岳(嶽) 山(감 악 산)

林 椿

造物小兒真如弄
博沙戲作千峯象
茲山首尾羌數州
天外迴翔如無鳳

조물주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좋아해
모래 모아 수천 봉우리 만들었네.
산머리에서 끝까지 몇 고을 깔고 앉았는지
그 모습 하늘 뚫고 나는 봉황 같구나.

過 長 端(장단을 지나며)

長端風急浪如山
欲借孤舟上瀨難
十二時回朝復暮
人間何日少波瀾

여울에 바람 몰아쳐 물결이 산 같으니
외로운 배 빌려 물길을 오르려 하네.
열두 시간 되돌아 아침 다시 저녁되니
인간 세상, 어느 날인들 풍파없으리.

【임 춘(생물년 미상)】

고려 중기의 문인이며, 고려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이다. 호는 서하(西河). 고려 건국공신의 자손으로 할아버지 중간(仲幹)은 평장사(平章事)를 지냈고 충경(忠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인로·오세재 등과 더불어 죽림고회(竹林高會)에 나가 술을 벗하며 문학을 논하여 고려 중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주기사상(主氣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기질이 나 개성을 중시하는 문장론을 주장했다. 고사를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아름답게 수식하는 변려문(駢儷文)을 많이 남겼으나 속으로는 한유(韓愈)가 주장했던 고문운동(古文運動)에 찬동하여, 〈답영사서(答靈師書)〉에서 명유(名儒)라

고 했던 사람은 모두 당·송대의 고문가(古文家) 였다. 김부식 아래로 소동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당시 문풍(文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문집으로 〈서하집(西河集)〉이 있으며, 한국 가전문학(假傳文學)의 선구적 작품인 〈국순전(麴醇傳)〉·〈공방전(孔方傳)〉을 남겼다.

長湍石壁(장단석벽)

李齋賢

插水雲根聳	구름은 산 높이 떠 있는데
橫空黛壁開	공중에 비친 검푸른 절벽 열렸네.
魚龍轉隅隈	고기와 용은 물굽이 일으키고
百里綠徘徊	백리나 푸른 빛이 감도네.
月侵玻璃色	달은 파리한 물속에 잠기는데
花分錦繡堆	꽃은 비단처럼 곱게 쌓였네.
畫船管絃催	화려한 배에서 술 마시고 풍악치며
一日繞千迴	돌고 또 돌아 천바퀴나 돌았네.

(註) 長湍石壁 : 임진강 적벽(赤壁)을 이 름.

【이제현(1287~1367)】

고려 말기의 성리학자. 호는 익재(益齋)이다. 1301년 15세 때 문과에 급제한 뒤 1308년 예문춘추관의 벼슬을 지냈다. 1314년에 원나라에 가 있던 충선왕이 '만권당'을 세워 그를 불러 들이자, 연경에 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고전을 연구하였다. 그는 대 문장가로 성리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원나라 조맹부의 글씨체를 고려에 들여와 널리 폈다. 그가 지은 〈익재난고(益齋亂藁)〉의 소작부에는 17수의 민간 가요가 한시로 번역되어, 오늘날 고려 가요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익재난고(益齋亂藁)〉, 〈익재집(益齋集)〉, 〈역옹패설(櫟翁碑說)〉, 〈효행록(孝行錄)〉 등이 있다.

過澄波渡(징파도를 지나며)

安 軸

古渡舟如葉	오래된 나루의 일엽편주
天寒波更澄	날이 차 물결이 더욱 맑구나
崩崖懸魄石	무너진 벼랑에 뜯생진 바위가 매달렸고
斷岸積層冰	끊어진 언덕에 층층 얼음이 쌓였네
浪鳥近堪憇	물새야, 네 감히 삿대 가까이 이르랴?
游漁貪莫醫	물고기야 미끼 텁내어 그물에 들지 마라.
篙師敢輕淺	사공을 감히 업신여기라;
手有濟人能	제손에 사람을 건넬 힘이 없는데.

(註) 澄波渡 : 임진강의 옛 이름. 임진강 상류 연천군 왕정면 부온의 임진강을 일컬음

【안 축(1287~1348)】

고려 말의 문신. 호는 근재(謹齋). 고향 순흥의 세력기반을 가지고 중앙에 진출한 신홍유학자로 탁월한 학문으로 문명(文名)이 높았다.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규정, 단양부주부 등을 지내고, 1324년 원의 제과(制科)에도 급제하였다. 충숙왕(忠肅王)이 복위한 1332년 파면 당했다가, 충혜왕 복위 때 재등용되었다. 성균학정, 강원도존무사, 감찰대부, 상주목사 등을 지내고, 1344년 지밀직사사, 1347년 판정정지도감사가 되어 양전행정에 참여하였다. 〈관동별곡(關東別曲)〉, 〈죽계별곡(竹溪別曲)〉 등을 지었으며, 저서로 『근재집(謹齋集)』을 남겼다.

夕渡臨津(저녁 때 임진강을 건너며)

金 普

行到坡州界	파주의 경계에 이르니
半邊斜日昏	해는 이미 황혼이네.
天晴群岫出	하늘이 개어 온갖 산이 빼어났고
地盡大江奔	땅이 끝나고 큰 강이 달리네.

巨浪爭山立	큰 물결은 산과 비기어 섰고
長風捲席掀	먼 바람은 자리를 들어 걸어 가네.
有村應不遠	아마 마을이 멀지 않았는지
犬吠小柴門	조그만 사립문에서 개짖는 소리.

【김 보(생물년 미상)】

고려 후기의 문신이며, 호는 죽강(竹江)이다. 공민왕의 수종공신(隨從功臣). 당시의 권신인 김용(金鏞) 등과 더불어 권행(權幸)을 다투던 친원파 인물이다. 1351년(공민왕 즉위년) 강릉대군이 고려왕으로 지명됨에 따라 왕을 호종하여 입국하였으며 그해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고 의성(義城) 덕천창제조(德泉倉提調)를 겸하였다. 1356년에 반원정치(反元政治)가 결행됨에 따라 부원배(附元輩)의 거두였던 기철(奇轍) 등이 주륙되면서 함께 체포되어 장형(杖刑)을 받고 가라산(加羅山)에 유배되었다. 그 뒤에 신돈(辛曄)이 집권하면서 이춘부(李春富)와 함께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발탁되고, 곧 이어 수시중(守侍中)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신돈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같은 해 9월에 면직되었다.

普賢院(보현원)

僧. 惠文

爐火香中演梵音	향불 피워 놓고 불경 읽으며 염불하는데
寂寥生白室沈沈	고요한 가운데 흰빛나고 방안 침침하네.
路長門外人南北	길 길은 면데 문밖엔 사람이 남과 북이요
松老岩邊月古今	바위에 소나무 늙었건만 달은 여전하네.
空院曉風鐸饒舌	빈 절 새벽 바람에 염불소리 수다스럽고
小庭秋露敗荷心	안마당 가을 이슬에 마음이 언짢으네.
我來奇傲高僧榻	내가 와서 높은 증자리 차지하여
一夜清談值萬金	첫날밤 좋은 이야기 만금어치나 되네.

(註) 普賢院 : 長湍 남쪽에 있었다. 고려 18대 의종 24년(1170년)에 왕이 뭇 신하를 거느리고 보현원에 행차하여 놀이했다. 왕은 문신(文

臣) 만 위해주고 무신(武臣)은 박대하니 무신 중에 정중부(鄭仲夫), 이의방(李義方) 등은 참다못해 격분하여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모두 잡아 죽여 못 가운데로 던져 버렸다. 그리고 왕을 거제도로 귀양보내고 정권을 잡았다.

【혜 문(생몰년 미상)】

고려 때 스님.

祖 江(조 강)

白 元 恒

小舟當發晚潮催	작은 배로 건너려니 저녁 조수 밀려오고
駐馬臨江獨冷睂	말 세우고 강가에서 쓴웃음 짓네.
岸上世情何日了	언덕 위 세상 인심 언제 풀리나
前人未渡後人來	앞사람 건너지 못하는데 뒷사람 오네.

(註) 祖江 : 임진강·한강이 만나 통진 북쪽으로 흘러가는 삼도쯤(三渡品).

파주 탄현 통일전 망대에서 조망

【백원항(생몰년 미상)】

고려 말기의 문인.

長湍路上還京作(장단에서 서울로 가며)

權 近

出城三日靡遑安	성을 나간 삼일에 편안할 틈 없어
恐有天章下九關	천장이 구관에서 내려올까 두렵다오.
依樣葫蘆慙薄技	호로병 본을 뜨니 재주 알아 부끄럽고
不材樗櫟玷清班	쓸모없는 신세로 맑은 벼슬 더럽힌다.
尚憐湍水朝宗遠	장단 물은 어여쁘다 바다로 빠지는데
遙望崧山漂渺間	송악산 바라보니 아득하구나.
芳草長程風日暖	방초 우거진 먼 길, 바람과 햇빛 따뜻하고
行吟兀兀跨驢還	나귀 등에 높이 앉아 시 읊고 돌아가노라.

【권 근(1352~1409)】

조선 초기의 학자. 호는 양촌(陽村)이다. 고려 공민왕 때 나이 18세에 병과에 급제하여 춘추검열을 시작으로 여러 벼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고, 성리학과 문장에 조예가 깊어 조선조 건국 초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새 왕조 창업을 칭송하는 글을 짓고, 왕명으로 태조(太祖)의 아버지인 환조(桓祖)의 비문을 지어 후대에 곡필이란 말을 들었다. 저서로는 〈양촌집(陽村集)〉, 〈상대별곡(霜臺別曲)〉 등이 있음.

묘는 충북 생극면 방축리에 있다.

臨津江(임진강)

卞季良

蘆花楓葉暮江濱	찰대꽃 단풍잎은 저무는 강가에서 지고
兩箇扁舟渡水頻	작은 나룻배 두 척이 자주 월강하네.
沙上白鷗誰與狎	모래사장의 백구는 누구랑 친해 보려고
年年愁殺往來人	해마다 오고 가는 나그네의 마음 설레이게 하나.

【변계량(1361~1430)】

조선 초기의 문신. 호는 춘정(春亭)이다. 1385년 문과에 급제하여 전교주부(典校主簿)·비순위정용랑장(備巡衛精勇郎將) 겸 진덕박사(進德博士)가 되었다. 조선 건국과 더불어 천우위중령중랑장(千牛衛中領中郎將) 겸 전의감승(典醫監丞)이 되었으며, 태종 말까지 수문전제학·좌부빈객·예조판서 등을 지냈다. 1420년(세종 2) 집현전이 설치된 뒤 20년간 대제학을 맡아 외교문서를 작성하였고 과거(科舉)의 시관(試官)으로 관리를 뽑는 일에 공정을 기하여 고려 말의 폐단을 개혁하였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정도전(鄭道傳)·권근(權近)으로 이어지는 관인문학가의 대표적 인물로 〈화산별곡(華山別曲)〉, 〈태행태상왕시책문(太行太上王謚冊文)〉을 지어 조선왕조의 건국을 찬양하였다. 저서로 〈춘정집(春亭集) 3권 5책〉이 있다. 〈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과 〈고려사(高麗史)〉 개수(改修)에 참여하였고 낙천정기(樂天亭記), 〈현릉지문(獻陵誌文)〉을 지었다.

묘는 장단군에 있다.

長 淄 渡(장단 나루)

鄭 道 傳

秋水澄澄碧似天
君王暇日御樓船
篙師莫唱長湍曲
此是朝鮮第二年

가을 물은 맑고 맑아 하늘처럼 푸르러
임금이 품을 내어 나룻배 타셨네.
사공아 함부로 장단곡 부르지 마라
여기도 조선나라 둘째 해를 맞이했다네.

【정도전(1337~1398)】

조선 초기의 학자로 개국공신이다. 호는 삼봉(三峰). 이색(李穡)의 문하에 서 정몽주(鄭夢周), 이존오(李存吾) 등과 교유하면서 경사(經史)를 강론하고 문장과 성리학에 능하였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조 건국에 공헌하고 기초를 다지는데 힘썼다. 태조의 명으로 고려사(高麗史) 37권을 편찬하였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저서로 〈삼봉집(三峰集)〉·〈신도가(新都歌)〉 등이 있다.

寓高嶺寺(고령사에 서)

辛 碩 祖

谷轉山圍一逕遙
普光金殿起峩嶃
千年樹老蒼藤合
兩岸溪回白石饒
日暮聲聲雲外落
夜寒鍾影月中搖
義經讀罷天君靜
只有松風送籟簫

골은 꼬불 꼬불 산을 둘러싸고 오솔길은 먼데
보광 금빛 법당이 높이 솟았네.
천년 늙은 나무는 푸른 등나무 모임이요
두 언덕에 시내가 도니 흰 돌이 많구나.
해 저물어 경쇠소리 구름 밖에 떨어지고
밤이 찬데 종 그림자 달빛 속에 흔들리네.
역경을 모두 읽고 마음이 고요한데
오직 솔바람만이 퉁소 소리 보내네.

(註) 高嶺寺 : 지금의 파주시 광탄면 소재 보광사(普光寺)

【신석조(1407~1459)】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로 호는 연빙당(淵冰堂)이다. 1426년 문과에 급제한 후 대사헌, 개성유수 등을 역임하였다. 성품이 온순근엄하였다. 저서로 〈연빙당집(淵冰堂集)〉이 있다.

正因寺(정인사)

徐居正

木魚有響朝岑靜	목탁소리 나니 산중 아침 고요한데
石馬無聲曉寢寒	석마는 말 없으니 새벽 능침 차가워.
株樹鶴啼春寂寂	나무에 뼈꾸기 우니 봄은 적적한데
鼎湖龍去月漫漫	호수에 용이 가니 달은 망망하네.

(註) 正因寺 : 지금의 고양시 벽제에 있는 절

【서거정(1420~1488)】

조선 초기의 학자. 호는 사가정(四佳亭)이다. 양촌 권근의 외손으로 여섯 살에 시를 지어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으며 네 번이나 현과에 합격하였다. 1444년 문과에 급제,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고 성종 때 달성군(達城君)에 봉군되었다. 6대의 임금을 섬기고 6조의 판서를 두루 거쳤다. 대사헌 2번, 조정에 봉사한 연도가 45년, 과거시험관을 23번 지냈다. 저서로 〈사가집(四佳集)〉, 〈동문선(東文選)〉, 〈동국통감(東國通鑑)〉, 〈동인시화(東人詩話)〉 등이 있다.

渡臨津(임진강을 건너며)

姜希孟

一舸渡臨津	외로운 거룻배로 임진강을 건너나니
江花欲暮春	강가의 꽃에 봄이 저물려 하네.
潮回沙有迹	밀물이 칠랑 칠랑 모래에 자국 내고
風細水生鱗	바람이 살랑 살랑 물에 비늘 생기네.

地僻帆檣少	땅이 후미져 뜻대가 적고
人稀鷗鷺馴	사람 드물어 갈매기 길들었네.
徑行曾幾日	이 길을 바로 간 지 그 언제던가.
不覺鬢絲新	어느덧 귀밀머리 희어졌구나.

【강희맹(1424~1483)】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서 호는 사숙재(私淑齋)이다. 23세 때인 1447년(세종 29)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종부시주부(宗府寺主簿)와 이조좌랑(吏曹佐郎)을 거쳐 1455년(단종 3)에는 집현전직제학(集賢殿直提學), 병조 정랑(兵曹正郎)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문장은 당대의 유품이라는 정평을 받았으며, 또 서화에도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그는 정치가로서 수십년간 중앙관청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오례의(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 <동문선(東文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의 편찬사업에도 두루 참여하여 학자로서의 명성을 날렸다. 특히 그의 학문은 농학분야에서 크게 빛을 발하였다. 이미 그의 가문은 증조부인 강시(姜蓍)가 <농상집요(農桑輯要)>를 간행한 바 있었고, 그의 형인 강희안(姜希顏)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훼서적인 <양화소록(養花小錄)>을 저술할 정도로 농학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강희맹도 자연히 농학연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당시 최고의 사찬농서(私撰農書)인 <금양잡록(衿陽雜錄)>을 저술하였던 것이다.

敬 陵(경 릉)

崔 淑 精

笙鶴朝天去不還	생학을 타고 하늘나라 조회갔다 못 돌아왔는데
城西十里卽缑山	성서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곳에 무덤 있네.
煙霞暗鎖松杉路	연기와 노을은 솔과 삼나무 길을 어둡게 하고
雲霧深藏虎豹關	구름과 안개는 호랑이와 표범 굴을 감춰주네.
此日蘋蘩明可薦	이 날 마름과 쑥은 깨끗하여 천거할 만하고
當年弓劍渺難舉	그 당년의 활과 칼은 아득해 휘어잡기 어렵네.
傷心杜宇聲聲苦	슬피 우는 뼈兖새 소리 처량하고

淚洒春風點點班

눈물 봄바람에 뿌리니 점점이 아름지네.

(註) 敬陵：成宗의 생부인 德宗(세조 장자)의陵으로 고양시 벽제에 있다.

宿碧蹄驛(벽제역에서 자면서)

通宵郵吏語囂囂

밤새도록 역참 관리의 말소리 시끄러워

臥榻軟色睡不牢

침상에 기대어 잠 깊이 들지 못하네.

春色暗回溪畔草

시냇가 물빛에 봄은 돌아오고

愁痕工點鬢邊毛

시름 흔적 귀밀에 점하나 찍었네.

未醒宿醉頭猶重

술기운 깨지 못해 머리가 무거운데

默數前程夢亦勞

갈길 생각하면 꿈길도 힘겹구나.

入夜別懷深似海

밤들자 그리움이 바다처럼 밀려와

青燈生焰照征袍

푸른 등 불빛이 나그네 옷 비춘다.

坡州途中(파주길에서)

古國春方好

고국의 봄은 한창 무르익었는데

是子西去時

이는 내가 서쪽으로 떠날 때라네.

東歸春亦老

동쪽으로 돌아오니 봄도 시들해

添我鬢邊絲

내 귀밀머리 희게 하는구나.

【최숙정(1433~1480)】

조선조 성종시대의 문인으로 호는 소요재(逍遙齋). 문과에 급제하고 호당에 들었다. 1461년(세조 7) 진사시에 합격하고, 1462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관(史官)으로 발탁되었다. 1466년 문과중시에 3등, 계속해서 발영시(拔英試)에 2등으로 급제한 뒤 사가독서(賜暇讀書)의 혜택을 입었다. 1470년(성종 1) 형조좌랑·경연시독관에 개수(改授)되면서 춘추관기주관이 되어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의 편수에 참여하고, 1472년 사헌부지평, 이후 예문관교리·경연시독관·경연시강관 등을 역임하고, 1476년 12월에 찬진(撰進)된 《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의 편찬에 예문관부옹교로서 참여하였다. 1477년

예문관직제학 · 춘추관편 수관이 되어, 이듬해 찬진된 《동문선》의 편집에 참여하고, 같은 해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여주목사(驪州牧使)로 파견되었다. 1479년 “두량(斗量)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그 이듬 해 홍문관부제학으로 복직되었다. 일세의 명현이었다는 평판과 높은 시격(詩格)이 있다는 평을 들었다. 저서로는 1813년(순조 13)에 간행된 《소요재집》 2권이 있다.

次明使臨津韻(명나라 사신의 임진강 운을 빌어)

許 琮

鳥影沈雲際	새 그림자 구름 속에 잠기고
潮聲隱海門	물결소리 해문에서 사라지네.
遠風搏野馬	먼 바람은 아지랑이 흔들고
晴日聚河豚	비 개인 맑은 날은 복어를 모으네.
客路山千簇	나그네 길에 산들이 모이는데
離情酒一樽	이별이 셔러워라 한잔 술이여.
隔江凝望處	물끄러미 바라보는 강 건너에
花柳數家村	두셋 술집의 마을이 있네.

【허 종(1434~1494)】

조선 성종 때의 문신. 호는 상우당(尙友堂). 1457년 문과에 급제하여 의영고직장, 선전관 등을 지내고 1462년 정언, 지평을 역임, 이어 1455년 함길도 절도사가 되었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키자 기복하여 다시 함길도 절도사로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우고 적개공신 1등으로 양천군(陽川君)에 봉해졌다. 후에 다시 전라도에서 장영기가 난을 일으키자 전라도 절도사로 나가 이를 평정하고 병조판서로 승진했다. 1481년 호조판서를 거쳐 우찬성, 이조판서 등을 지내고 양천부원군(陽川府院君)에 진봉되었다. 1488년에는 서거정(徐居正), 노사신(盧思慎) 등과 함께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을 국역했으며, 배불론(排佛論)을 주장하고, 세조의 불교신봉을 반대했다. 성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澄波樓記(징파루에서 쓰다)

洪 貴 達

小樓一間兮貯明月
澄波匹練兮含風漪
高臥一生兮無所營
四山爲幄兮青雲衣
吾將謝笏兮歸去來
與君永意兮漢陰機

한 칸 작은 누각에 밝은 달빛 담았구나.
비단같은 맑은 강은 물결을 머금었네.
그대 일생 편안히 누워 하는 일 없구나.
사방 산을 휘장 삼고 푸른 구름 옷을 삼았네.
내 벼슬 버리고 귀거래하리라.
그대와 영원히 세상사에 욕심을 끊고 살리라.

(註) 澄波樓 :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왕정면 임진강변에 있었던 누각

【홍귀달(1438~1504)】

조선 전기의 문신. 호는 허백당(虛白堂)이다. 1460년 강릉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464년 겸예문에 등용하였다. 1467년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웠다. 1469년 장령이 되어 조정의 모든 글을 만들었다. 문명이 높고 성격이 강직했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속국조보감(續國朝寶鑑)』 등을 편찬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 때 간하다가 좌천되었으며, 경기도관찰사를 지냈다. 1504년 손녀를 궁중에 들이라는 왕명을 거역하여 유배도중 교살되었으나 종종반정 후 신원되었다. 저서로 『허백정문집(虛白亭文集)』이 있다.

過昌和地(창화지를 지나며)

成 倪

名參五功籍
輝映雷臺枅
賞賜累鉅萬
金綿賤如泥
潤屋日不暇
牙壽如奉圭
(이하생략)

공신첩에 그 이름 다섯 번 올라
공신각 불빛을 찬란히 비추네.
상으로 받은 것이 수만이라면
비단은 진흙같이 천한 것인가.
가산 늘리기에 여념이 없어
주판일 받들기를 규옥 받들 듯 하네.

(註) 昌和地 : 공신들이 받은 전장(田庄)이 특히 파주군역에 많아, 파주에 살던 성현이 창화지를 지나며 찬란하듯 쓴 시

【성 현(1439~1504)】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인. 호는 허백당(虛白堂). 서거정(徐居正)으로 대표되는 조선 초기의 관각문학(館閣文學)을 계승하면서 민간의 풍속을 읊거나 농민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노래하는 등 새로운 발전을 모색했다. 1462년 (세조 8) 식년문과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각각 3등으로 급제하여 박사가 된 후 홍문관정자를 거쳐 사록(司錄)이 되었다. 그의 작품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 고시(古詩)·율시(律詩)·악부(樂府)·사부(辭賦) 등의 양식을 고루 창작했다. 주제면에서도 사회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관리나 승려 등의 부패와 횡포를 비난하고, 그들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실상을 묘사했다. 우리나라의 풍속을 소재로 한 국속시(國俗詩) 계열의 작품을 썼으며, 명나라 여행 중에 쓴 시를 모아 엮은 〈관광록(觀光錄)〉은 그의 이름을 중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도가적 초월을 지향하는 시를 남기기도 했는데, 자연에서의 즐거움과 한적한 심경이 잘 나타나 있다. 형인 성임(成任)과 성간(成侃) 역시 시를 잘 썼는데, 그 두 사람은 성현의 문학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문장, 시, 그림, 인물, 역사적 사건 등을 다룬 잡록 형식의 글 모음집인 〈용재총화(慵齋叢話)〉를 저술했으며, 장악원의 의궤(儀軌)와 악보를 정리한 〈악학궤범(樂學軌範)〉을 유자광 등과 함께 편찬했다. 문집으로는 〈허백당집(虛白堂集)〉이 전한다. 그가 죽은 뒤 수개월 만에 갑자사화가 일어나 부관참시 당했으나, 뒷날 신원(伸冤)되었고 청백리로 뽑혔다. 저서로는 《허백당집(虛白堂集)》, 《악학궤범(樂學軌範)》, 《용재총화(慵齋叢話)》, 《부휴자담론(浮休子談論)》 등이 있다.

(註) 묘 : 파준 문산 내포리에 있다.

雲溪寺野宿(운계사에서 자며)

南孝溫

西山爽氣客無睡	서산의 찬 기운에 나그네 잠 못들고
落葉填扉不閉門	사립엔 낙엽 쌓여 문도 닫지 못하네.
紙被生寒山雨歇	종이 이를 한기 일고 산비는 멈추나니
滿庭寒月白紛紛	온 뜨락엔 차가운 달 하얀 빛 가득하다.

(註) 雲溪寺 : 파주 감악산에 있던 절로 지금의 법륜사

寄雲溪僧省敏(운계사 승려 성민에게)

杖錫何年此住持
雲溪山水鏡中明
身閒不管塵間事
客至無勞問姓名

어느 해에 석장 짚고 이 절 주지 되셨소
운계사 산과 물과 거울인양 맑은데.
한가한 몸 속세 일은 생각지도 않는지
손님이 와도 번거롭게 이름 물지 않네.

獐山浦(장산포)

繫網獐山浦
移船鳥道峰
晴陰日十變
枕外雨濛濛

장산포에서 그물을 드리우다가
오도봉 향해서 배 저어가네.
하루에도 열 번 쯤 개었다 흐려
부슬 부슬 배개밖에 내리는 비.

(註) 獐山浦 : 파주 임진강에 있었던 포구.

※ 獐은 長으로도 기록됨

坡山九月(파산의 구월)

坡山九月交
洛河波不平
黃雲覆兩岸
萬木消鑠形
坎壠薄暮中
有客心忡忡
黃昏到鴨島
滿江蘆花明

파산에 늦은 가을 구월이 지나가니
낙하의 파도도 물굽이 치는구나.
장가의 양쪽 언덕 황혼 구름 덮였는데
나무들 모조리 이파리 떨어졌네.
해 다진 저녁녘에 험한 길 가노라니
나그네 심사가 몹시도 급하구나.
황혼 무렵 내 사는 암도에 도착하니
잘대 꽂은 온 강 덮고 환하게 피어있네.

(註) 坡山 : 파주목. 지금의 파평지역을 말함

鴨島 : 경기 고양 행주 남쪽 15리에 있었던 섬

紺岳祠, 登眺(감악사에 올라)

宋玉坎壈悲失意
林間驢背賦秋聲
雲溪寺裏聽宵雨
紺岳祠前看晚晴
落日臨津龍吼壯
西風鴨島荻花平
松山百里青無了
禾黍高低愴客情

송옥이 불우하여 뜻 잃음을 슬퍼했듯
숲 지나며 나귀 등에서 추성부 읊는다네.
운제사에선 저녁 무렵 빗소리 들었더니
감악사에 와서는 개인 황혼 보겠도다.
해지는 임진강을 용울음 용장하고
갈바람 부는 압도엔 갈대꽃 넓구나.
송악산은 백리 너머 푸른 빛 그치잖고
높고 낮은 벼와 기장 길손 마음 슬프도다.

(註) 紺岳寺 : 파주 적성 감악산에 있던 사묘로 신라 때 장군 설인귀(薛仁貴)를 신으로 삼아 제사지냈으며, 고려와 조선조는 감악산을 신산(神山)으로 정해 향족을 내려 제사지냈다.

紺岳祠述古(감악사에서 옛일을 읊음)

顯宗南行日
丹馬渡臨津
若不揮旗鼓
吾其左衽人

고려 현종께서 남쪽으로 봉진하시던 날
거란의 군마는 임진강 건넜다네.
만약에 깃발과 북을 휘날리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들도 오랑캐 되었으리.

(註) 고려 현종 5년 거란군이 침입하여 장단까지 이르렀으나, 감악산에 휘날리는 군기를 보고 군사가 많은 것으로 오인하고 진군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음.

長湍客舍, 守歲(장단 객사에서 한 해를 보내며)

守歲他鄉坐不眠
寒燈無焰紙窗穿
客中不見椒花頌
默計明朝三十年

타향 땅 설달 그믐 밤을 새우니
찬 등불은 꺼지고 종이 창 뜯어졌네.
이내 몸 떠도는 신세 아내 소식 모르고
곰곰 생각하니 내 나이 삼십이네.

(註) 長湍 : 현재 임진강 건너 장단군으로 파주 행정구역임.

渡洛河(낙하를 건너며)

洛水溶溶木葉疎
今風蕭颯衿衣初
辭家遠客腸空斷
白首慈顏已倚闌

넘실대는 낙강 물에 나뭇잎 흐르고
가을바람 쌀쌀해 겹옷 걸치네.
집 떠난지 오랜 길손 애가 끓나니
흰 머리 어머님은 대문기대 기다리라.

(註) 洛河 : 임진강의 옛이름

渡洛河 二首(낙하를 건너며)

健婦持鋤菜色新
街頭癟疾不知春
雖然聖澤偏滂沛
馬上時逢耀米人

젊은 아낙 호미들고 봄나물 캐지만
허리 굽은 노인은 봄이 온 줄도 모르네.
그래도 임금님 은혜 천지를 두루 적시어
환곡 받아오는 사람 말위에서 가끔 보네.

洛水東頭驛路斜
坡平太守薦新桂
客中不識春將盡
躊躇新開馬首花

임진강 동쪽 언덕 역마길 굽었는데
파평의 태수께서 새 어채 보내왔네.
나그네 길 몰랐어라 이미 봄이 온 줄을
말머리엔 철쭉 꽃이 새롭게 피었구나.

婦翁思親堂次韻玄山居士(장인 현산거사의 시에 차운함)

紺岳溪山似朝川
勝居幽僻有良田
秋深窓外櫟籬薄
爲饌黃鶴楚竹燃

감악산 산천은 중국의 망천과 흡사하니
사시는 곳 외져도 좋은 밭 있다네.
창밖엔 가을 깊어 울타리도 성진데
닭 잡아 반찬 장만 초죽을 때는구나.

(註) 思親堂 玄山居士 : 남효온의 장인인 윤熏(尹薰). 감악산 북쪽에 남효온의 처가가 있었다.

【남효온(1454~1492)】

조선조의 생육신의 한 사람. 성종때 사람 호는 추강(秋江). 김종직의 문인으로 어려서 사육신의 충성을 보고, 1478년 24세 때 단종 생모인 문종왕후 권씨의 능인 소릉(昭陵)을 복위할 것을 상소하여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스스로 세상을 한탄하며 벼슬의 뜻을 버리고 유랑하다가 32세에 병사하였다. 추강집이 있다.

(註) 학가정(學稼亭) : 경남 의령 칠곡면 도산리

묘 : 고양시 지도읍 대장리 산 47-1

雲溪寺(운계사)

李深源

樹陰濃淡石盤陀
一逕縈廻透澗阿
陣陣暗香通鼻觀
遙知林下有殘花

나무 그늘 짙고 얕은 울퉁불퉁 자갈길
좁은 길 돌아돌아 고개 넘어 가는데.
그윽한 향기가 코를 스치나니
저 숲속 나무 밑에 남은 꽃 한송이 아름다워라.

【이심원(1454~1504)】

조선 성종 때의 문신. 호는 성광(醒狂).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군의 증손으로 주계군(朱溪君)이라고도 한다. 성질이 엄정하고 학문과 의술에도 밝았으며, 학문과 시를 즐겨 과거에 장원하여 성종의 신임을 얻었으나, 임사홍(任士洪) 등 훈구대신과 충돌하여 수 차례 귀양 가는 불운을 겪었다. 그의 귀양지는 장단과 이천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효온과는 절친한 사이로 술과 시로 우정을 나누었다.

洛河渡頭嶺上(낙하도 두령위에서)

朴闇

灘灘長江落日邊
飄飄客袖晚風前

진 강 출렁이고 해는 지는데
나그네 소맷자락 바람 날린다.

山如蟠捲麗平地
帆作雁行來遠天

산들은 개미처럼 땅에 깔리고
돛단배 기러기처럼 하늘 날아든다.

(註) 洛河渡 : 임진강의 옛 이름.

【박 은(1479~1504)】

조선 중기의 학자시인. 호는 읍취현(邑翠軒). 4세 때 책을 읽을 줄 알았으며 15세에는 문장에 능통했다. 당시 대제학이던 신용개(申用漸)가 그를 기특히 여겨 사위로 삼았다. 그의 시는 주로 그가 벼슬에서 파직되었던 23세부터 아내가 죽기 전까지의 것이 남아 있다. 그는 중국 송대에 진사도(陳師道)가 당시(唐詩)의 전통에서 벗어나 기발한 착상과 참신한 표현을 위주로 썼던 기교적인 시를 다시 보여주었기 때문에 해동의 강서파(江西派)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그의 시는 폭넓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움에서 멀어졌다는 점에서 고답적(高踏的)이고 폐쇄적(閉鎖的)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저서로 친구 이행(李行)이 그의 시를 모아 펴낸 <읍취현유고(邑翠軒遺稿)>가 남아 있다.

坡州館次董圭峰韻(파주관에서)

蘇世讓

短景催竹放巒
愁看歸路轉東南
荒城月黑飢鶴吁
古驛燈殘客夢酣
冰塞石溪聞寂寂
風搖松雪落毵毵
忍寒覓句緣何事
歲暮關山思不堪

짧은 해 대나무 채찍 채촉해 말고삐 놓고
귀로에 동남쪽으로 말을 모니.
거친 성곽, 어두운 달 갈까마귀 울고
옛 역사 희미한 등 나그네 꿈 한창이다.
얼음 덮인 바위 속에 시냇물은 고요한데
바람불자 소나무에 눈송이가 펄펄 날아.
추위를 견디는 글 찾아 어이 뮤을 것인가
세밀에 고향생각 감당 못하네.

(註) 坡州館 : 파주읍 주내에 있었던 파주 관아, 현 파주초교 자리

【소세양(1486~1562)】

조선 전기의 문신. 호는 양곡(陽谷). 1509년(중종 4) 식년문과에 급제. 정자·주서·정언 등의 벼슬을 거쳐 수찬으로 있으면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顯德王后)의 복위를 건의하여 현릉(顯陵)에 이장하고, 대묘(大廟)에 위패를 모시도록 했다. 1514년 사가독서(賜暇讀書) 했으며, 이조정랑·교리·직제학을 거쳐 사성이 되었다. 전라도관찰사로 나갔으나 1530년 왜구에 대한 방비를 소홀히 했다 하여 파직되었다가 이듬 해 다시 기용되어 형조판서에 올랐다. 대윤(大尹) 일파의 탄핵으로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명종이 즉위한 후 다시 기용되어 좌찬성을 지냈다. 사직한 뒤에는 익산에 머물면서 여생을 마쳤다. 율시(律詩)에 뛰어났고 송설체(松雪體)의 글씨를 잘 써서 필명이 높았다. 익산 화암서원(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양곡집(陽谷集)〉이 있다.

(註) 묘 : 전북 익산에 있다.

坡山隱居四言詩中(파산에 살며)

成守琛

坡山之下可以休沐	파산 아래 맑은 물은 목욕할만하다
古澗清冷我纓斯濯	산골짜기 맑은 물에 갓끈을 빨고.
飲之食之無喜無憂	먹고 마시니 기쁜 일도 걱정될 일도 없네
懊乎茲山孰從我遊	아, 이 구석진 산에 뉘가 노닐까?

山居雜詠中(산에 살며)

携簡自汲寒溪水	물통 끌고 나가서 시냇물 길어
煎却坡山一味蓼	파산의 인삼을 끓여 마신다.
閑臥竹房無箇事	한가히 누었으니 일이 없는데
山風時動倚床琴	때때로 바람이 와 거문고 줄 만지네.

山居雜詠中(산에 살며)

朝日徵茫翳復明
臥看天末片雲生
須臾遍合翻成雨
萬壑崩湍共一聲

아침 햇살 희미하게 창에 비치니
하늘가에 조각구름 피어 오르고.
온 하늘 뒤덮으며 비가 내리니
산골짜기 무너질 듯 물소리가 요란하구나.

山居雜詠中(산에 살며)

坡平山色暝人衣
坐臥茅簷世慮微
萬事省來閑是樂
探幽時復野人期

파평산 푸른 빛이 옷에 비치니
앉아서나 누워서나 세상 뜻 없네.
천지간에 이 몸이 좋아하는 것 따를 뿐
사람들은 나더러 숨어산다 말하네.

【성수침(1493~1564)】

조선 중종·명종 때의 성리학자. 호는 청송(廳松)·죽우당(竹友堂)·파산청은(坡山淸隱)·우계한민(牛溪閑民). 아버지는 대사헌을 지낸 세순(世純)이다. 아우 수종(守琮)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519년(중종 14) 현량과에 천거되었으나, 곧 기묘사화가 일어나 스승 조광조가 처형되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유학자들이 유배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두문불출했다. 이 때부터 경서를 두루 읽고 태극도(太極圖)를 깊이 연구했다. 또한 <통서(通書)> 이하의 성리학 서적을 모두 모아 연구에 전념했다. 1541년 후릉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552년(명종 7) 내자시주부(內資寺主簿)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그의 문하에서 아들 혼(渾)을 비롯해서 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나 일가를 이루었다. 죽은 후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 물계 세덕사(世德祠)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청송집(廳松集)>이 있으며, 글씨로 <방참판유녕묘갈(方參判有寧墓碣)>이 있다.

(註) 파산서원(파주 파평면 놀노리)

묘 : 파주읍 향양리

黔丹寺 雪景(검단사 설경)

鄭 磨

山逕無人鳥不回
孤村暗淡冷雲堆
院僧踏破琉璃界
江上敲冰汲水來

인적없는 산길에는 새들도 날지 않아
외로운 마을에 찬구름만 쌓아는데.
스님은 얼음길을 조심조심 밟고 나가
강 얼음 얼음 깨고 물길어 오네.

【정 렴(1506~1549)】

조선 중종·명종 때의 학자. 호는 북창(北窓) 1530년 사마시에 급제. 장악원 주부에 추대되어 관상감, 해민서교수를 겸하였다. 포천현감이 되었으나 신병으로 사임하고 광주 청계사, 서울 관악산 등지에서 수양하다 죽었다. 유·도·불(儒·道·佛) 삼교(三教)에 능통하고 천문·지리·의약에 밝았으며 현금(玄琴)에도 고명하였다.

위패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 노봉서원에 있다.

遊紺嶽山(감악산에서 놀다)

成 淣

一溪清瀉兩山中
峽裏丹楓分外紅
更入翠微峯下寺
步臨青峭倚長松

산골짜기 시내를 흐르고
단풍나무 한없이 붉구나.
취미봉 밀의 절로 들어가니
절벽 위에 푸른 솔 불만하다.

(註) 紺嶽(岳)山 : 파주시 적성에 있는 산. 경기 오악(五岳)의 하나

還山道中詠石將軍(파산으로 돌아 오는 도중 석불입상을 읊음)

蒼崖化出石將軍
萬古鎖沈獨有君
却羨無心塵世事

푸른 벼랑이 석장군으로 변했다
온갖 것 다 사라졌는데 그대만 흘로 남아 있구나.
이 세상 일에는 아무 상관 없어

山頭斜日體閑雲

높은 산 꼭대기 구름을 벗삼고 서 있구나.

(註) 石將軍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石佛立像

峒隱(李義健의 별호)이 문병왔기에

思君一見意淒淒

그대 한 번 보고싶은 생각 처절했었네

去入無窮萬象虛

온갖 형상 무궁한 곳으로 돌아 갈거야.

惟想年年山月好

그러나 파산에 달이 남아 있어

清光依舊照牛溪

밝은 빛, 변함없이 우체를 비쳐주리.

(註) 牛溪 : 성흔의 호

파주 파평 늘노리 파산서원 앞을 흐르던 냇물

寄金剛寺 讀書諸生(금강사에서 공부하는 제생에게)

大雨溪長

큰 비에 빗물이 불어서

不可徒涉

건너갈 수 없기에

與諸賢隔絕數日

제현들과 더불어 며칠동안 소식이 막히게 되니

良用深念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比日讀書勤苦

요즈음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가

諸況何似

제군들은 어찌하고 있는지

惡句甚陋

잘못 쓴 글이 있어도

本不可以相贈

글귀는 본래 써서 줄 것이 못되나니

但願各垂和答

제군들의 화답을 보기 위해서다

使我得以觀諸君之志也

나로 하여금 제현들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해주
기 바란다

(註) 金剛寺 : 파주시 파평면 파평산에 있었던 절로 현재의 미타사

還坡山(파산으로 돌아와)

萬疊山間百病身
歸來依舊野情新
君恩欲報知無路
應作他生結草人

만첩 산 속에 병들어 누었던 몸이
산야에 돌아오니 생각이 새롭구나.
임금님 은혜 보답할 길이 없어
나중에 죽어서 결초하는 사람 되겠네.

雲溪寺(운계사)

野外同清賞
來尋鶴洞幽
雙崖開遠峽
一水瀉中流
石磴雲生屐
松廊露濕裘
更期蓮於會
高興社宜秋
深深蘿薜掩雲溪
趺坐寒巖到日西
茶罷更尋方丈宿
石林松月夜淒淒

야외의 맑은 경치 함께 보려고
청학동 깊은 데까지 찾아왔었네.
양쪽 벼랑 먼 골짜기에서 내려왔는데
한 가닥 물은 한복판으로 쏟아져 흐르네.
바위를 밟아 가니 구름이 나막신 밑에서 일어나고
소나무 아래 앉았으니 이슬에 옷이 젓는구나.
다시 연사의 모임을 약속하니
치솟는 흥이 또 가을철에 알맞다오.
깊숙한 등칡이 운계사를 가렸는데
해 저물도록 찬 바위에 앉았었네.
차 한잔 마시고 또 방장에 가서 하룻밤 새우니
솔숲에 달 비쳐도 한 밤이 쓸쓸하구나.

題柳氏溪亭(유씨의 계정에 써주다)

世外雲山好
溪邊草屋新
相逢潭不識
疑是避秦人

세상 밖 산수가 좋은 곳
시냇가에 새 정자 생겼구나.
만나도 서로 알지 못하니
난리 피해 온 사람인 듯.

(註) 柳氏溪亭 :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북쪽 기슭에 있었던 정자

【성 혼(1535~1598)】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호는 우계(牛溪). 10세 때 기묘사화 후 정세가 회복되기 어려움을 깨달은 아버지 성수침(成守琛)을 따라 파주 우계로 옮겨 살았다. 1551년(명종 6) 순천군수 신여량(申汝梁)의 딸과 결혼했다. 같은 해 생원·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병이 나서 복시에는 응하지 않았고, 백인걸(白仁傑)의 문하에 들어가 〈상서(尙書)〉 등을 배웠다. 20세에 한 살 아래의 이이(李珥)와 도의(道義)의 벗이 되었으며, 1568년(선조 1)에는 이황(李滉)을 만났다. 1591년 〈율곡집(栗谷集)〉을 평정(評定)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천에 머무르던 광해군의 부름을 받아 의병장 김궤(金漸)를 돋고 곧 이어 검찰사(檢察使)에 임명되어 개성유수 이정형(李廷馨)과 함께 일했다. 이어 우참찬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594년 일본과의 강화를 주장하던 유성룡(柳成龍)·이정암을 옹호하다가 선조의 노여움을 샀다. 이에 결해소(乞骸疏)를 올리고 이듬 해 파주로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1681년(숙종 7)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여산 죽림서원(竹林書院), 창령 물계서원(勿溪書院), 해주 소현서원(紹賢書院), 함흥 운전서원(雲田書院), 파주 파산서원(坡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우계집(牛溪集)〉·〈주문지결(朱門旨訣)〉·〈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 등이 있다. 파산서원(파평면 놀노리)에 제향되었다.

(註) 묘 : 파주읍 향양리

파산서원 : 파주 파평 놀노리

感君恩四首

李珥

君恩許退返鄉園

임금님 허락받고 시골에 오니

古水荒灣栗谷村

우거진 숲 푸른 강물 율곡촌이네.

一味簞瓢生意足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삶의 뜻 족해

耕田鑿井是君恩

밭 갈고 우물 파니 성은이로세.

君恩許退謝龍樊

임금님 허락받고 규제 벗어나

野逕蕭蕭獨掩門

뜰 안이 쓸쓸하니 혼자 문 닫고.

四壁圖書無外事
草堂晴日是君恩

벽에 가득 쌓아 놀 책 읽는 나날은
초당에 밝은 빛도 성은이로세.

君恩許退老江村
清坐垂綸釣石溫
晚機蘭舟紅蓼岸
渚風汀月是君恩

임금님 허락받고 강촌에 살며
낚시대 드리우고 돌을 덥히네.
날 저문 강 언덕에 조각배 대니
갯바람 어리는 달 성은이로세.

君恩如海報無門
滿腹詩書莫更論
暖日香芋難獻御
一生惟詠感君恩

바다 같은 임금님 은혜 깊을 길 없고
어떤 말 어떤 글로도 전할 길 없네.
향기로운 미나리도 바칠 길 없어
한 평생 임금님 은혜 읊고 살으리.

(註) 栗谷里 : 파주시 파평에 있는 마을 이름. 화석정이 있고 이이선생 선대의 고향. 1572년 병으로 벼슬을 사직하고 율곡리로 돌아 옴

花石亭(화석정)

林亭秋已晚
驛客意無窮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숲속의 정자에는 가을이 저물어 가는데
시인 목책은 뜻이 한이 없네.
먼 강물은 하늘 끝까지 닿아 푸르른데
시단풍은 나날이 단풍들어가네.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벨어 놓고
강물은 바람결에 출렁거리네.
기럭 기럭 기러기는 어디를 향해 가는고?
애닳은 소리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註) 花石亭 :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정자. 이 시는 이이의 8세 때 시임.

서거정, 정철, 천람, 오억령, 이단하, 이기진 등의 화석정 시가 화석정 현판에 걸려있으나 많이 훼손되어 내용 파악이 어려움.

【이 이(1536~1584)】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 호는 율곡(栗谷). 강릉 출생. 사헌부 감찰을 지낸 원수(元秀)의 아들.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 1548년(명종 3) 진사시에 합격하고, 19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다가, 다음 해 하산하여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22세에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고, 다음 해 예안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하였다. 그 해 별시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고, 이 때부터 29세에 응시한 문과 전시(殿試)에 이르기까지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여러 벼슬을 거쳐 한동안 관직에 부임하지 않고 본가가 있는 파주의 율곡리와 처가가 있는 해주의 석담(石潭)을 오가며 교육과 교화사업에 종사하였는데, 그동안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저술하고 해주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건립하여 제자교육에 힘썼으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산적한 현안을 그대로 좌시할 수 없어, 45세 때 대사간의 임명을 받아들여 복관하였다. 48세 때 관직을 버리고 율곡리로 돌아왔으며, 다음 해 서울의 대사동(大寺洞) 집에서 운명하였다. 파주의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고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과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등 전국 20여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율곡전서(栗谷全書)>가 있다.

(註) 자운서원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묘 : 자운서원 경내

廣灘送別李善吉赴京(광란에서 이선길을 보내며)

崔 慶 昌

酌我一杯酒	한잔 술을 따르며
送君千里遊	천리 길 그대 보내네.
離心寄川水	헤어지는 마음 시냇 물에 띄워
日夜向西流	밤낮으로 서쪽 향해 흐르게 하세나.

(註) 广灘 : 파주시 광탄의 지명. 고령산에서 시작하여 임진강에 이르는 냇물을 가리키기도 함.

【최경창(1539~1583)】

조선 중기의 시인. 호는 고죽(孤竹).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 박순(朴淳)의 문인으로서 문장과 학문에 능통하여 울곡 이이(李珥), 구봉(龜峰) 송익필(宋翼弼) 등과 함께 8문장으로 일컬어졌으며 또한 당시(唐詩)에 뛰어난 백광훈(白光勳), 이달(李達)과 함께 3당시인(三唐詩人)으로 불리었다. 시와 글씨에 뛰어났으며 피리를 잘 불어 영암 해변에 살 때 왜구를 만났으나 통소를 구슬피 불자 왜놈들이 향수에 젖어 흘어져 감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서화에도 뛰어났으며 숙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함경도 북평사로 있을 때 사귄 홍낭(紅娘)은 관북인(關北人)으로 홍원(洪原)의 명기로 이름이 났고 그의 절창인 시조 한 수가 오직 청아와 정숙을 담아 주옥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경창이 한역번방곡(漢譯翻方曲)은 격조 높은 쌍벽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註) 두 사람의 묘는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에 있다.

尋崔孤竹坡山莊(최고죽 파산장을 찾음)

李 達

累月抱喫曠 及此喜相尋

여러 달 만나지 못해 기쁨으로 찾았네

田廬樹木下 瓜蔓懸秋林

농가는 나무 아래 있고 오이 덩굴 가을

숲에 걸렸네.

主人固無恙 貧窶不嬰心

주인은 참으로 탈 없이 지낸다며 가난

을 끼리지 않네.

怡然坐庭草 爲我奏鳴琴

즐거운 마음으로 마당 풀밭에 앉아 나

를 위해 거문고를 뜯네.

琴盡卽還別 恨恨恨彌襟

저 거문고 소리 그치면 헤어져야 하니

슬픔과 서러움만 가슴에 가득하여라.

(註) 孤竹坡山莊 : 파주시 월롱면 다락고개에 있었던 최경창의 거소

【이 달(1539~1612)】

조선 중기의 시인, 호는 손곡(蓀谷), 최경창, 백광훈 등과 함께 삼당시인(三唐詩人)이라 일컬어졌다. 한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허균은 이달에게서 시를 배웠고 이달은 박순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고려의 문장가 이첨의 후손으로 부친 이수함(李秀咸)과 홍주 관기사이에서 태어난 서얼(庶孽)이란 신분적 한계 때문에 뛰어난 시적 재능에도 널리 쓰이지 못한 불운한 천재 시인이었다. 저서로 〈손곡집(蓀谷集)〉이 있다.

訪 熊 潭(웅담을 찾아)

成 文 濟

白雲青草雨濛濛	흰 구름 푸른 풀밭에 이슬비 내려
蓬蘽花間峽路通	칡넝쿨 꽃사이에 오솔길이 열리네.
卯酒酣餘殘夢醒	들이킨 술 한잔에 꿈이 아직 깨지 않아
不知身入洞天中	이내 몸 아름다운 경치에 든 줄 알지 못하네.

(註) 熊潭 : 파주 법원읍 웅담리

坡山雪後(파산에 눈 내린 후)

昨日黑雲起	어제는 검은 구름 일더니
繚亂東南飛	어지럽게 얹히더니 동남쪽으로 날고
今朝飄作雪	오늘 아침은 눈이 엎치락 뒤치락 난다.
埋盡釣魚磯	고기잡는 뉘시대를 물가에 드리우고
模糊松柏上	시계가 흐려 소나무와 측백나무 위가 희미하다
風動落霏霏	바람이 불더니 눈이 펄펄 내리고
霽後餘寒發	날씨 개인 후에 추위만 남더니
夕日照柴扉	저녁 햇빛이 사립문에 비친다.

坡州山城炮樓(파주산성 포루)

家頂飛樓俯一州
雅歌尊俎氣油油
軍籌北破天驕膽
眼界西窮地盡頭
青澗井深堪走敵
魚山城峻副分憂
錐囊身世風雲日
會是男兒脫頰秋

어릴 때 누각에 올라 한 고을을 굽어보니
아름다운 노래와 조대는 높고 기운은 편다
군 화살은 북쪽을 깨뜨리고 하늘은 교만하고
눈엔 서쪽이 끌이요 땅은 머리부분이다.
푸르고 맑은 물은 깊어 달아난 적을 감당하고
어산성은 높고 곧 근심으로 나뉜다
송곳주머니 같은 신세 바람과 구름과 태양
이 때 사내 아이가 모이면 턱이 빠진 가을이다.

遊 熊 潭(웅담에서 놀다)

人事幾回換
殘生今獨來
青山留古跡
碧水照荒基
林靄晚來合
巖花春後開
登臨多少意
觸境自餘哀

사람의 일은 어찌 다시 바꾸라
남은 생은 이제 홀로 가는데
청산은 옛 자취를 오래도록 간직한다
푸른 물은 거친 땅을 비추고
숲속 구름은 늦게 와서 합한다.
바위 꽃은 봄 이후에 피우고
산에 오르면 많고 적은 생각들은
그 지경을 자극하니 스스로 슬픔만 남네.

【성문준(1559~1626)】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창랑(滄浪). 좌참찬 혼(渾)의 아들이다. 1585년(선조 18) 사마시에 합격하여 연은전참봉(延恩殿參奉)·세마를 지냈다. 아버지가 무욕(誣辱)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임천(林泉)에서 14년간 은거하였다. 1623년 인조반정 뒤 사포(司圃)를 거쳐, 영동현감을 역임하였다. 박학한 학자로서 글씨도 잘 썼다. 창령의 물계서원(勿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태극변(太極辨)〉·〈홍범의(洪範義)〉·〈창랑집(滄浪集)〉이 있다.

(註) 파산서원 경현단에 모셔졌고 묘는 장단군에 있다

渡臨津(임진강 나루에서)

許筠

雲山迢遙未歸人
鳥帽三年沒馬塵
南去北來秋已晚
不堪殘日渡臨津

구름 너머 아득한 산 이 몸 돌아가지 못해
벼슬살이 삼년은 말발굽 먼지속 지냈네.
남에서 왔다 북으로 가는 새여 가을만 깊었으라
지는 햇살 임진나루 차마 건널 수 없어라.

板門嶺(판문령)

箭括躋攀苦
塵沙損旅顏
逢人非舊識
何處是鄉關
積水兼天盡
孤雲帶雁還
微茫煙靄外
一點義州山

전괄은 오르기 어려워
흙먼지 나그네 초췌하여라.
만나는 사람마다 낯이 설어
어느 곳이 내 고향일까?
물은 하늘과 맞닿았고
외로운 구름 기러기 대리고 오네.
아득히 이내 엉진 저밖에
한 점 의주의 산이 보이네.

【허균(1569~1618)】

조선 중기의 학자·문인·정치가. 호는 교산(蛟山).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에 뛰어난 집안이어서 아버지 협(暉), 두 형인 성(愼)과 봉(封), 그리고 누이인 난설헌(蘭雪軒) 등이 모두 시문으로 이름을 날렸다. 21세에 생원시에 급제하고 26세에 정시(庭試)에 합격하여 승문원 사관(史官)으로 벼슬길에 오른 후 삼척부사공주목사 등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반대자의 탄핵을 받아 파면되거나 유배를 당했다. 그 후 중국사신의 일행으로 뽑혀 중국에 가서 문명을 날리는 한편 새로운 문물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 때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이첨과 결탁하여 폐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의·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국가의 변란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문인으로서 그는 소설작품·한시·문화비평 등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문집에

실려 있는 그의 한시는 많지는 않지만 국내외로부터 품격이 높고 시어가 정교하다는 평을 받는다. 시화(詩話)에 실려있는 그의 문학비평은 당대에는 물론 현재에도 문학에 대한 안목을 인정받고 있다. 그의 작품으로 전하는 〈홍길동전(洪吉童傳)〉은 그의 비판정신과 개혁사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적서차별로 인한 신분적 차별을 비판하면서 탐관오리에 대한 징벌,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구제, 새로운 세계의 건설 등을 제안했다. 〈엄처사전〉·〈손곡산인전〉·〈장신인전〉·〈장생전〉·〈남궁선생전〉 등은 그가 지은 한문 소설인데, 여기서는 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의미있게 살아간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남다른 삶의 모습과 사상을 기술했다.

慧(惠) 音 嶺(해 음령)

金 墉

天眺天磨壯

북쪽에는 천마산이 장엄하고,

南瞻三角雄

남쪽에는 삼각산도 웅장 하도다.

披襟一嶺上

고개 위에 서서 옷깃 풀어 젖히니

快意兩都中

개성과 한양사이 마음이 시원하도다.

(註) 慧(惠) 音嶺 : 고양시 고양동에서 파주시 광탄으로 넘어가는 고개.

고양·파주의 경계에 있음

【김 육(1580~1658)】

조선 중기의 문신·정치가. 호는 잠곡(潛谷). 어려서부터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할 경세(經世)의 뜻을 가졌다. 광해군 때에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가평군 잠곡에 내려가 10년간 농사를 지었다. 이 때 농촌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것에 좌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갈고 닦아 의지력을 기르고 경세의 사상과 신념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김육은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진출하여,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경세이념을 다양한 정책으로 구현하여 추진하였다. 그는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동전(銅錢)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에 지대한 공

현을 하였다. 당시 대동법과 동전 유통을 강력히 추진하는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었다. 대동법은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균등하게 하면서 정부의 세입을 줄이지 않는 점에서,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혁이었다. 그로 인하여 백성의 경제력이 향상하였다. 그가 죽자, 대동법으로 혜택을 받은 충청도 주민들이 슬퍼하여 그의 공덕을 기리는 대동선혜비(大同宣惠碑)를 세웠다. 그 비는 현재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에 있다. 김육은 백성과 나라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경세이념을 중시하여, 경세의 시무책에 유용한 사상을 폭넓게 받아들였다. 그는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구하고, 상업을 촉진할 동전·수레의 보급을 추진하고, 청나라로부터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를 실천하였다. 그런 점에서 김육은 실학의 학풍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유원총보〉, 〈해동명신록〉, 〈잠곡유고〉 등의 저술을 통하여 경세론을 발전시켰다.

(註) 潛谷書院 : 경기도 가평군에 있다.

臨津江(임진강)

吳叔

一棹春風依渡頭	돛대에 봄바람 불어 부두에 의지하니
羈心悄悄自生愁	나그네 마음 괴롭고 외로워라.
當時戰骨如何處	당시 전쟁에서 죽은 백골은 어디 있는지
萬古寒波不盡流	만고에 찬 물결만 흐르는구나.
赤壁祇傳蘇子賦	적벽엔 소동파의 글만 전하고
翠崖猶記謫仙遊	푸른 낭떠러지 신선이 놀다간 흔적만 남아.
臨岐羨爾漁竺客	갈림길 오니 낚시하는 사람 부러워
日向苔磯狎海鷗	지는 해 적벽위에 갈매기와 친하구나.

坡州山城(파주산성)

地勢從今險	지세가 지금부터 험해지는데
臨津昔敗亡	임진강은 옛날에 패망한 곳이라.
將軍背水計	장군은 배수진의 계획을 세우고
士卒築城繼	사병은 성 쌓기 바빠지네.

烽櫓連雲際	봉화 블은 구름에 이어지고
望樓近斗傍	방주는 북극성에 가까워지네.
李陵如報漢	그 이름 한나라에 보답했더라면
不必重關防	관문의 방어 중히 할 필요 없었다네.

【오 속(1592~1634)】

조선 중기의 문인. 호는 천파(天坡). 그의 시는 모두 사율과 절구로서 대부분 기유시(紀遊詩)이며 명나라에 서장관으로 갔을 때 지은 시가 많다. 〈취옹정기(醉翁亭記)〉·〈독장자(讀莊子)〉·〈양생학필해(兩生學筆解)〉 등에 장자(莊子)에서의 인용이 많이 보인다. 문집으로 〈천파집(天坡集)〉이 있다.

(註) 坡州山城 : 파주시 봉서산성.

熊淵泛舟示永叔(웅연에 배 띄우고)

許 穆

山下春江深不流	산밑 봄강은 물깊어 흐르지 않고
綠蘋風動浪花浮	푸른 물 바람에 일어 물결에 꽃잎이 뜬다.
草青沙白汀洲晚	풀 푸르고 모래는 흰데 물가에 해 저물어
捲釣移舟上渡頭	낚시대 걷고 배에 옮겨 나루로 돌아간다.

(註) 熊淵 : 경기도 연천시 왕정면 장파강(임진강) 상류에 있었던 연못

【허 목(1595~1682)】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호는 미수(眉叟).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며, 어머니는 임제(林悌)의 딸이다. 1615년(광해군 7) 정언은(鄭彦愬)에게서 글을 배우고, 1617년 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거창으로 가서 정구(鄭述)의 문인이 되었다. 1624년(인조 2) 경기도 광주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紫峯山)에 들어가 학문에 전념했다. 1636년 병자호란으로 피난하여, 이후 각지를 전전하다가 1646년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천거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했고, 이듬 해 공조좌랑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소를 올려 사임을 청했다. 그 뒤 사복시주부로 옮겼다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660년(현종 1)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제1차 예송이 일어나자 당시 집권 세력인 송시열(宋時烈) 등 서인의 주장한 기년복(基年服 : 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최삼년(齋衰三年)을 주장했다.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도 삼척부 사로 좌천되었다.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鄉約)을 만들어 교화에 힘쓰는 한편, 〈정체전중설(正體傳重說)〉을 지어 삼년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1675년(숙종 1) 덕원에 유배중이던 송시열의 처벌문제를 놓고 강경론을 주장하여 온건론을 편 탁남(濁南)과 대립, 청남(淸南)의 영수가 되었다. 1676년 사임을 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자 성묘를 평계로 고향에 돌아갔다가 대비의 병환 소식을 듣고 예궐했다. 1678년 판증추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79년 강화도에서 투서(投書)의 역변(逆變)이 일어나자 상경하여 영의정 혀적(許積)의 전횡을 비난하는 소를 올리고 귀향했다. 이듬해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당하고 고향에서 저술과 후진교육에 힘썼다. 저서로는 〈동사(東事)〉와 〈미수기언(眉叟記言)〉이, 글씨로는 삼척의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와 그림으로 〈묵죽도(墨竹圖)〉가 전한다.

曉發澄坡渡(새벽에 징파도를 건너며)

鄭斗卿

曉色蒼蒼烟霧深	새벽빛 희뿌연데 안개마저 깊어
澄坡渡口月初沈	징파나루에 달이 꽉 잡기네.
掛帆擊汰中流去	돛을 올려 샷대치며 강물따라 가노라니
兩岸依稀風樹林	강 양쪽으로 아스라한 단풍 숲이 보이네.

泊澄坡渡(징파도에서 자며)

羽化高臺送別難
峽中流水下前灘
孤舟直沂澄坡渡
夜對青山月色寒

우화정 높은 누대에서 송별하기 어려워라
골짜기에 흐르는 물 앞여울로 내려가네.
외로운 배 곧바로 징파도를 거슬러 가
한 밤에 청산을 대하니 달빛이 차다.

【정두경(1580~1658)】

조선 후기의 문인·학자. 호는 동명(東溟). 아버지는 호조좌랑을 지낸 회(晦)이며, 어머니는 광주정씨(光州鄭氏)로 사헌부장령 이주(以周)의 딸이다. 조부에서 증조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저명한 시인이다. 1629년 별시문과에 장원, 부수찬·정언 등을 역임했으나 관직에 오래 있지는 않았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유명한 풍시(諷詩)들을 많이 지었다. 저서로 《동명집(東溟集)》 26권이 전한다.

宿東坡驛(동파역에서 자며)

權 遇

學道功安在
匡時術已疎
十年名利後
一夜夢魂餘
浙瀝窮秋雨
荒涼古驛墟
松燈寒照壁
逐客意如何

도를 둑는 그 공은 어디인가
세상 바로잡기 힘들구나
십년 명리도
하룻밤 꿈이었네.
가을비 부슬 부슬 내려
옛 역터 쓸쓸한데
소나무 가지에 걸린 등불이여
쫓기는 나그네 심정 어떠하리.

【권 우(1610~ ?)】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동곡(東谷). 1629년 문과에 급제. 봉교(奉教)를 거

쳐 춘추관편수관으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53년 사인(舍人), 승지, 함경도관찰사 등을 지내고 1685년 살인죄로 유배되었다가 죽었다.

來蘇亭 八景詩(내소정 팔경시)

南龍翼

花石亭春(화석정의 봄)

花石亭前花事新
獨來吟賞有閒人
幽芳舉世無相識
可惜先生去後春

화석정 앞뜰에는 꽃이 피어 새로운데
쓸쓸한 나그네 홀로 와서 시를 읊네.
세상에 그윽한 높은 향기 서로 알지 못했으니
애석하다 선생님 가신 뒤에야 새로 알았네.

場岩垂釣(장암의 낚시)

垂釣春灣百尺臺
得魚將愁沽深盃
傍人不解吾心事
漫道桐江物色來

봄날 강어귀 높은 데에 낚시대 드려놓고
고기를 잡으면 큰 술잔 사려고 하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심사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로 동강에서 색다른 물건이 온다하네.

松巖清雲(송암의 맑은 구름)

何處炎雲點點浮
遠山如畫恰盈頭
橫遮望眼知多意
怨惹騷人弔古愁

여기저기 뭉개구름 점점이 떠 있는데
먼 산은 그림같이 아름답게 솟구치네.
곁눈으로 바라보니 사연도 많은 듯 한데
큰심많은 사람 엣수심지어 죽지 않을까 의심나네.

長浦細雨(장포의 가랑비)

長浦細雨晴霏霏
白露橫分草色飛
漁子不愁風浪起
依船遙喚綠蓑衣

장포에 가랑비 개었다가 눈이 펄펄 날리고
백로들은 가로질러 벌판 위로 날아가네.
어부는 풍랑이 일어나도 은심하지 아니하고
뱃전에서 우장옷 내오라고 소리치네.

東坡古驛 月當樓(동파 옛역의 월당루)

東坡古驛月當樓
處處人家看上鉤
一點圭星看不遠
令宵應人廣漢遊

동파 옛역 마루에 달이 비쳐 명랑하니
이곳 저곳 인가에는 발을 걸어 올리누나.
하나의 큰 별만이 멀지 않게 보이는데
오늘밤 맞이하여 광한놀이 하여보세.

赤壁船遊(적벽의 배놀이)

赤壁磯頭更浮舟
蘇山去後尚風遊
波殘月白皆良夜
不必黃岡壬戌秋

적벽에 들러싸인 강에 다시 배를 띄우니
소동파가 간 뒤에도 풍류는 여전하네.
파도는 잔잔하고 명랑한 달밤 모두 좋으니
황강땅 임슬지추만은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

桐園雪(동원의 눈)

桐園暮雪白皚皚
望裏平坡齊色開
入夜江扉終不掩
刻溪疑有子猶來

동원에 날이 저물어 흰눈은 환히 비치는데
평평한 언덕을 바라보니 구름없이 개었구나.
밤이 와도 강가에 있는 집 쌔리문이 열렸으니
아마도 섬계땅의 왕유 오기를 바람이리라.

津寺曉鍾(진사의 새벽종소리)

津頭寺隔百雪層
半夜島鍾有老僧
不是姑蘇城外泊
寒天落天又漁燈

나루 위에 높은 절은 백운의 층계에 가렸으며
한밤중에 종이 울리니 노승이 있는 것이리라.
고소성 밖에서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건만
찬하늘에서 달이 지니 어등 또한 비치누나.

(註) 蘇來亭 : 임진강변에 있었던 정자

【남용익(1628~1692)】

조선 중기의 문신. 호는 호곡(壺谷). 아버지는 부사 득봉(得朋)이다. 1646년 (인조 24) 진사가 되고, 1648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설서·병조좌랑·

홍문관부수찬 등을 지냈다. 1655년(효종 6) 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 와 사가독서(賜暇讀書)했다. 1656년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좌참찬·예문관제학 등을 지냈다. 1683년(숙종 9) 예조판서, 1687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지낸 뒤 이조판서가 되었다. 1689년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하자, 서인이 이를 반대하다가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기사환국으로 명천에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자신의 시문집인 〈호곡집(壘谷集)〉과 신라시대부터 조선 인조대까지의 명인 497인의 시를 모아 엮은 〈기아(箕雅)〉와 〈부상록(扶桑錄)〉이 있다. 글씨로는 〈예판남선비(禮判南銑碑)〉·〈도검제남은표(都檢制南閭表)〉가 있다.

(註) 來蘇亭 : 임진강변에 있었던 정자

自麻田向洛道中口占(마전에서 낙도를 가며)

趙顯期

公館淹留歲月序	공관에 머물러 있노라면 세월이 흐르나니
重陽過後向神州	중양절 지난 후에 한양으로 향한다.
孤舟客渡清江曉	외로운 배로 나그네는 새벽 맑은 강을 건너는데
十里楓酣赤壁秋	십리의 단풍숲은 적벽의 가을에 취해 붉구나.
盈野黃雲禾大熟	들 가득 누런 구름처럼 벼이삭이 익는데
上峰初日霧全收	산봉우리 오른 해에 안개가 싹 걷히네.
前程最有佳期在	앞길에 아름다운 기약이 있으리니
一笑題詩齋月樓	한 번 웃고 제월루에서 시를 짓노라.

(註) 麻田 : 임진강 상류 연천지역의 지명

【조현기(1634~1685)】

조선 후기의 문신. 호는 일봉(一峰). 진사시에 합격한 뒤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74년(효종 5) 청의 운남성에 반란이 일어나자 병자호란의 복수를 상소하였다. 1676년(숙종 2) 의금부도사를 지내고 온양과 서산군수를 거쳐 인천부사에까지 올랐다. 저서로 〈일봉집(一峰集)〉이 있다.

天壽院用古人韻(천수원에서 고인의 음을 빌려)

金 萬 重

故國秋深霜葉飛 고향의 가을은 깊어 낙엽 흘날리고
山川滿目市朝非 산천은 눈에 가득하나 옛 모습 아니구나.
傷心天壽門前水 천수원 문 앞을 흐르는 물에 마음 아파
流盡繁事去不歸 옛일은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註) 天壽院 : 장단 남쪽 임진강가에 있었던 원(院).

【김만중(1637~1692)】

조선 후기의 문신·문학가. 호는 서포(西浦). 학문과 문장에 능하고 벼슬이 대제학·판서에 이르렀다.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책을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갖은 책을 구해서 읽어주고 어머니 곁을 떠나는 일 이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는 소설 〈구운몽(九雲夢)〉과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서포만필(西浦漫筆)〉이 있다.

祖 江(조 강)

申 綜 翰

祖江一名三岐河 조강은 일명 삼기하라고 하니
是爲三江合滄波 세 강이 바다로 함께 가기 때문.
南通湖海西樂浪 남으로는 호해, 서로는 평양으로 통해
舳艤相屬如飛梭 잇단 배들이 베틀의 복과 같구나.

(註) 祖江 : 한강·임진강이 파주 오두산에서 만나 서해에 이르는 통진 북쪽
에서 祖江으로 합하므로 三岐河, 三渡品이라 했음.

※ 조강의 주막에서 일몰을 보며 주막집 노인과 신세한탄을 하며 읊은 시

【신유한(1681~1752)】

조선 중기의 문신·문장가. 호는 청천(靑泉). 1713년 중광문과에 급제했다. 가계가 서류(庶流)였으므로 벼슬은 봉상시첨정에 머물렀다. 1719년 일본에 통신사의 일원으로 다녀와 〈해유록(海遊錄)〉을 지었다. 그 때 그의 시를 받기 위해 일본의 문사들이 모여 들었으며 대단한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해유록〉은 문장이 유려하고 섬세한 관찰이 돋보이는 기행문으로, 박지원의 중국 기행문인 〈열하일기(熱河日記)〉와 비교되곤 한다. 이밖에 시문집으로 〈청천집(靑泉集)〉을 남겼다.

板門店戲吟(판문점에서)

申 緯

驢背遙山翠黛蠻
澹烟秋景似新春
那知混跡漁農日
也有旗亭物色人

나귀등 아득한 산 검푸른 눈썹처럼 아물거리고
자욱히 안개 친 가을 경치, 마치 새봄 같구나.
어찌 알았으리오 고기잡이 농사에 둘혀 사는 날
또한 깃발 정자에 날 찾는 이 있었던 일을.

(註) 板門店 : 장단에 있는 지명. 지금 판문점이 있는 지역은 널무리(板門)라
불렀음.

七松亭賞春(一) (칠송정의 봄)

杖底三峰翠拂空
暮煙如海戲群鴻
樓臺滿地蒸花柳
紅綠模糊一氣中

지팡이 아래 세 봉우리, 푸르게 공중 쓸고
바다 같은 자욱한 봄안개, 기러기를 희롱한다.
땅에 가득한 누각에서, 꽃버들 찌는 듯 한데
붉고 푸른 것이 한기운 속에 어울려 흐릿하다.

七松亭賞春(二) (칠송정의 봄)

紅葉樓中翰墨因
于今三十六回春

단풍잎 속, 누대 안에서 글하는 인연
이제 삼십육년째 맞는 봄날이구나.

誰知倚仗徘徊客 뉘 알리, 지팡이 짚고 배회하는 길손
曾是憑欄票紗人 예전엔 난간에 기대어 표묘하던 사람인 것을.

(註) 七松亭 : 파주 탄현면 갈현리에 있었던 정자. 백강 이경여(1585~1657)가 낙향하여 학문과 시문으로 여생을 보낸 곳.(칠송정은 광주 직할시 광산에도 있었으나 어느 정자인지는 불확실함)

【신 위(1769~1845)】

조선 후기의 문신·서예가·화가. 호는 자하(紫霞). 19세기 전반에 시(詩)·서(書)·화(畫)의 삼절(三絕)로 유명했던 문인이며, 시에 있어서는 김택영이 조선 제일의 대가라고 칭할 만큼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었다. 1799년(정조 23)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10여 년간 한직(閑職)에 머물거나 파자·복직을 되풀이 하는 등 기복이 많았다. 그 후 이조참판·병조 참판을 지냈다. 당시 국내외의 저명한 예술가학자와 폭넓은 교유를 했다. 1812년(순조 12) 중국에 가서 옹방강(翁方綱)을 비롯한 그곳의 학자들을 만나고 돌아 온 이후 그 전에 쓴 자신의 시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인과 그 작품을 칠언절구의 형식으로 논평한 일종의 논시시(論詩詩) 〈동인논시절구(東人論詩絕句)〉, 시조를 한역한 〈소악부(小樂府)〉, 그리고 판소리 연행을 한시화한 〈관극절구(觀劇絕句)〉 등의 작품이 유명하다. 이외에도 중국 신운설(神韻說)의 대표적인 인물인 왕사정(王士禎)의 〈추류시(秋柳詩)〉를 본 떠 지은 〈후추류시(後秋柳詩)〉, 신분제도·화폐개혁 등 현실문제를 다룬 〈잡서(雜書)〉 등이 있다. 그의 시는 전(前) 시대에 활약했던 이서구(李書九) 등의 시풍을 계승하면서 한말 4대가인 강위·황현·이건창·김택영 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집으로 시 4,000여 수를 수록한 〈警修堂集〉(16책 85권)이 전한다. 당시(唐詩) 가운데 화의(畫意)가 풍부한 작품만을 뽑아 편집한 〈당시화의(唐詩畫意)〉가 있으며, 그밖에 김택영이 중국에서 간행한 〈신자하시집(申紫霞詩集)〉(2책)이 있다.

臨津江 花石亭 敬次栗谷先生八歲詩
(임진강 화석정에서 율곡선생 팔세시를 그리며)

金允植

吾道滄州在	이 나라 정치·경제 우뚝한 곳
登臨意不窮	화석정 오르니 생각이 무궁하여라.
老杉山徑暗	삼나무 우거진 길 어둡고
斜日海門紅	해당화 눈부신 저녁 노을.
緬想樓遲躅	끌없이 상쾌한 기풍 사모하노니
長回灑落風	선생의 발자취 추앙하여.
君民堯舜志	요순시대 역력한 뜻을
寂莫此山中	적막속에 기약하도다.

【김윤식(1835~1922)】

조선 말의 관료·문장가. 호는 운양(雲養). 고종의 음관(蔭官)으로 벼슬에 올라 1874년 문과에 급제하고 순천부사·황해도 암행어사를 지냈고, 파주 봉서산 아래 유신환에게 사사함.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김홍집 내각의 외부대신이 되어 개혁정치를 힘쓰다가 친일파로 몰려 10년 귀양살이를 하고, 1910년 한일 합방 조인에 가담하였으나, 1919년 3·1운동에 가담하여 동포들의 신망을 얻었다. 저서로 〈운양집(雲養集)〉, 〈천진담초〉 등 문집이 있다.

朝渡臨津(아침에 임진강을 건너다)

金澤榮

娟娟秋風起天末	솔솔 부는 가을바람 하늘 끝에서 일어나는데
脩脩鴻雁適何方	씽씽 나는 저 기러기 어디로 향해 가나.
朝辭漢府鶴聲裏	아침 새벽 닭소리에 서울을 떠나
夕宿臨江蟹簖傍	저녁에는 게잡이 그물 친 임진강가에서 잤네.
渡口楓林升曉日	나루터 단풍숲 사이로 밝은 해가 떠 오르니
舟人篷笠捲新霜	뱃사람은 새 서리가 내린 대거적을 걸네.
是非成敗皆泡沫	시비나 성패는 모두 물거품 같은 것
看取沙邊古戰場	모랫가 옛 싸움터를 돌아 본다.

【김택영(1850~1927)】

조선 말기의 학자. 호는 창강(滄江). 개성(開城) 출생. 소년시절부터 고문(古文)과 한시(漢詩)를 공부하여 시문에 능하였다. 42세 때 성균진사(成均進士)가 되었고, 1894년(고종 31) 김홍집(金弘集) 내각의 편사국주사(編史局主事)로 기용되어 주로 역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역사집략(歷史輯略)>, 박지원의 문집인 <연암집(燕巖集)>이 있다.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에 비분하여 중국으로 망명, 중국 양쯔강 하류 난통에서 생활하면서 창작활동 및 한문학(漢文學)에 대한 정리 평가와 역사 서술에 힘썼다. 한문학사의 종막을 장식하는 대가로서 그의 시는 호방하고 화려하며 신운(神韻)을 중시하는 경향을 띠었으며, 중국 망명 이후에는 주로 우국적(憂國的)인 시작품을 많이 썼다. <문안중근보국수사(聞安重根報國讐事)>가 유명하고 시문집으로 편집하여 간행한 <창강고(滄江稿)>와 <소호당집(韶護堂集)>이 있다.

伴鷗亭詩(반구정 시)

黃爾明

一區清絕伴鷗亭	사방이 맑고 깨끗한 반구정은
我祖當年此構成	우리 할아버지가 건립하셨네.
寂寞孱孫無傷繼	미약한 후손이 잘 보존치 못하여
任他荒廢不勝情	황폐한 채 버려두어 마음이 서글퍼라.

伴鷗亭詩(반구정 시)

黃爾章

占得江臯一小亭	강언덕에 조그만 정자 마련해
晚來休退趁功成	노년에 거닐었으니 공명이론 후자네.
荒涼往事無人間	쓸쓸해라, 지난일 물는 이 없어
獨伴沙禽愴古情	혼자서 갈매기 더불어 옛정만 서글퍼라.

(註) 伴鷗亭 : 파주시 문산 사목리에 있는 정자. 황희(1362~1452)

정승이 퇴관 후 시문을 짓고 여생을 보내던 곳

위 시 외에 심세준, 송사원, 유진구, 박구서, 황의각 등의 〈반구정〉 漢詩가 있으나 본론에서는 신지 않았음.

臨津曉行(임진강을 건너며)

林俊元

夜宿坡平驛	밤에는 파평역에서 자고
侵晨復遠征	이른 새벽에 또 멀리 떠난다.
雲霏山路暗	구름이 날아 산길 어둡고
燈火水村明	등불을 켜 강마을이 밝아라.
立馬星初落	말을 세우자 별이 막 떨어지고
撐船潮欲生	배를 저으니 물결이 이네.
漁樵有夙計	일찍이 어초의 계획 있었거니
衰白又茲行	늙고 병들어 느린 걸음이다.

【임준원(생물년 미상)】

호는 서현(西軒). 전북 옥구 사람. 의기(義氣)가 대단함.

交河落花津女(교하 낙하진 여인)

王氏女

昨宿開花山下家	간밤에는 꽃이 핀 집에서 잤는데
今朝又涉洛花波	오늘 아침 또 꽃 떠가는 강을 건너네.
春光却似人來去	봄은 사람의 오고 감과 같은 것
纔見開花又落花	겨우 피는 꽃 보았는데 또 지는 꽃을 보네.

(註) ① 交河 : 파주의 지명

② 落花津 : 임진강 낙하리 인근의 포구. 花는 河의 오기인 듯

【왕씨녀(?)】

파주에 살았던 여인인 듯

坡州관련 漢詩 일람표

作 者	漢 詩	關 聯 遺 蹟	備 考
1075~1151 고려 조선 조선 1352~1409 조선 조선 1433~1482 조선 조선 1454~1492 1454~1504 1479~1504 1486~1562 1493~1564 1506~1549	김부식 이인로 이규보 중 기 임 춘 1287~1367 1287~1348 후 기 후 기 후 기 권 근 정도전 변계량 1407~1459 1420~1488 1424~1483 1433~1482 1434~1494 1438~1504 1439~1504 1454~1492 이심원 박 은 소세양 성수침 정 렘	임진강에서 천수원 벽에 쓰다 임진강 감악산 장단을 지나며 장단석벽 장파도를 지나며 저녁 때 임진강을 건너며 승 혜문 백원항 장단에서 서울로 가며 장단나루 임진강 고령사에서 서거정 정인사 임진강을 건너며 최숙정 명사신의 임진강 운을 빌어 장파루에서 쓰다 창화지를 지나며 운계사에서 자며 운계사 승려 승민에게 장산포 파산의 구월 감악사에 올라 감악사에서 옛일을 읊음 장단 객사에서 한해를 보내며 낙하를 건너며(3수) 장인 현산거사의 시에 차운함 운계사 낙하도 두령위에서 파주관에서 파산에 살며 산에 살며 3수 검단사 설경	장단 남쪽 임진강가 에 있었음 묘 : 강화 길상면 길직리 장단 남쪽에 있었음 장단 : 임진강-한강이 합해 서해로 가는 삼도품 장단도 : 임진강의 옛이름 묘 : 장단 고령사 : 현 보광사 정인사 : 고양 벽제 소재 경릉 : 고양 벽제 세조 장남의 묘 경릉 : 고양 벽제 세조 장남의 묘 운계사 : 현 감악산 법륜사 감악사 : 감악산 북쪽에 있었음 낙하 : 임진강의 옛이름 낙하도 : 임진강 옛이름 파주읍의 옛터 파주 탄현면 소재

		作者	漢 詩	關 聯 遺 蹤	備 考
조선조	1535~1598	성 혼	감악산에서 놀다 파산으로 돌아오는 도중 석불입상을 옮음 嘲憲이 문병왔기에 금강사에서 공부하는 제생에게 파산으로 돌아와 운계사 유씨의 계정에 써주다	석장군 : 파주 광탄 석불입상 금강사 : 현 파평산 미타사 운계사 : 현 감악산 법륜사 운씨계정 : 감악산 북쪽 화석정 : 현 파평 올곡리	
	1536~1584	이 이	감군은 4수 화석정		
	1539~1583	최경창	광탄에서 이선길을 보내며		
	1559~1612	이 달	최고죽 파산장을 찾음	파주 월롱 다향고개	
	1559~1626	성문준	옹담을 찾아 파산에 눈 내린후 파주산성 포루 옹담에서 놀다	옹담 : 파주 법원읍 옹담리 파주산성 : 봉서산에 있었음	
	1569~1618	허 균	임진강 나루에서 판문령		
	1580~1658	김 육	혜음령	고양리에서 광탄가는 고개	
	1592~1634	오 숙	임진강 파주산성		
	1595~1682	허 목	웅연에 배 띠우고	웅연 : 연천 왕정면	
	1597~1673	정두경	새벽에 징파도를 건너며 징파도에서 자며		
조선조	1610~ ?	권 우	동파역에서 자며	동파역 : 임진나루전너 장단남쪽	
	1628~1692	남용익	내소정 8경시	내소정 : 임진강변에 있던 정자	
	1634~1685	조현기	마전에서 낙도를 가며		
	1637~1692	김만중	천수원에서 고인의 운을 빌어		
	1681~1752	신유한	조강		
	1769~1845	신 위	판문점에서 칠송정의 봄 2수	칠송정 : 탄현 법흥리	
	1835~1922	김운식	임진강 화석정		
	1850~1927	김택영	아침에 임진강을 건너다		
	?	황이명 황이장	반구정	반구정 : 문산읍 사목리	
	?	임준원	임진강을 건너며		
	?	왕씨녀	교하 낙하진 여인		

3. 결 론

이상과 같이 본론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 1) 시대별로는 고려 말에서 조선조 말까지 망라되었으나, 특히 조선중기에 많은 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는 조광조(1482~1519) 등 개혁적 신진세력들이 실패한 후, 그를 따르던 성수침, 백인걸, 김안국 등이 파주의 산림에 우거하며,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던 시기와 일치하며, 이이, 성흔 등 파주의 성리학자들이 기호학파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나라의 높은 관직과 학문을 통한 영향력이 커진 시기였다.
- 2) 작자별 시 편수는 남효온 11수, 성흔 8수, 이이 5수(감군은 4수는 같은 제목), 성수침 4수, 성문준 4수, 최숙정 3수, 기타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생육신인 남효온의 시편이 가장 많은 것은 그가 1478년 소릉(昭陵 : 단종의 생모인 문종왕비의陵) 복위를 주장하다 광인으로 지목받자 벼슬을 단념하고, 고양 행주 남쪽 15리쯤에 있었던 암도(鴨島)라는 섬에서 기거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거리상으로 가까웠던 개성을 유람하며 파주를 자주 거쳐갔던 것 같다. 또 하나의 연유는 남효온의 처가가 감악산 북편 마을에 있었는데, 장인인 윤훈(尹壚)은 남효온을 많이 사랑하여 자주 불러 위로했던 것 같다. 그래서 감악산에 대한 시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성수침, 성흔, 성문준 일가 3대의 시편은 그들이 파주에 끼친 학문과 시문의 영향이 그만큼 지대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이이 선생의 시문도 그 수에 있어 누구 못지않으나, 그 내용에 있어 우국시, 교유시(交遊詩), 금강산 기행시 등 도학적, 교훈적인 시편이 많아 본론에서는 다수 제외되었음을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 최숙정은 성종시대 사람으로 고양 벽제에 있는 경릉(敬陵 : 성종의 생부인 덕종(세조 장자)의 능을 참배하러 왔다가 쓴 시가 3편 있는데, 그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로 알려지고 있다.
- 3) 시의 주제(내용) 별로는 임진강(제목은 다소 다르지만) 22수, 감악산(감악사, 운계사 포함) 8수로 가장 많고, 특히 임진강을 중심으로 한 정자,

원(院), 포구, 역참 등 거의 대부분이 임진강과 감악산을 주제로 한 시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고장 파주에 우리의 한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려와 조선조의 양도(兩都)인 개성과 한양의 정치적, 외교적·학문적·문화적 영향권에 있었고, 지리적으로 중국과의 왕래에 있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교통의 요지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겠다.

임진강, 감악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 민족정신의 표상이며, 파주문화의 모태(母胎)이며 ^{수결임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입증되었다.

(필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한시」 김달진
- 「고전한시」
- 「남효온의 생애와 시」 김성언
- 「율곡선생의 시문학」 정항교
- 「기타 한시관련 책자」
- 「파주군지」
- 「한시기행」 심경호
- 「우계학보」
- 「파산서원지」
- 「파산세고」
- 「자운서원지」
- 「양곡집」

옛 義州路, 燕行路程에 관하여

성희모*

1. 들어가는 말	3) 파주구간
1) 의주로 길의 의의	3) 압록강에서 열하까지
2) 의주로의 행로	1) 연행코스
3) 연행록	2) 청나라 황제들
2. 한양에서 임진나루까지	3) 연행길에 만나는 글
1) 한양구간	4. 맷는말
2) 고양구간	

1. 들어가는 말

1) 의주로 길의 의의

우리 파주는 많은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안고 있는 보고의 땅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문화재와 유적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두 연관이 되는 곳이 바로 파주이기 때문이다. 특이한 역사를 안고 살아야했던 우리민족의 애환과 우리 역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옛 의주로 길의 구간과 연행노정, 연행길에 만나는 글을 살펴 보면서 우리가 걸어온 역사와 이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 한다.

길은 인류와 함께 있어온 전유물이다. 아니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길은 사람이 오가고 문화와 문명의 교류와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길이란 첫째, 遙나 牛馬 사람 등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의 일정한 넓이로 뻗은 땅위

* 파주향토문화연구소 간사

의 선을 말하며, 둘째, 사람으로서 의당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나 義理, 셋째, 方法 또는 手段, 넷째, 방면 또는 專門分野, 다섯째, 發展이나 活動의 方向등의 의미를 가진 말로 정의하고 있다.

- ① 국어사전의 첫 번째 풀이는 길을 하나의 인공 시설물로 보는 견해이다. 한자에는 경(徑), 전(畛), 도(涂), 도(道), 로(路)등 길을 나타내는 문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다. 경(徑)은 우마가 다닐 수 있는 오솔길이고, 전(畛)은 큰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소로이며, 도(涂)는 승차(乘車) 한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 도(道)는 승차 두 대, 로(路)는 승차 세 대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라고 하였다.
- ② 국어사전의 두 번째 정의는 당위적 행위의 규범, 즉 한자의 도(道)와 비슷하다. 도는 철학적 개념에서 실제 행위의 도구화를 의미하는바, 인간의 신체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기관—즉 머리와 인간이 움직이는 행동을 나타내는 지(之)자가 결합된 문자이다. 다른 한편으로 수(首)는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 등을 의미하므로, 도(道)란 지도자가 무리를 이끌고 서서히 움직이는 방향의 뜻도 가지고 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지방 행정기관 중에 가장 상급에 속하는 것을 道라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수도로부터 각 지방으로 뻗는 길을 道라 부른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도 보다 넓은 개념인 路는 보행자들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였다. 중앙에서 각 지방으로 뻗는 도로에는 路자를 붙였다.

도로에는 우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쉬어가던 역원제가 있었다. 역원제가 국가적으로 실시되던 고구려시대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려시대에는 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데, 그러다가 조선 중종대에 역원제가 정비되면서 그 모습이 완전히 갖추어졌다. 그중 여느 길과 다른 역할을 하였던 곳이 의주로 인데, 조선시대 9대 간선로(幹線路) 중 가장 중요한 도로의 하나였으며, 신의주까지 총 연장 약 1,080리의 교통 통신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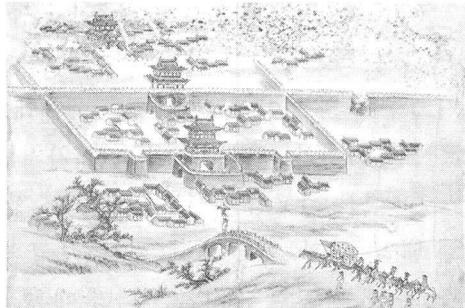
행정구역상 의주로는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에 걸쳐있었으며, 26개의 驛이 있었고, 양국 사신들을 위한 휴식처와 숙박소로서 모두 25개의 館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신들의 왕래는 부수적으로 국제무역이라 할 수 있는 상업활동을 수반하였으며, 사신의 행렬은 15일 정도 걸렸다. 공문서의 전달은 3급의 문서가 4~6일정도 걸렸다. 파발제도(擺撥制度)에서 서발에만 파발을 두었는

데,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때 중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하였는가도 알 수 있다.

도로에는 5리마다 정자, 10리마다 소후, 30리마다 대후, 유류(榆柳)를 두어 里數와 지명을 기입하였고 휴식처로서 여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교통 통신의 기능을 지녔던 의주로는 지방 통치상, 중국과의 관계상, 국방상의 문제 등으로 경제적 기능보다, 정치 군사적 기능이 더 강하였던 도로였다.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대외적인 안정과 국내에서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슨 일이던 중국의 지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런 문제등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사신들이 오가던 정치적인 역할과 문물이 오가던 통로 구실을 하던 곳이었다.¹⁾

조선에서 중국으로 연행하는 사신들은 원래 황해도 풍천이나, 평안도 선천에서 산동성의 등주로를 통하여 북경에 들어갔다. 海路는 나당교류를 통하여 일찍이 개척된 동아시아의 활발한 교역로였다. 그러다가 15세기 이후부터 육로로 바뀌어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 산해관을 거쳐 북경을 가는 길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름 지어진 길을 조천(朝天)과 연행(燕行)이라는 명목하에 오간 사신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 꺼리와 사연들이 곳곳에 남아 있을까.

2005년은 광복 60주년과 연행록의 대표작을 남긴 박지원, 박제가 서거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연행길을 한양에서 파주까지, 압록강에서 북경을 거쳐 열하까지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파주에서 의주대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연행도(승실대박물관 소장)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의주로의 행로(창덕궁에서 임진나루까지)

서울 창덕궁에서 파주의 동파역까지 옛의주로 행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돈의문(敦義門, 서대문)-경기감영(畿營)-연지(서연지, 西蓮池)-모화관(慕華館)-영은문(迎恩門)-무악재(母岳峴)-홍제원(洪濟院)-서석계다리(洪濟橋)-병전거리(餅塗距離)-녹번현(綠幡峴. 산골고개)-양철평(梁鐵平)-연신내(延昇川)-관기(館基)-갈현(葛峴)-박석현(薄石峴)-검암참(黔巖站)-비석거리-덕수천(德水川. 창릉천)-여현(礪峴. 수돌고개)-장풀-신원(新院)-신원천(곡릉천)-망객현(望客峴)-고양(高陽)-벽제역(碧蹄驛)-혜음령(惠陰嶺)-혜음원사지(惠陰院射止)-세류점(細柳店. 진대마을)-쌍불현(雙佛峴)-분수원(焚修院)-윤관장군묘-신점(新店)-광탄천(廣灘川)-가좌미고개-대추벌-파주(坡州. 파평현)-서낭당고개(개미고개)-서작포(향양리)-선유리(梨川)-율곡리(栗谷里)-화석정(花石亭)-임진나루(臨津渡)-동파역(東坡驛).

3) 연행록

(1) 연행록

고려부터 조선 왕조까지 700여년 동안 한국인들이 외교적인 통로로, 중국에 나가서 보고 들은 견문과 선진문물에 대한 체험들을 자유롭고 창의성있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연행록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헌군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의미와 대단히 광범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록유산이다.

연행록은 한국의 사신들이 원, 명, 청 왕조 때 중국의 수도에 나가서 그들이 해 낸 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주고 받은 것, 체험한 것 등을 구체적이며 현장감있게 써놓은 것이다. 원나라 때 중국을 다녀온 기록은 빈왕록(賓王錄), 명나라 때는 조천록(朝天錄), 청나라 때는 연행록(燕行錄)이라 이름 붙인게 많다. 그러나 명나라 때도 연행록이라 이름붙인게 3종이나 있기 때문에 원, 명, 청 왕조에 중국을 다녀와 쓴 기행록을 포함한 사행록을 연행록이라 한다.

(2) 연행횟수

1271년부터 1893년 까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통문관지, 동문휘고, 승사록(乘槎錄), 연행록류, 문집류 등에 있는 관련기록을 확인되는 역대 연행

사 일람표를 보면, 조선사신이 원·명·청에 사행한 총 회수는 579(580)회로 나타나 있다.

시대별로 보자면 원대(1271~1368)에 1회, 명대(1368~1636)에 82회, 청대(1637~1912)에 497회이다. 그렇다면 한 번 연행할 때 2종 정도의 연행록을 썼다면 최소 1천여 종의 연행록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승되는 연행록을 시대별로 보면 원대가 1건, 명대가 141건, 청대가 294건이다. 여기에는 독립노정기 3건, 발문류 4건, 독립별장류 3건, 지도류 7건이 포함된 것이다. 오랫동안 연행록연구에 힘써온 임기중은 독립성을 가진 연행록은 모두 418건이 전승된다고 밝히고 있다²⁾.

공로(貢路)는 명대에는 해로와 육로가 있었으나 청대에는 육로로 통일되었으며, 그 육로는 서울-평양-의주-압록강-봉황성-연산관-요동-심양-광녕-사하-산해관-통주-북경이 일반적인 길이었고 총 3100리의 거리이며 서울에서 북경까지는 약 40~60일이 소요되었다. 돌아오는 길은 대개 50일이 걸렸으며, 북경체류 한달을 합하여 보통 5~6개월이 소요되었다.

(3) 사신의 종류

힘이 약한 우리나라는 동양의 최대강국인 중국을 섬기며 다른 주변 국가들과는 회유정책을 써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럼으로써 대외적인 안정과 국내에서의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무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꾀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대사는 중국의 지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는데, 여기에 국가를 대표해서 파견되는 사람들이 사신들이다.

사신단의 총 책임자인 정사는 3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또는 6조의 판서(정2품)가 담당하고, 정사를 보조하는 부사와 기록관인 서장관외 40여명이 수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왕자나 대군 또는 부마 등 왕실의 인물들이 정사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사신은 크게 정기사, 임시사, 국내사로 구분한다.

① 정기사행(定期使) :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

정조사(正朝使) : 매년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하러 가는 사신.

성절사(聖節俟) : 황제나 황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신.

천추사(千秋使) :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사신.

세례사(歲幣使) : 매년 10월에 곡물을 가지고 가는 사신.

2) 임기중저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29쪽+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를 전후하여 파견되는 사신

② 임시사행(臨時使) : 특별한 일이 있을때만 파견되는 사신.

사은사(謝恩使) : 중국이 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을때 사례하기 위해.

진하사(進賀謝) : 중국황실에서 경사있을 때.

주청사(奏請謝) : 국사에 대하여 중국황제에게 주청할 일이 있을 때 파견

진주사(陣奏謝) : 국사를 중국 황제에게 통고할 일이 생겼을때 파견되는 사신.

변무사(辨護使) : 중국이 국사에 대하여 곤혹하는 일이 있을때, 정정 또는 해명하기 위해 파견되는 사신.

진위사(鎮慰使) : 중국황실에 국상이 생겼을때 조문하기위해 파견되는 사신.

진향사(進香使) : 중국황실에 국상이 있을때 향과 제문을 가지고 가던 사신.

부고사(訃告使) : 나라에 국상이 있을때 이를 알리러 파견되는 사신.

원접사(遠接使) : 사신이 오면 의주까지 가서 사신을 마중하고 잔치를 베풀어 영접하는 사신.

반송사(伴送使) : 사신을 호송하던 임시관직

관반사(館伴使) : 한성에 묵고있는 외국사신을 접대하기위해 이를 알리 러 파견.

심양사(瀋養使) : 청나라 심양에 보내는 사신

통신사(通信使) : 수신사 라고도하며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

③ 국내사행(國內使) : 국내의 문제로 파견되는 사신

감진사(監賑使) : 흉년이 든 지방에 파견되어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으로 감진어사라고도 한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과 그밖의 재난이 있을때 지방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안무사(按撫使) : 지방에 변란이나 재난이 있을때에 파견되어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 때 조사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임시관직.

정리사(整理使) : 임금이 거동할 때, 행재소의 수리와 그밖의 일을 맡은 임시적으로 호조판서가 전임한다.

돈체사(頓遞使) : 나라에 초상이 났을 때 행렬이 지나는 길에 주식을 마련하고 군대와 인부들에게 음식을 주던 임시관직.

2. 한양에서 임진나루까지

1) 한양구간

◎ 창덕궁(昌德宮)과 돈의문(敦義門)

조정을 대표하여 창덕궁에 모여 면길 떠나는 인사를 한 사신들은 돈의문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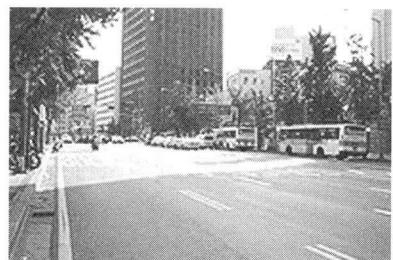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평동 지금의 강북삼성 병원 앞의 언덕, 정동 사거리로 서대문, 새문, 신문이라고 한다. 1915년 일제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로 철거되었다. 이 도로를 신문로(新門路) 즉 새문안이라 하고, 돈의문이 있던 마루는 '정동사거리'라 부른다. 강남삼성병원 앞 건물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의 총탄에 간 '경교장' 건물이다. 경교장이란 이름도 적십자병원 앞에 경교(京橋)가 놓였었는데, 이 다리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창덕궁(인정전)

◎ 경기감영(畿營)

종로구 평동 서울적십자병원 간호대학 자리, 경기판찰사의 관청. 나중에 한성부로 쓰이다 병원이 들어서면서 헐림. 감영을 돌아서면 본격적으로 의주대로가 시작된다.



경기감영 자리

● 연지(西蓮池)

서대문교회 앞의 금화초교자리,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던 자리, 반송지라고도 불렸으며 그 뒤편에는 天然亭도 있었다.

● 모화관(慕華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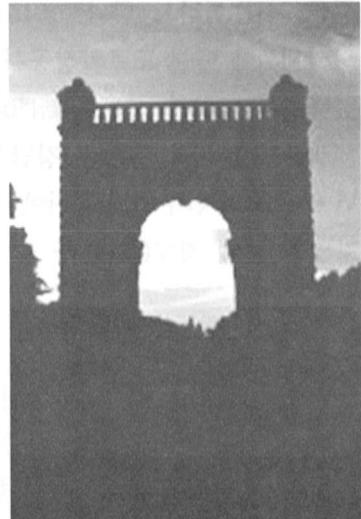
조선 태종7년(1407)에 개성의 영빈관을 본따서 지었으며, 세종때는 무과 과거시험 장소로 쓰이기도 하다가 명과, 청나라 사신의 영접과 접대용 관사로 쓰여짐. 1896 독립협회가 독립관이라 개칭하였으나 한일 합방 후 헐림, 현재 독립공원 내에 복원하여 순국선열들의 위패봉안과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영천동 305 한빛은행 독립문 지점자리.



독립관 – 모화관

● 영은문(迎恩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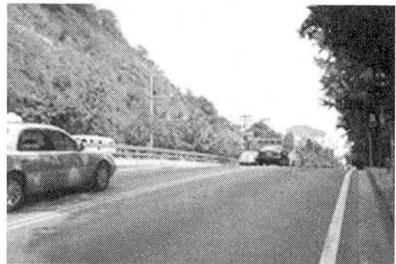
처음엔 홍살문이었으나 1536년 중종때 개축하여 김안로에 의해 명나라 황제의 문서를 맞이한다는 듯의 영조문(迎詔門)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문서만이 아니라 황제의 가르침도 은혜롭게 맞으라는 명나라 사신의 오만한 요구에 문서의 이름까지 바꿔지니 당시의 철저했던 사대주의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도 망하자 망명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사대주의 청산을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에 고종의 동의까지 얻어 1896에 헐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이 세워지게 된다.



독립문(영은문)

⦿ 무악재(母岳峴)

인왕산(338m)과 안산(296m)사이의 고개로, 국방, 교통, 통신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대에 따라 무악재, 모래재, 길마재, 영조가 부왕 숙종의 능행길에 돌아보며 추모하였다하여 추모현, 무학현, 모화현, 봉우재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이 고개만큼 많은 이름과 사연을 간직한 고개도 없을 것이다.



무악재

무악은 인왕산에서 서쪽으로 비스듬히 뻗어 추모현(追慕峴)을 이루고 솟은 산으로, 한 가닥은 남쪽으로 뻗어 약현(藥峴)과 만리재(萬里峴)가 되어 용산까지 갔고, 다른 한 가닥은 서남쪽으로 뻗어 계당치(鷄堂峙)³⁾까지 이른다.

무악은 한양천도 도성을 쌓을 때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즉 도성은 인왕산에서 직접 남산으로 이어져있지만, 당초에는 인왕산에서 일단 무악으로 건너질려 거기에서 금화산 능선을 따라 가다가 약현으로 해서 남산과 연결하도록 도성을 쌓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그 후 성종대에도 그와 같은 의견이 대두되곤 하였다.

태조가 한양도읍을 정할 당시 북악 주산론에 앞서 하륜에 의해 무악 주산론이 유력하게 대두되었고, 태종때에 다시 논의, 세종때에 무악을 주령으로 삼고 연희궁으로 하며 이궁을 경영하였을 만큼 무악의 비중은 매우 커다.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이 지은 [조선부]에는 “여기에는 천길의 협한 산세를 이루었으니 어찌 천명 군사만을 이기겠는가. 서쪽으로 하나의 관문길을 바라보니 겨우 말 한필만 지날 수 있겠다.”라고 하였고 그 주석을 달기를 “홍제동에서 가다가 5리도 못되어 하늘이 만든 관문하나가 북으로 삼각산을 잇대고 남으로 남산과 연결되어 그 가운데로 말 한필만 통할만하여 협준하기가 더 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는데, 외구인의 눈에 비친 무악의 신비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외에도 무악은 길이 협해서 무악재 호랑이라든가, 재를 넘겨주던 병사들이 무악재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등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나왔다. 영조가 부친 숙종을 추모하는 맘으로 넘어다녔다하여 추모현, 모화관터가 있었다하여 모화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 외에도 무악재는 모래재, 길마재, 무학현, 봉우재등으로 불리우기도 했다.

3) 연세대를 감싸고 뻗어내려가는 오늘날의 신촌에서 동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홍제원(洪濟院)

서대문구 홍제동 138번지, 지하철 3호선 홍제역 동쪽 산기슭, 고려성종 4년(985)에 정현이란 스님이 창설, 조선초에는 짙주린 사람들 돌보는 구실, 후에는 청나라 사신이 한성으로 입성하기 위해 홍제원에서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던 숙소로서 거기에서 예복으로 갈아입고 입성을 하였다. 인조반정 때에는 군사의 집결지가 되기도 하였다.



홍제원 표석

● 서석계 다리(홍제교)

● 병전거리(餅塵巨理. 떡전거리)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인절미’ 와 함께 ‘병전거리’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무악재-홍제동

● 녹번현(綠번峴. 녹번이고개)

홍은동과 녹번동 사이의 고개로 산골(山骨)이 나와 산골고개로 불리운다. 산골은 뼈에 금이 간 상처에 접골체로서, 강장제로서 효험이 있다하였다. 조선건국 초 도성을 쌓을 때 노역에 동원된 인부들이 돌을 나르다 허리를 다치거나 뼈를 다치면 ‘산골고개에 가서 산골을 먹고 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다.

● 양철현(梁鐵懸)

녹번동 19번지 대성주유소 앞 작은고개, 이 고개를 경계로하여 산쪽 동네를 독박리, 아랫동네를 양천리라 불렀다. 현재 녹번1파출소 앞에 개울이 있었는데, 이곳을 경계로 북으로는 의주까지, 남으로는 부산까지 똑같이 천리가 된다하여 일명 양천리고개라고도 하였다. 현 보건소 옆 녹번2파출소 자리에 양천리란 이정표가 있었으나 파출소 신축 당시 없어졌다. 국립보건원 교차로 네거리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마전, 적성, 가래비, 양주 쪽으로 가는

갈래길 이었다.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을 지나 연서로와 만나는데 야트막한 고개의 관기현으로 올라가는 옛모습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며, 진관외동의 기자촌 앞으로 하여 북한산성 길과 만나 덕수천(창릉천)과 나란히 송추방향으로 나아간다.

● 관터(館基峴)

은평구 불광2동 33-40번지 일대, 관터골 왼쪽에 있었으므로 관터고개, 고개가 있던 마을을 관터골(館洞)이라 하였다.

● 연신내(驛村, 역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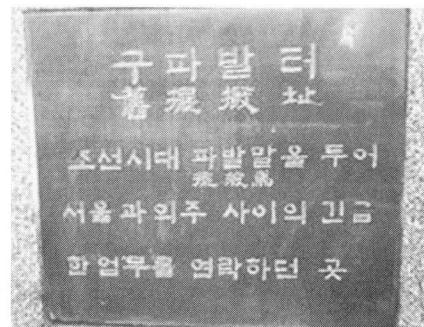
지금의 불광천, 연서역 근처를 흐른다하여 연서내, 연서천이라 불러왔다. 연서천을 끼고 내려가면 역촌동이고 물은 모래내로 흘러간다.

● 박석고개(薄石峴)

은평구 갈현동과 불광동을 끼고 구파발로 넘어가는 통일로에 있는 고개, 서오릉(西五陵)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지맥이 깨이지 않도록 박석을 깔았던 데서 유래하였다. 이 근처에 있었던 궁전에 일하러가는 사람들이 흙을 밟지않게 하려고 돌을 깔았던 데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 검암참(黔庵站, 파발터)

은평구 진관내동 533번지 구파발지하철역 부근, 박석고개를 내려오면 들판이 넓은 구릉이 나타난다. 여기 서부터 파발을 달려 성분에 따라 빠르게 전달할 것과 사신들이 오고감을 알리는 통신으로서의 역할등으로 나누어 양주, 적성, 벽제, 파주로 가는 곳으로 나누었다.



구파발 표석

2) 고양구간

● 비석거리 : 고양시 창릉동 동산리

통일로 영동한의원에서 통일 석재상에 이르는 곳까지, 밥(고속)할머니상과 신도비등이 있던 거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밥할머니와 관련된 석재는 비석, 석상등 모두 4점이었는데, 비석은 신도비, 공덕비였으며 할머니석상은 목이 없다고 한다. 본래 이 비와 석상은 1번 국도인 통일로에 있었는데, 확장되면서 이전되었다가 지금은 대조동 법령사로 1990년 옮기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마을 주민들이 할머니의 공덕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할머니 석상과 함께 만들어 세워 놓았으나, 일본군이 자기들의 조상을 많이 죽인 장본인이라 하여 상의 목을 잘랐고 비는 모두 땅에 묻어버렸는데, 해방 후 마을 사람들이 찾아내 다시 세워놓았다.



고양 밥할머니상이 있는 비석거리

● 덕수천(德水川)

창릉천(昌陵川)을 건너면 지금의 지축기지가 있는 구파발이다. 한양을 뒤로하고 삼각산 아래 너른 평지에는 얼마든지 파발기지가 있고도 남을만한 형세이다. 지금은 지하철을 정비하는 큰 기지창이 들어와 준비를 하여 떠나는 지축기지 역할을 하니 그곳의 지세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운명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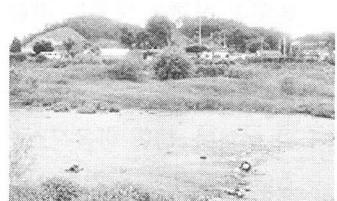
덕수천(창릉천)

⦿ 여현(礪峴), 숫돌고개

고양시 덕양구 삼송리와 오금리(梧琴里) 사이의 고개로 임진왜란때 오금리에 있는 이병산에서 적들과 대치해있는 상태에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숫돌 성분을 지닌 이 고개바위에서 칼을 갈았다고 하여 ‘숫돌고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고개를 넘으면서 다시 한번 한양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실감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장뜰마을이 나오고, 의주로는 서쪽 직선방향으로 간다.

⦿ 신원(新院) :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새원 마을.

신원리라는 명칭은 원집이 있어서는 아니었던 듯, 조선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月山大君)이 현재의 신원초등학교 앞에 궁을 짓고 살았는데, 그 궁의 이름이 신원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이곳에 원이 새로 생겼으므로 신원 혹은 새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고 함. 신원1리 주막거리를 지나 중소기업은행 수련원 안으로 들어가면 공덕비가 있는데, 지금의 곡릉천을 놓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이다. 이곳에서 망객현 고개로 통하는 다리가 놓여져있었다고 상상하면 되겠다.



신원역(오늘날의 곡릉천)

⦿ 신원천(덕명천·곡릉천)

예전에는 덕명교(德名橋)가 놓여있어 그리로 건너 다녔으나, 월천리(越川理)라는 지명이 요즈음은 통일로로 다니게 되어있다.



덕명교건립 송덕비

⦿ 망객현(望客峴)

고양시 덕양구 벽제 장묘사업소와 서원산 사이의 고개길, 무엇을 바라본다는 말인가, 바로 한양의 삼각산을 마지막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고개였기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 것이다. 요즈음 북한산으로 가는 도로가 이곳을 지나 사패산 밑으로

연결된다고 하여 시끄럽던 외곽순환도로 밑을 지나, 올라가다 뒤를 돌아다보면 삼각산의 위용이 자랑스럽고도 아름답다. 여기서 삼각을 얘기한 글 하나를 들어보면,

三角山에 대하여 이중환은 [擇里志]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삼각산은 동남쪽 100리 밖에서 푸른 하늘에 솟았는데, 앞쪽이 평평하고도 좋다. 서북쪽은 높이 막혔고, 동남쪽은 멀리 트였으니 이곳이 천연의 요새이면서도 명당이다. 다만 부족한 점은 넓고 기름진 들판이 없다는 점이다. 삼각산은 도봉산과 잇달아 얹혀있는 산세이다. 돌 봉우리가 아주 맑고도 빼어나서 만줄기 불꽃이 하늘에 오르는 것 같고 특별하게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어렵다. 다만 보필해주는 산이 없고 또 골이 적다. (중략) 성안에 있는 백악산과 인왕산은 바위의 형세가 사람을 두렵게 하니 살기를 벗은 송악산보다 못하다. 다만 믿음직스러운 것은 남산 한 가지가 강을 거슬러서 판구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内水口가 낮고 허하며 앞쪽으로 관악산이 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또한 너무 가깝다. 비록 화성이 앞을 비치고 있지만 갑흥가는 정남향으로 위치를 잡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판구안이 명랑하고 정숙하며 흙빛이 깨끗하고 단단하여 비록 밥을 길에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한양의 인사가 막히지 않고 명랑한 점은 많지만 웅걸한 기상이 없는 것이 한이다.



망객현 고개

고개에 올라서면 군부대의 성벽이 가로막고 있다. 왼쪽으로 돌아 벽제 장묘사업소 앞으로 돌아내려와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막혀서 지나오지 못했던 길과 만나는데, 그렇게해서 고양리로 들어서게 된다.

● 고양(高陽) : 벽체 관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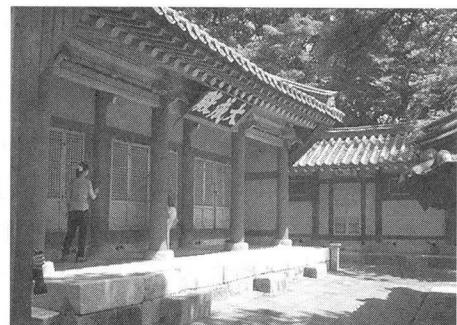
읍내리 도로 조금 위에 벽체 관아터를 잘 복원해놓았다. 그 앞 거리에 역대 목사들의 송덕비가 주욱 서있다. 그곳과 지금의 중남미 문화원이 들어서있는 옆에 있는 고양향교에서 옛날을 느낄 수 있다. [山起程]에 보면 “날이 어두울 무렵 달려서 고양에 당도했는데, 고양은 한 작은 읍이었다. 취민당(聚民堂)에 들었다.”고 나와있다. 취민당은 벽체관 내의 한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 또 한 이곳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장수 이여송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한 벽체관전투의 자리이다.

이 읍내를 벗어나면서 혜음령 고개와 뒷박고개로 갈라진다. 양쪽길 모두 조계종 사찰인 용암사와 보광사가 들어서있으며, 계다가 요즈음은 양쪽 모두 서울시립묘지까지 들어서있어 늘 복잡하고 봄벼 길이 좁다고 느껴지는 곳이다.

여기서 잠깐 옆길인 보광사로 넘어가는 뒷박고개는 고개가 되다 하여 붙여진 이름, 멀리로 앵무새를 닮은 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다하여 앵무봉 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령산으로 넘어가는 길을 살펴보면, 영조가 모친 숙빈최씨를 소령원에 모시고 넘어 다니며 봉이 너무 높다하여 더 파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일명 ‘더파기고개’가 되었다고도 한다. 구불구불한 산과 나무들의 무성함이 산속이라도 달리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고개이다.



벽체 관아터 앞의 비석들



고양향교

3) 파주구간

● 혜음령(惠蔭嶺)

고양시와 파주의 경계이면서 지방도 311번을 타고 혜음령을 넘는다. 이 고



혜음령 고개

개는 그늘이 져서 쉬기에 좋아 나그네들이 그늘의 은혜를 입는다하여 “혜음”이라 불러왔다. 걸어서 오른다면 만만치 않은 곳이니 예전에는 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도적과 호랑이가 두려워 고양리의 주막에서 사람들이 모여 넘었다고 한다.

이 혜음령 고개가 바로 파주의 시

작점이다. 고려 때 개경과 남경을 잇던 교통의 요충지, 개경- 장단- 적성- 양주- 의정부- 남경으로 가는 길보다 개경- 장단- 임진나루- 파주목- 분수원- 혜음령- 고양(벽재)- 남경으로 가는 길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그것은 남경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호남방면으로 가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의주로 구간중 이곳은 남경이 중요시 되면서 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도로가 된다. 그러므로 고려의 시대상황을 남경과 연결지어 잠깐 살피고 넘어가야 한다.

문종이후 남경이 중요시되면서 문종 22년(1068)년 남경에 신궁이 세워지고, 숙종 6년에는 본격적으로 남경이 건설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 곳으로 지나는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문종, 숙종, 예종 때 남경순행은 계속 되었고 그때에 이 직로가 주로 이용되었다.

남경은 풍수지리적, 지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설치되었을 테지만, 그중 정치세력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예로 들어보면, 왕권강화를 위해 새로운 세력 및 근거지를 요구한 문종과 그에 부응한 남경 출신세력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 문종 이후에 일시 폐지된 이유도 남경출신 세력들이 문종 후반 이후 지속되지 못한 반면 仁州 李氏 인주이씨는 지나치게 강성해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새로운 세력 근거지로 남경을 키우겠다던 왕의 의도는 수정을 요하게 되었고, 東京 西京 동,서경 출신들의 반대도 있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라고 하였다. 숙종은 인주이씨의 독주를 막고 서경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남경설치를 강행하였다고 하였다. ⁴⁾

【두 주제 ⑧】

기존의 풍수 도참사상의 영향으로 남경이 설치되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방

4) 최해숙의 高麗時代 南京研究 26쪽

향에서 남경을 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갑동⁵⁾은 문종이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남경을 건설하였다고 보았다. 개경을 중심으로 하여 서경과 남경을 양 날개로 삼아 보익하고자 하였으며, 풍수지리설을 빌어 새로운 왕권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가 숙종이 이자외의 난을 겪고 난후, 왕권강화와 상업의 육성을 꾀하여 남경건설을 추진하였는데, 숙종의 즉위에 공헌한 서경세력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그 후의 남경재건은 인근의 인사들을 등용하고 화합과 회유를 통해 왕권의 강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였다.⁶⁾

이 주장도 풍수지리설에 의해 남경을 건설하였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의 주요사상인 풍수지리설을 문종과 숙종이 받아들인 것은 결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각순⁷⁾은 우왕 8년 9월에서 9년 2월 사이에 행해진 한양천도와 개경환도의 과정은 남경으로 청함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양부로서 남경의 구실을 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공양왕 2년 9월에서 3년 2월까지 행해진 한양으로의 천도와 남경으로부터 개경으로의 환도는, 기록상으로나마 남경으로서의 지위회복이었다고 하겠다.

이상 몇 가지 남경의 중요성을 최혜숙⁸⁾은 고려시대의 남경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다. [고려사]와 [지리지]에 의하면 남경의 이전 명칭은 원래 고구려의 북한산군^{高麗史}이고, 신라 경덕왕 때는 한양군^{地理志}으로 되었다. 고려 태조 23(940)년에 지방행정조직이 주·부·군·현으로 개편이 되면서 초기에는 양주^{開州}라고 불렸다. 성종2년 양주목으로 승격, 문종 21년(1067)에는 남경이라 칭하다가 충렬왕 34(1308)에는 한양^{漢陽}으로 개칭되었다.⁸⁾

고려에는 개경, 서경, 남경, 동경 등 4경을 두어 왕의 순행시, 지방행정 구획상의 지침으로 있었다. 동경을 제외한 3경은 국왕순주경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는데⁹⁾, 동경은 태조 18(935)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하자 그의 옛 도

5) 김갑동, [고려시대의 남경] [서울학연구] 18호, 서울학 연구소, 2002

6) [高麗史] 卷 56, 志10 地理1 南京留守官 楊州

7) 나각순, [고려말 남경복치와 한양천도]–[강원사학] 17,18 합집, 2002

8) [高麗史] 卷 77, 志 31 百官 2 南京留守官

9) 이병도, [고려시대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0, 147쪽.

읍지를 경주라 했다가, 성종6년(987)에 동경이라 개칭하고 유수를 두었다.
그러다가 동경 사람들이 신라를 일으킨다는 구실로 재차 난을 일으키므로 다시 경주로 격하시키고, 그 관내의 속현들을 안동, 상주에 나누어 예속시킨다.¹⁰⁾

1770년 여암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서 조선의 간선도로를 최초로 6대로 분류 명명하였다. 그중 제1로가 의주로(義州路)이다.

● 혜음원사지(惠蔭院寺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999년 동국대에서 '惠蔭院'이라 새겨진 암막새기와가 발견됨으로 발굴 시작. 국가적으로도 희귀한 대규모 유적지이며, 남한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고려시대 건축물의 현장이기도 해 귀중한 자료이다. 양주의 회음사지와 규모나 생김이 비슷하며, 위로는 세월의 변화를 보여 주듯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여지도서] 등에도 나오지만 혜음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東文選]권 64에 실린 김부식의 [혜음원신창기, 1144년지음]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고려 예종 때 창건되었으며 “왕이 이소천에게 명하여 중 백여명을 모집하여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지어 머물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119년 건의, 1120년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만 2년만인 1122년 2월에 완성을 보게 된 것으로 보아 왕실의 후원을 받아 지어진 행궁, 사찰, 숙박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보인다.

이소천은 묘향산 승려 [혜관]을 찾아가 문도인 '응제'를 책임자로, '민청'을 부책임자로 하여 지어졌다. 원이 언제 등장하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고려시대 이후는 원의 기능이 크게 성행하여 주로 사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았다. 혜음사 창건으로 “깊은 숲속이 깨끗한 집으로 변하였고, 무섭던 길이 평탄대로가 되었으며, 양곡을 축적해놓고 그 이익을 얻어서 죽을 쑤어 여행자들에게 공급했다”고 하였다. 세력이 커지는 여진의 남하를 막고 거란에게



혜음원사지

10) [고려사]권 77, 지 31 백관 2 외적.

잃었던 압록강변을 되찾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인 예종은 혜음원사지를 완공한 그해 4월 승하함. 그렇던 혜음원이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 것은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서인데 그곳에서 출토된 그릇등이 얼마나 급하게 불을 지르고 피해갔던가를 대변해주고 있다.

◎ 세류점(細柳店. 잔버들, 진대마을)

：광탄면 용미3리 세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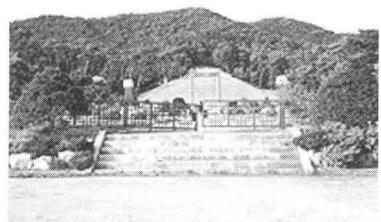
혜음원사지 건너편 골짜기는 진대마을로 임진왜란 때 이여송 장군이 군사들과 진을 치고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지금도 이 마을에서는 진대굿이 이어져 내려온다. 이여송의 못다한 한을 달래어 주기라도 하듯 민간신앙에서 남아 그 이름이 남아있는 듯하다. 잔버들은 잔버드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 조선시대 세류점 일 것으로 추정, 길을 찾는 표시로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퍼져나가 일대에 많으므로 불려진 이름 일 것이다. 병자호란 때 호병이 이곳에서 후퇴하였다하여 ‘호주골’이라고도 불렸으며, 호병들이 많이 죽었다하여 ‘죽골’이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구술로 전해진다.



세류동

◎ 윤관묘(경기기념물 12호, 국가사적 323호), 심지원 묘 앞

고려 예종 때 여진정벌에 공을 세운 문하시중 윤관과 그 뒤로 조선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묘가 있다. 조선후기인 영조 때 실전되었던 윤관의 묘를 찾으며 두 집안사이에 ‘분수원 산송사건’으로 펴진다. 영조계미년 10월 13일 御製文을 지어 ‘두 집안은 마땅히 분란을 그치고 각기 선조의 묘를 지키라’며 승지를 보내 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함. 그 앞에는 행인들이 쉬어가던 노거수 두 그루가 옛길임을 알려주며 서 있는 듯하다.



윤관묘

● 쌍불현(雙佛峴보물93호)

광탄면 용미리 대동여지도에는 미륵이라 표시. 장지산 기슭에 있는 돌을 몸체로 하여 얼굴, 갓 등을 조각해 얹었으며, 쌍미륵으로는 남한 제일이며 '도천기자전설'이 남아있다. 그 아래에 있는 용암사는 쌍미륵 조성 후 세워진 것으로 추정.

「계산기정」에 이해옹¹¹⁾이 쌍불앞을 지나며 쓴 시 한 수가 있다.

물결같은 흐린 구름 산 머리를 지키는데/
돌부처 분신하여 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만겁을 바람에 갈리면서도 그대로 우뚝서서/
멀리 쾌초와 호응하여 위로 하늘을 지르고 있다.



쌍불현 입상(용미리 석불)

● 분수원(焚修院) : 광탄면 분수리 분수원마을

분수원이란 역원이 있어 붙은 이름. 1914년 행정폐합 때 분수원 일부인 제청말, 뒷골, 점말, 부석굴 등을 병합하여 분수리라 함. 용미리와 분수3리가 만나는 자그마한 고개를 기점으로 임진강과 한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기원한다 하여 붙여졌다고도 함. 1361(공민왕10) 노국공주와 남쪽으로 도망가는 길에 이곳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 신점(新店) : 광탄면 신산리

신산리가 행정명인 이곳은 신점리. 두만리 전부와 조리면 화산리를 병합하

11) 조선 순조때 문신 [이해옹]이 1804. 순조4 연경에 동지사 서장관으로 갔을 때의 기록문. 중요한 곳이나 일에는 매일 시 한수씩을 지은 일기체의 時史.

여 대동지지에 나오는 新店의 ‘新’ 자와 華山의 ‘山’ 자를 한 글자씩 따와 붙인 이름. 지금의 광탄시내로 봄.

◎ 신탄막(薪炭幕). 새술막. 새숯막 : 광탄면 신산3리

광탄 시내를 벗어나면 옛 주막거리를 상징하듯 새술막이란 반가운 상호하나를 만난다. 실제로 주막거리가 성행했었다하고 참나무 숯을 굽기도하고 팔던 곳으로 주막거리가 자연히 생겨났으리라. 또한 임진왜란당시 선조가 의주로 파천하던 1592년 4월 29일 이 지역을 지날 때 억수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할 수없이 어가를 멈추고, 저녁준비를 서두르는데 장작이 젓어 타지 않자 주막에서 아껴쓰던 참나무숯을 지펴 수행하던 관원들이 몸을 녹이고, 옷을 말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광경을 지켜본 선조가 “이 숯은 처음(新)보는 새로운 숯(炭)이군”이라 하여 신탄이 되었다하며, 그 후 신탄과 주막이 합쳐져 ‘신탄막’ 또는 ‘새술막’이라하였다고 전해진다.

◎ 광탄천(廣灘川) : 광탄면 신산리

양주군 백석면과 광적면 양쪽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천으로 합류하는데, 광탄면의 두만리와 방축리(광탄개울에 둑을 쌓아 저수용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의 검단마을 사이로 흐르는 넓은여울이라는 이름에서 광탄이 유래되었다.



광탄천

● 가좌미(加佐尾)고개 : 광탄과 파주읍 연풍리를 넘는 고개.

이 고개는 오봉산의 봉우리가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2개가 있는 데, 그 사이를 가르는 고개이다. '개재미'라고도 불리는데 개가 잠들어 있는 모습이라하여 붙여진 이름. 이 고개를 내려가면 일명 집집마다 대추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대추벌'이란 동네를 지난다.

● 파주(坡州)

고양으로부터 40리쯤 가면 파주의 진산 봉서산이 보인다. 그아래 목사가 살던 관아터와 파주향교가 산기슭 아래로 자리하고 있다. 삼거리에서 봉서산 쪽으로 조금 들어서면 파주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근처가 동현이 있던 곳이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나온 [연행록 선집 8권]에는 “저녁에 파평관(坡平館)에 당도하여 그 길로 청각루(廳角樓)에 올라갔다. 읍의 터는 정연하여 왕기(王畿) 인접지의 큰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관아의 청사 북쪽에 행궁이 있는데, 행행하였을 때 쓰는 것이다. 봉서당(鳳棲堂)에 들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너무 읍내거리가 좁고 협소하다는 생각이 듈다.

읍내 거리에서 조금 아래인 파주1리 마산(馬山)마을은 파주목 관아에서 부리는 말을 길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조의 셋째 부마(화평옹주)로서 1780년 청 고종의 70수를 축하하는 성절사의 정사로 파견되었던 박명원이 살던 집터가 근처에 있다. 영조실록에 보면 영조 25년 8월 15일에 마산에 묻힌 셋째딸 화평옹주의 묘에 직접 다



파주교 내에 있는 파주목관아 주춧돌



파주관아가 있던 운동장

녀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박명원과 화평옹주묘

◎ 파주리 당간지주(파주시향토유적) : 파주읍사무소 앞.

당간지주(幢竿支柱)라하면 절 입구에 당(幢)을 달아두는 역할을 하던 것으로, 돌이나 나무, 철 등으로 두개의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안쪽에 간을 설치하기위한 구멍을 뚫어 세웠다. 당간은 신라때부터 성행하였다고 한다. 현존하는 당간의 예는 갑사철당간(보물 256), 용두사지철당간(국보41)등 철제당간 2기와 나주동문외석당간(보물 49), 담양읍내리석당간(보물 505)과 비지정된 몇기의 석제 당간이 있다.

현존하는 당간지주로는 통일신라이후의 것으로 부석사당간지주(보물 255), 숙수사지당간지주(보물 59), 금산사당간지주(부물28)가 있다. 고려때 것으로 보원사지당간지주(보물 103), 천홍사지당간지주(보물99), 춘천근화동당간지주(보물76), 홍천희망리 당간지주(보물80)등이 있다.

파주리 현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면 조선시대 파주목사의 권한으로 형을 집행하던 형틀로서 주민들이 마을의 평안을 위해 마을제를 지내왔다고 하며, 한국전쟁때 근방 미군부대에서 운동장 평탄작업 때 한 주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유추해 보면 통일신라나 고려 때는 사찰이 있었고, 조선조에는 사찰이 폐지되면서 당간지주가 그 기능을 상실, 형틀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성황당치

파주 5리에서 문산으로 넘어가던 고개. 일명 개미고개. 필자가 중학교를 걸

어 다니던 30여년 전에는 붉고 푸른 형겼이 나무에 걸려있던걸 보았다.

● 서작포 마을 : 파주읍 향양리

문산포의 동쪽 마을로 반룡산 서맥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문산 포구로 이어져 예전에는 배가 이곳까지 드나들었다 한다. 이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알리는 표석과 함께 장승 2구가 세워져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라 한다. 이 마을 안으로 조선 선조때의 성리학자요 동방 18현이며 울



서작포 마을

곡과 평생지기로 지내던 우계 성호과 그 부친의 묘소가 있다. 일명 서적개 마을을 지나 문산여종고 앞으로 난 농로길을 따라 뻗은 길이 옛 의주로 길인데, 가다보면 현재는 미군부대에 그 길이 막혀있지만 그 안 어디쯤에 이천원(梨川院)이 있었을 것이다. 끊어진 길을 눈으로만 달려 선유4리 삼거리 길에서 적성으로 가는 37번 국도와 만나 현재 화석정이라 표시된 길을 따라 다시한번 좌로 꺾어 들어가면 많은 애환을 안고 흐르는 임진강을 만난다.

● 울곡촌

임진나루로 가는 길에 울곡의 선조들이 세거지로 살던 마을이 있다. 살던 집터로 추정되는 집 뒤로 조상들의 묘소가 보인다. 밤이 많아 울곡리로 불리워졌는데, 울곡이란 호도 이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나도 밤나무 설화에 의해 2005년 파주시에서는 밤나무 심기와 나도 밤나무를 심어 스토리가 있는 유적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진강

● 화석정(경기유형문화재 61호) :

화석정은 울곡의 5대조 위인 이명신이 세운 정자로 울곡이 6세때 강릉 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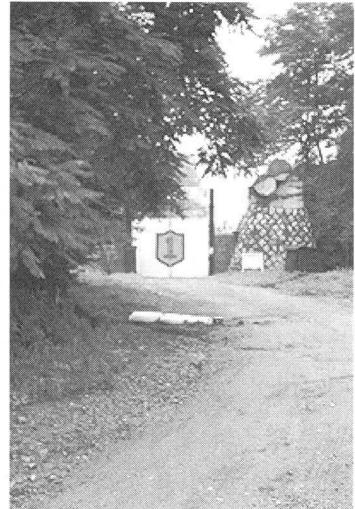
에서 서울 수진방으로 올라오면서 조부께 자주 오게 된다. 그 정자의 풍광을 담은 8세 때 지었다는 시가 걸려있다. 연안이씨 집안의 이숙함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당나라 재상 이덕유의 별채인 평천장의 가문중 '花石'을 따온것이다. 이이가 중수를 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불이나 후손인 이후지, 이 후방이 복원하였으며, 한국 전쟁때도 불이나 1966년 지방 유림들이 복원하였다. 1973년 정화사업이 이루어졌다.



임진강 변위의 화석정

● 임진나루(진서문)와 덕진산성

화석정을 오른쪽으로 끼고 강으로 난 도로인 자유로를 밑으로 빠져들면 도로 아래로 나루터 동네가 나온다. 그 아늑한 골짜기에 임진나루가 있다. 지금은 군부대가 막혀있어 들어갈 수 없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기도 하다. 김홍도의 [임진강 적벽나루] 그림을 보면 배를 타고 적벽놀이를 하는 봄의 경치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건만 임난 때 선조가 신의주로 몽진(蒙塵)가는 날의 정경을 보면 다급한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임금을 호위한 수행원들이 나루를 다 건너가 일본군이 뗏목을 만들어 뒤따라 올까봐 승청에 불을 놓으니 길을 찾기가 훤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굳게 닫힌 진서문

이곳을 건너면 수내나루이고 동파리, 장단역을 지나 개성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 개성공단 바람의 영향으로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지만, 우리는 옛 역사속의 개성을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임진나루의 동북쪽으로는 고구려 성으로 보이는 덕진산성이 보인다. 성안에는 우물지가 남아있고, 덕진산성 내부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덕진묘(德津廟)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장단지 사묘조(長湍誌祠廟條)에 보면, 봄과 가을에 향촉이 내려지는데 가뭄을 만나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성은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로 되어있으며 임진강을 내려다보기에 좋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성은 수내나루 쪽으로 뻗은 능선과 산봉우리가 초평도 방향으로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는 한국전쟁이라는 상흔을 안고 임진나루에서 굳게 닫혀 있다. 강을 건너 장단까지 조금 더 갈수도 있으나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은 여기서 끝이니 옛 의주로 길은 여기서 중단된다고 봐야한다. 연행길을 따라가 보려면 이제 우리의 땅을 놔두고 하늘이던 바다위던 돌아서 압록강 건너 단동으로 가야한다.

3. 압록강에서 热河까지

-2005년 8월 12~21일-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정기사행 이외에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파견되는 임시사행 등 여러 형태의 일로 소위 대국에 다녀 와야 했다.

이곳 파주는 삼국시대부터 그런 여러 형태의 사신들이 거쳐 가던 길목이요, 특히 <<열하일기>>를 탄생하게 했던 연행사의 정사 박명원이 살았던 곳이고, 청나라의 모진 굴욕을 겪어야했던 조선 16대 인조의 능이 있는 곳이다. 박명원은 영조의 셋째부마로서 그가 살던 곳이 바로 파주읍 마산인데, 오리 이덕형과 신익희가 쓴 글에 보면 “서울을 떠나 40리를 가 고양에 이르러 잤다, 다음날은 고양을 떠나 40리를 가 파주에 이르러 잤다”고 나오는 파주의 파평현이 있는 고을이다.

연암, 박제가 이외에도 많은 사신들이 다녀온 길, 그 길은 우리에게 북학과 서학이 만나던 길이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한·중 교류에 있어 보고의 길이다. 우리 민족의 많은 애환과 사연이 남아있는 길, 그 길을 따라 가보는 9박 10일의 여정은 때론 벅차게 때론 말로 할 수 없는 감회로 밀려왔다.

노가재·연암·박제가 이외에도 많은 사신들이 다녀온 길, 그 길은 우리에게 북학과 서학이 만나던 길이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한·중 교류에 있어 보고의 길이다. 우리 민족의 많은 애환과 사연이 남아있는 길, 특히 2005년은 광복

60주년, 박지원·박제가 서거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기념으로 연행노정을 추진하는 답사코스가 있어 함께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1) 연행 코스

압록강을 건너면서 부터의 연행코스를 간략하게 적어보면 압록강 단교, 삼강과 호산장성, 구련성, 책문, 봉황성, 설류참, 통원보, 초하구, 태자하, 요양백탑과 광우사 그리고 관제묘, 발해대학, 심양과 혼하강(효종채소밭), 조선관, 고려촌, 북진묘와 의무려산, 금주를 지나 맹강녀묘, 갈석산, 산해관과 각산장성, 이제묘, 계주독락사, 동악묘, 북경, 옥하관, 유리창, 국자감거리, 동천주당, 고관상대, (황애관장성, 열하, 피서산장, 경추봉, 수미복수지묘, 고북구장성)이다. 팔호안은 박지원이 갔을 때만 갔던 코스다.

● 압록강 단동대교(渡江錄)

예전 같으면 파주를 지나 개성, 평양, 압록강을 건너면서 중국의 관문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심양으로 간 후 단동으로 이동을 한다. 이제 여기서부터 북경, 열하까지의 이 천오백여리가 넘는 여정이 시작된다. 명나라의 장천복이 지은 지리서에도 천하에 큰물이 셋 있으니, 황하·장강·그리고 압록강이라 하였다. 붉은 물을 토하듯 많은 물을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백두산은 모든 강이 발원되는 곳으로 그 서남쪽으로 흐르는 것이 압록강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차량 몇 대는 북한과 중국을 오간다. 끊어진 단교 저 건너가 북한인데 더울 때는 아이들이 나와서 물놀이를 한다고 한다. 단교위로 내리는 여름비가 바람과 함께 어수선하다.



압록강 단동대교

● 삼강과 호산장성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 고구려가 쌓았다는 호산장성을 오르는 것으로 답사

는 시작되었다. 연암도 이곳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열하일기를 시작하였다. 그 성은 암만생각해보아도 우리 고구려가 쌓은 박작성이 분명한데, 중국에서는 요즈음 그곳에 중국성의 기법으로 성을 쌓고 동쪽 만리장성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 장성의 정상에서 보니 북한이 바로 건너이고, 해자인지 강인지 여러 갈래로 갈라진 곳이 보였는데 그곳이 바로 삼강이다. 그 성의 끝에 내려서면 “기점에 가지 않으면 유감을 남긴다”는 묘한 말까지 새겨 놓았다.

발원지가 장백산이라지만 우리의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사신들이 배로 건널 때 압록강 하류는 물길이 넓어 상류 지점인 삼강지점에서 물살을 이용하여 내렸다는 곳이다. 갈대가 커 앞도 옆도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제각 기 건넌 후, 호각소리로 모였다더니, 책에서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곳에 서보니 실감이 난다.

그 성에서 보면 압록강 건너 의주의 통군정이 보인다는데, 안개가 끼고 날씨가 흐려 산마루도 보이지 않고 짐작으로만 바라보았다. 고국의 풍광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었기에 그리움과 애틋함이 더했을 것이다. 멀고도 험한 사신길의 사실상의 출발점이 바로 그곳이었다.

김정호가 그린 지도에 보면 애랄하가 있다. 호산장성의 북쪽을 돌아내려

압록강에서 만나는데, 물이 맑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흙탕물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만난 물살이 압록강을 이루고 거기에 놓여있던 다리를 끊어놓아 그곳을 압록강 단교라 이름붙이고, 오늘날의 중국은 관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삼강이내려다 보이는 호산장성

● 구련성(九連城)터를 지나 책문(冊門)으로

구련성터였다는 것을 밝혀주는 작은 팻말만이 길거리에 초라하니 서있다. 시골에서 가지고나온 과일들을 그 주변에 놓고 팔고 있었는데, 자칫하다가는 찾지도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있다.

책문(柵門. 邊門) 변방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라는 뜻의 책문은 일명 고려문

이라고도 한다. 청태종 이후에 생겼는데, 책문이란 한길 남짓한 키다란 나무들을 10여리에 걸쳐 울타리처럼 쳐놓았던 데서 유래한 이름. 소 외양간같이 중앙에 문이 나 있으며, 이 문을 여닫는 것은 봉황성 장군이 주관했다. 초옥으로 지어서 풀을 덮었고 노가재가 연행했던 1712년에는 성장(城將)의 처소와 주막과 민가를 합해 10여채 뿐 이었다고 했다. 책문에 들어서기 전에는 노숙을 했고, 책문에 들어서야 비로소 참에서 잤다. 청나라와 무역을 하던 곳 이었고, 이곳을 들어서면 사실상의 중국 땅이다. 고국의 소식은 이로부터 끊어지고, 그들의 횡포가 시작되던 곳이다. 산 아래로 넓게 나있는 도로와 집들의 기단석과 주춧돌 등의 규모에서 번성 할 때는 그 부유함이 대단했을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온다.

의주에서 왔다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곳은 원래 고려문역이 있던 곳입네다. 그런데 1962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할 때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역 이름을 일면산역(一面山驛)으로 바꾸어 버렸디요. 이곳 변문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조선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도 김일성이가 지나가다가 조선땅이라고 할까봐 이름을 탕하(湯河)라고 바꾸어 버렸씨요” 일본이 심양에서 단동까지 철도를 놓았던 일본 건설회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문역]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그 이름과 역사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구련성 고성지



책문거리의 기단석

● 봉황성(鳳凰城)

책문에서 30리쯤 가면 봉황산성이 나오는데, 고구려 장군 양만춘이 당태종의 한쪽 눈을 맞추었다는 안시성전투의 자리이다. 지금도 깊숙한 산골짜의 안에는 조선인이 모여사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앞서 의주에서 왔다는 노부부

가 말하는 조선촌이 바로 이곳이다. 고구려 성 쌓기의 형태가 분명한데, 흙으로 덮어 놓은 흔적도 역력하고 목 아래 방울이 달린 중국 사자를 갖다 놓았다.



봉황산성앞 중국사자상



봉황산성 왜곡의 현장



오늘날의 봉황산 입구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우리의 땅이었다는 흔적과 역사는 아무데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봉황산 아래로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넓은 내가 있고, 산 아래 깊숙한 곳에 평화롭기 그지없어 보이는 마을이 안쪽으로 보인다.

두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봉황산

– 이색의 〈정관음〉–

안시성 싸읍과 양만춘 장군, 연개소문과 당태종, 설인귀 대결
주머니 속 물건이라 우습게 여겼던 만눈에 화살맞을 줄 어떻게 알았으랴.

◎ 설류참을 지나 통원보

버스로 문가보文家堡 고개를 지나고 한참을 더 가다 나오는 설리참을 지난다. 설리참은 전쟁에 나갈 병사들이 모이던 강가의 둔덕을 이르는 말이다. 얼마쯤 가다보면 꽤 큰 읍내가 나오는데, 통원보로서 조선에서 따라 온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까지 왔다가 가기를 바라던 곳이다. 비가 내려 길을 떠날 수 없을 때 연암이 화투를 쳐서 이긴 곳인데, 다음날 일행들이 또 치자고 했을 때 “한번 성공 한 곳에는 다시 가지 않고, 만족한 줄 알면 어려운 일이 없다”는 해학적인 말을 남긴 곳이다.

◎ 초하구를 지나 태자하(太子河)¹²⁾

예전 연행길은 통원보를 지나면서 청석령을 넘어갔다. 오늘날은 옆으로 도로가 잘 나있어 나 버스를 타고 달린다. 청석령은 연경길에서 회령령과 함께 가장 험한 곳으로 알려졌는데, 봉림대군이 심양에 볼모로 갈 때 그 고개에서 “청석령 지나거나 초하구 어디메오, 호풍도 차도찰샤 궂은비는 무슨일고~”하는 호풍음우가를 남겼다. 그 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석령을 일부러라도 넘으며 그 시를 읊으며 갔다고 한다. 별판이 나오고 태자하 다리를 건넌다. 이제 여기부터는 며칠을 달려도 산하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요동별판의 시작이다.

12) 전국시대 燕나라 태자인 丹은 형가를 시켜 진시황을 살해하려다 발각되어 도리어 연나라가 화를 당하게 된다. 물론 이 일이 아니더라도 진은 연을 복속 시켰을 것이다.

◎ 요양백탑과 광우사 그리고 관제묘



요양백탑



광우사 전경



관제묘안의 관우상

끝없는 벌판을 달리다 나타나는 것이 요양백탑이다. 연암은 이 벌판을 지날 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시원해서 울고 싶듯 그런 시원함으로 한번 울어볼만한 곳이라고 했다. 옛날에는 다른 높은 것들이 없어서 그랬을 터이지만 오늘날도 그 탑은 요양의 장관이다. 팔각으로 된 13층 모서리마다 풍경이 달려있는데, 유광벽한(流光碧漢)이라 쓴 글이 정면에 걸려 있다. 푸른 은하수가 빛을 흘려보내듯, 밤이면 푸르고 신령한 빛이 흘러 나오는 듯한 그런 탑이었을 것이다.

그 탑의 바로 뒤에 광우사가 있다. 漢나라때 지었는데 당태종이 遼를 칠 때 중수하였다하고, 스님이 동자를 업고 그곳까지 데려다주었더니 고목밑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나와 중수를 하였다는 전설과 함께, 근래는 강희 때 태후가 내탕고의 돈으로 세웠다는 황실의 사찰답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근처에는 조선에서 끌려온 사람이 두 부를 만들어 팔았는데, 연행사들이 사 먹었다는 이야기도 내려온다.

그리고 사신들은 관우를 모시는 관제묘를 둘렀다. 사신들은 여기쯤 오면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어딘가 애다 빌고 싶었을 것이다. 수많은 사당이 있지만 이곳 관제묘가 제일 영험이 있다고 사신들에게 알려졌다. 그 근처는

연암이 왔을 때도 시장판 같다고 하더니
오늘날도 난장판이다.

연행록에 보면 그때도 돈을 주고서 사당엘 들어갔다더니, 열 수 없다던 문이 담배 값을 주고서야 열렸다. 지저분한 사당 안에는 관우상을 비롯한 그 시대의 친숙한 인물들이 깎여지고 있었다. 관우는 무운과 재운을 가져다 준다하여, 사당에 가장 많이 모셔진 인물이다. 긴 수염으로 대표되는 관우상은 우리에게도 친근한 인물이다.



관우사당

● 발해대학

오늘날의 발해대학 안에 삼학사비가 있다. 원래 삼학사가 처형된 자리에 삼학사비를 세워주는데, 그곳이 오늘날의 심양의 중산공원이다.

청은 우리를 부모의 나라라며 좋아하던 조선이었으나, 명나라만을 나라로 섬기려는 행위 때문에 쳐들어게 된다. 그때 아녀자와 왕자들은 강화로 피신을 한다. 그러다가 인조는 끝내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태종에게 무릎을 끓고 삼배 고두례를 올리는 수모까지 겪게 된다.

그때 인질로 갔던 삼학사¹³⁾가 처형된 곳이 심양인데, 오늘날은 공원으로 바뀌어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렇게 그들을 죽인 청태종은 그들의 절개있는 죽음이 부러웠을 것이다. 그 정신을 본받게 하고 싶었던지 원혼을 달래주려 함인지 「三韓三豆」 라 새겨진 비석을 세워준다.



발해대학에 새로 세운 삼학사비

13) 삼학사: 홍익한, 오달제 윤집.



삼학사비 원래 모습

그렇게 세워진 비가 세력이 바뀌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모르게 되었다. 그러면 것이 어느 집을 지을 때 쓰려고 주어다 놓고 보니 글씨가 있었다. 글씨가 쓰여진 돌은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는 속설 때문에 다시 내다 버렸는데, 그것이 어찌어찌해서 발해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을 복제를 하여 하나는 그 교정에, 하나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으로 보냈다는데, 그 대학의 걸어온 길에서 소수민족의 어려움과 애환을 다시 생각해 본다. 영토는 어쩔 수 없지만, 문화로 우리 것을 찾아 지킬 수는 있을 것이다.

● 심양과 혼하강(효종채소밭)

심양은 연행노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물의 북쪽은 양이라 하여 한강의 북쪽을 한양이라 했듯, 혼하의 북쪽이라 심양이라 불리는 곳. 심양은 쿠빌라이가 세운 청의 본거지이다. 조선이 맹약을 깨고 명나라를 섬기려 한다며 청이 쳐들어 오는 병자호란¹⁴⁾을 맞게 된다. 이때 인조는 소현, 봉림대군과 김상현, 이명한, 최명길등을 볼모로 보내고, 삼학사등이 끌려갔다 처형된 한 많은 곳으로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강희제때 이곳을 성경 봉천부고 승격시켰으며, 심양으로 들어서기 전 흐르는 혼하강은 혼하수, 소요수, 현우낙수, 아리강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운다. 물줄기는 장백산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흘러 태자하와 만나 요수와 합쳐 바다로 들어간다. 만주족의 문화교류의 거점도시이기도 하였고, 지금도 당당히 중국의 5대도시에 속한다.

사신들이 쓴 문헌에 보면 혼하는 물의 넓이가 우리나라 임진강과 같은데, 되돌아 올 때마다 물이 넘쳐 다리를 건널 수 없으므로 40여리를 우회하여 그 하류 다리로 건너다녔는데 <시강원 일기>에는 그 하류에 들의 편편한 밭을 세자에게 주어 무를 심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가 갔을 때는 전날 비가 많이 와 흙탕물속에서 봉림의 채마밭은 짐작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는데, 베드나 무가 무성하고 사람들이 물구경을 나와 매우 혼잡하였다. 흙탕물이지만 물이

14) 병자호란 : 1636 인조14 2월 후금이 보낸국서거절. 12월 병자호란 발발

불어나면 구경을 하러 모이는 건 우리나라 그들이나 매 한가진가 보다.

봉림대군이 볼모생활을 할 때 홍덕이란 나인이 김치를 맛있게 담가 주었다고 한다. 그 김치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7년간의 볼모생활을 한 후 한양에 와서도 김치는 그 나인이 전담했고, 효종은 김치거리 심을 밭을 하사했는데, 그 곳이 낙산밑 동숭동 서울대학교가 있던 일대였다. 그래서 그곳을 홍덕이밭(弘德田) 또는 홍덕골이라 부르기도 했다. 효종은 그 나인의 김치를 먹으며 복별의 의지를 잊지 않고자 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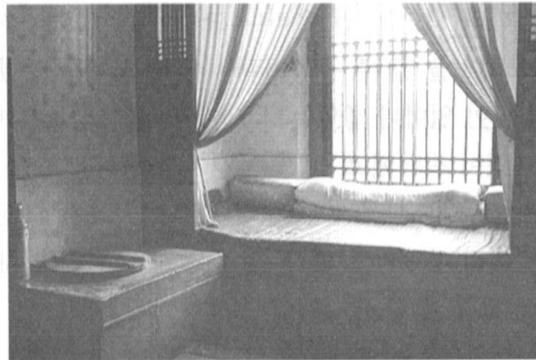
◎ 조선관(朝鮮官)

심양시내의 고궁안에 있었는데, 소현과 봉림대군등 왕자와 김상현 등의 척화파 대신들이 인질로 가 있던 자리이다. 조선관내의 인질관에 머물렀다고 하니 이름부터 그 볼모의 날들이 어떠했을지는 상상이 간다. 김상현의 시중 그들의 춥고 외로운 심정을 엿볼수 있는것이 있는데,



심양 조선관 (어린이 도서관)

해 바꺼도록 오가는 발길이 끊어졌으니
문에는 자물쇠를 채워 하루종일 닫혀만 있네
섣달 눈은 봄이와도 다 녹지 않았는데
새벽 하늘에 부는 것은 봄바람인지
옥문에 얼어붙은 눈 원비동설(圓批凍雪).



동궁의 침전

● 고려촌(高麗村)

-이유원의 [임하일기]에서-

심양에 고려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사로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도록 한 곳이다. 그 곳 사람들의 풍속은 우리나라를 송상하여 논농사를 지어 먹으며, 시루떡을 잘 만들어먹는데, 우리나라 사신들이 지날 때면 폐지어 모여 구경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남문밖에 이태원(異胎院)이 있는데, 이는 임진년(1592) 뒤에 왜인들이 이곳에 살아 유래된 것처럼 그런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금은 상고할 수가 없다.

● 북진묘와 의무려산(醫巫閭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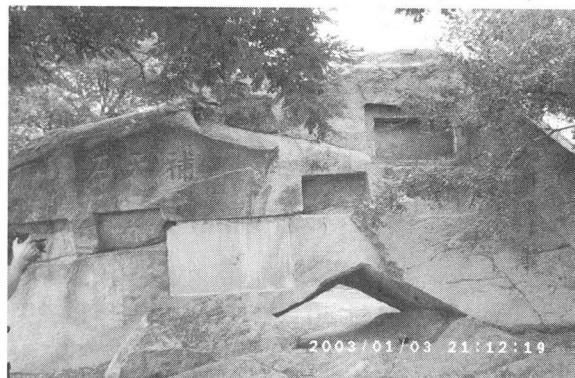
요동에서 북경까지 가는 별판은 가도가도 산하나 나타나지 않는 별판뿐이다. 길가에는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데, 요수가 범람하면 그걸로 의지를 해 길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하루를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몇몇 날을 걸어 가며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러다 나타나는 북진묘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어떤 특이한 기운, 그 안에는 많은 황제들의 시를 새긴 비석들이 있고, 특히 사당 뜰의 뒤쪽으로는 사신들이 꼭 둘러보고 간다는 바위가 있다. 사람하나가 드나들만한 마름모꼴의 바위밑을 지나가면 집안 식구들의 안녕과 아들을 놓을 수 있다는 전설의 바위덩이가 있는데, 서쪽에는 寶天石, 동쪽에는 翠雲瓶이라 쓴 붉은 글씨가 오늘날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연암의 글에 상세하게



북진묘에서 내려다본 요동벌판

나와 있는데 취운병이란 글은 그곳에 서보니 알겠다. 멀리 내려다보이는 앞이 툭 트이게 펼쳐진 너른 벌판이, 안개 속에서 정말 푸른 명풍을 두른듯했다. 차에서도 연행록을 읽으며 왔지만 그 자리에 서서 그 장면을 읽으니 더욱 실감이 난다. 속담에 ‘讀萬券書 不如行萬里路：만권의 책을 읽어도 만리를 다 님만 못하다’ 더니 이런 순간을 두고 한 말 일깨다.



보천석, 취운병 바위

끝없는 요동 벌판을 가다보면 북진묘를 지나고 나야 산의 모습과 기운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니, 백두산. 천산과 더불어 동북 3대 진산의 하나인 의무려산이 나타난다. 의무(醫巫)란 ‘크게 치료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까 산으로 오르는 바위에는 유난히 성혈이 많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위사이로 난 고샅길을 넘으면 도화동이란 곳인데, 그곳에는 천년이 되

었다는 소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우물도 있다.



도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망해사가 있는 의무려산 천년송

성혈- 바위에 혈이 통하게 하여 기원을 하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까, 인간이 바라는 바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고인돌에 선 태성별인 북두칠성을 뚫어놓은것을 많이 보았는데, 어디서나 사람들의 기원의식은 비슷한가보다. 중국인들처럼 壽자와 福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붉은 리본이나 끈에 기원을 매달아 놓은 걸 볼 수 있다. 도화동이란 그 동네는 정말 기운이 좋았다. 나무와 물과 바위와 아주 좋은 기운이 머무는듯 했는데, 아득한 골짜기 안에 천년이 되었다는 소나무가 건장하게 서 있다. 산위에는 망해사가 있고, 절로 통쾌한 기분이 드는 산

이다. 홍대용도 그 산을 올랐던 기록이 있다. 산에서 내려오니 근처에는 과수원이 많고 유난히 과일이 싸고 맛있다.

◑ 금주를 지나 맹강녀 묘

계속해서 요동벌을 간다. 지나는 길에 금주시를 지나는데 오늘날 파주와 자

매결연을 맺은 곳이다. 그 요동벌판의 끝 산해관이 다 와가는 곳, 멀리 만리장성이 보이는 지점에 맹강녀 묘가 있다. 그녀의 남편 범랑은 만리장성을 쌓을 때 부역을 나왔다 죽어 아내의 꿈에 현몽하였다. 그녀는 손수 옷을 지어 천리를 가 남편의 생사를 들으려다 장성을 바라보며 울다 돌로 화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남편의 뼈를 지고 바다에 들어 간지 며칠 만에, 바다 가운데서 돌 하나가 솟아났다는데, 그것이 망부석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진시황은 그녀의 혼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사당을 지어주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만큼 만리장성을 쌓는데, 사람들의 사연과 원성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당 옆 바위아래 자물통들이 주욱 걸려있다. 연인들이 맹강녀 부부의 지극한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 그곳에 함께 찾아와 자물쇠를 채우고 간다고 한다.



맹강녀사당

◎ 갈석산(碣石山)

한참을 가다 보면 위용이 만만치 않은 갈석산이 나온다. 유난히 돌이 많고 특이한 형상이다. 삼국사기에 패수(渢水)라는 이름과 함께 나오는 갈석산을 돌아들면 산해관이고, 이어서 거대한 만리장성에 이르는 연행길의 절정이라 할만하다고 했다. 서쪽의 뾰족뾰족한 봉우리는 문필봉이라하며, 무령현(撫寧懸)이라 일컫는 곳으로서 문필가 한퇴지가 태어난 곳이다. 박지원과 함께 북경에 갔던 노이점의 글에 “서남쪽에 있는 봉우리 하나는 모양이 뾰족한 봇과 같은데, 매우 깨끗한 것이 산해관을 들어온 후 처음 본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韓文公이 정말로 이곳에 태어났는데 이 봉우리의 정기를 모아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정말 제동야어(齊東野語)이다. 이곳은 창려현이 있기 때문에 견강부회(牽強附會) 한 것일 뿐이다. 성안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집들도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하였다.

이곳을 지나면 십삼산이 나오고, 산해관까지의 긴 여정구간은 어디나 明,

清교체기의 격전지들이다. 병자호란으로 조선을 제압한 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명과의 전쟁을 수행한다. 1643년 산해관을 통과하여 북경을 접수한 5,6년간 이 지역은 크고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 1666년 남용익은 이곳을 지나며 이런 글을 지었다.



무령현에서 보이는 갈석산

대릉하 소릉하 흐느끼는 바람에 가벼운 물결이네
송산보, 행산보 찬 연기 시든 풀 위 자욱이 어려있네
요양의 서쪽은 모두가 전쟁터이니 예오면 나그네의 애간장 끓어지네
소리내어 울려다 눈물 거두고 무슨말 하려하다 소리 삼키네
뒷날 여기 동방에서 찾아올 사람이여 다시는 이 사이길 지나지 마시게나.



대릉사진

◑ 만리장성의 시작이요 끝인 산해관, 그리고 각산장성(角山長城)

산해관은 만리장성의 동쪽 끝자락이며 시작점, 중국으로 드는 사실상의 관문이며, 명이 청에게 나라를 내준 것이 바로 이곳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연암은 '만리장성을 보지 않고는 중국이 큰 나라임을 모를 것이며, 산해관을 보지 않고는 중국의 제도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발해만(渤海灣) 그곳에 기점을 세우고 만리장성을 쌓아 바다로부터 산 정상까지의 기를 모아 성안을 지키던 곳. 산해관은 웅장한 천하제일관문을 중심으로 동북삼면에서 서북으로 뻗어 각산에 이르고, 동북삼성과 화북이 만나고 대륙과 발해가 만나는 목줄에 용의 머리인 노룡두老龍頭를 만들어 세웠다. 그곳에서 진시황이 군사들의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망해루가 있고, 전설에 불로초를 찾기 위해 출발한 곳도 산해관이라는 말도 있다.



노룡두(산해관의 시작점)

그곳에서 시작된 만리장성은 각산의 가파른 산을 타고 넘어간다. 각산 위에는 노가재 김창업이 눈바람 속에 찾아 올라갔던 각산사라는 절이 있다. 그곳에 올라 보면 멀리 창려현, 산해관 시가지와 바다가 내려다보일 것이다. 노가재는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산사의 밤풍경이 마음을 호장케하며, 더불어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게 한스럽다 했다. 바닷물결위로 반쯤 잡겨 떠오르는 달을 보느라 잠을 못 이루고 들락날락 하다보니 닭이 울더라고 했다. 북경은 여행이 목적이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관광을 하고 좋은 여행록을 남겼던 것은 18세기 이후였다.



만리장성의 시작 각산장성 입구



각산장성

● 이재묘(夷齊廟)

난하(灤河)기슭의 자그마한 언덕을 수양산 이라하고 그 산 북쪽의 조그마한 성을 [고죽성]이라한다. 성이 묵태(墨胎)로 고죽군의 아들이다. 은탕(殷湯) 18년에 하후씨의 후손을 고죽국에 봉했는데, 그 후, 백이와 숙제는 서로 왕이 되기를 사양하니 중자(仲子)를 세웠다.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자 수양산에 숨어서 고사리를 캐먹다 죽었다는데, 우리나라 선비들은 그곳을 지나며 고사리 국을 먹으며, 선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지나갔다. 중국에는 백이, 숙제를 모신 사당과 수양산 이라하는 곳이 다섯 군데나 있다고 한다. 내가 올해 가본 곳은 그중의 한군데 노령현의 마을 뒷산에 있는 묘소를

가 보았다. 이제가 먹던 우물터라는 [이제정]이란 곳도 개인집 대문에 표시 되어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에도 해주에 수양산이 있어 백이, 숙제를 제사지냈다고 한다.

어진 것을 찾아 어진일을 실천했으니
만고의 맑은 바람 고죽국이요
몹쓸 것으로 몹쓸 것을 바꿨다하니
천추의 의로운 절개는 수양산이로다



이제정(夷濟井)

◎ 계주 독락사(獨樂寺)

독락사는 근처에서 보기 드문 천년 고찰이다. 독락사에는 나무로 된 존불이 있다. 들어서니 천장이 하나로 통한 2층 건물인데 나무로 된 불상으로는 세계 최고이다.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가면 불상도 보고 밖으로 나가 독락사 경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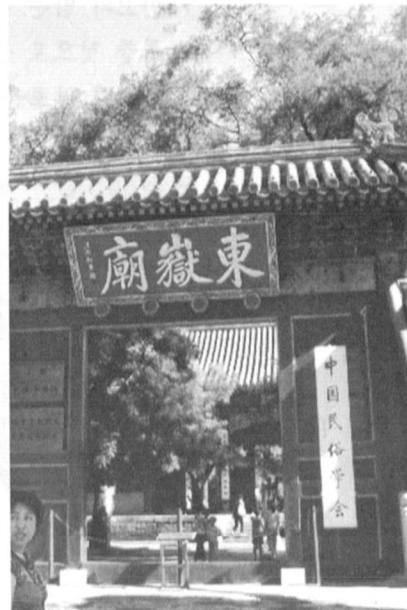
계주 독락사

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고목을 타고 오르는 능소화의 경치가 또한 일품이다. 연암일행이 왔을때도 거의 그대로의 모습이었던 듯 하다. 그 경관이 가히 불타의 세계에 올라 인간세상을 내려다 보는듯하다.

● 동악묘(東嶽廟)

사신들이 북경으로 입성하기 전 둘러보고 옷도 바꿔 입던 곳이 도교 신들을 모신 동악묘이다. 이곳은 북경의 정동쪽에 해당하는데, 이곳을 나가면 북경으로 들어서게 된다. 원나라 인종(고려 충숙왕)때 세웠는데, 명나라 영종(조선 세종조)때 확장하였다. 청의 성종이 재건하였으며, 뒤이은 세종 옹정제와 고종 건륭제도 계속 수리케 하였다. 동악태제를 모셨던 승상 등 모습은 모두 원나라의 저명한 조각가 劉元이 만든 것으로 그 신묘함은 지금도 천하의 으뜸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동악묘 앞이 북경의 정동쪽에 있는 조양문으로서 담현홍대용의 [연기]에 “동악묘 밖에 이르니, 패루·채장·여정·시사가 성하여 하늘 아래에 이 같은 큰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으로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376間으로 되어있으며 ‘착한 일을 한 자는 회생의 즐거움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자는 형벌을 준다 운운~’ 하여놓았다. 사람의 일생을 관장하는 태산노군 등을 모신 사당으로, 설·추석 등의 민속명절이면 사람들이 와서 비는 사당이다.

정문 앞 동서남 3면 패루의 편액에 영진국조(永鎮國祚), 삼청상계(三清上界), 태허동천(太虛洞天)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강화에 가면 태허동천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말 일 것이다.



동악묘

● 北京(연경)

연행노정의 종착점 북경, 얼마나 많은 사연과 역사가 있는 곳인가. 북경 城

의 둘레는 40리이고 바둑판처럼 구획이 정리되어 있다. 아홉 개의 문이 나 있는데, 정남쪽에 있는 문은 정양문(正陽門), 동남쪽에 있는 문은 승문문(崇文門), 서남쪽에 있는 문은 선무문(宣武門), 정동쪽에 있는 문은 조양문(朝陽門), 동북쪽에 있는 문은 동직문(東直門), 정서쪽에 있는 문은 부성문(阜城門), 서북쪽에 있는 문은 서직문(西直門), 북서쪽에 있는 문은 덕승문(德勝門), 북동쪽에 있는 문은 정안문(定安門)이다.

황성안에 자금성이 있고, 그 둘레는 17리이다. 성벽은 블록을 칠을 했고, 누런 유리기와로 덮었다. 이 성의 서북쪽에 있는 문은 지안문(地安門), 남쪽에 있는 문은 천안문(天安門), 동쪽에 있는 문은 동안문(東安門), 서쪽에 있는 문은 서안문(西安門)이라 한다.



경산공원에서 내려다본 자금성



자금성

성을 빙 둘러 해자 역할을 하는 물이 있고, 왼쪽으로 태묘, 오른쪽으로 사직이 있다. 9문의 방향이 똑바르고 9개의 길이 곧게 나 있다. 오늘날 중국정부의 집회장소가 천안문인데 옛 이름을 그대로 쓴 것이다. 명나라의 마지막을 지켜본 승정제 자살목이 있는 경산공원이 자금성 바로 뒤에 있다.

● 옥하관(玉河館)

명나라때에는 우리 사신이 북경에 이르면 예부 근처에 있는 이 여관에서 묵었다. 순치(順治)초년부터 이 관을 짓고 우리 사신들을 거처하게 했다고 한다. 이관이 玉河의 곁에있기 때문에 옥하관이라고 하였다.

● 유리창(琉璃廠)

청나라 입관이후 북경에 이른 여행자들이 가장 좋아한 자리는 천주당과 유리창이었다.

유리창은 유리 기와와 벽돌을 굽는 곳이 있어 그렇게 불렸다. 기와를 구울 때는 껴리는 금기가 많아서 전속기술자도 먹을 것을 싸 가지고 들어갔으며 몇 달은 맘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 그 바깥의 거리는 온갖 점포가 들어서 있어 온갖 재화와 보물이 풍부하게 유통되었다. 초기에는 특히 서적을 취급하던 서점들이 많았는데, 지방에서 과거보려 올라온 유생들이 유숙하고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 근처에 문학가이며 역사명인이었던 기효람이 살던 집이 오늘날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그는 황제의 특명으로 북경에서만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고서를 수집하여 중국 삼천년의 전적들을 총 정리해 무려 8만권에 달하는 사고전서(四庫全書)를 편찬한다. 청나라 고증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던



담현이 둘렀던 유리창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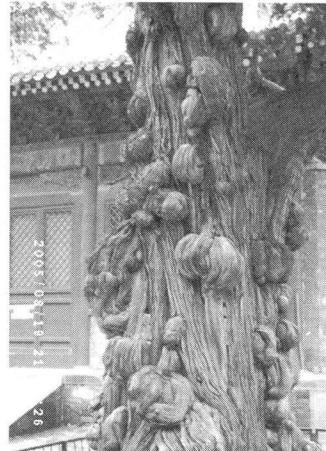


기효람 박물관

산실이다.¹⁵⁾

◎ 국자감(國子監) 거리

북경 동북쪽을 승교방(崇教坊)이라하고, 패루 네거리를 성현가(聖賢街)라 한다. 패루 안쪽이 국자감 거리인데, 회화나무들이 유생들처럼 길 양옆으로 서 있다. 인륜을 밝히고 인재를 기르는 태학과 그 뒤로 공자 및 그 제자들을 모신 사당이 있다. 청의 강희제가 쓴 [萬世師表]라 쓴 현판이 걸려있다.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 사당 뒤로는 공자의 13경을 새겨 넣은 이백여개가 넘는 비석의 숲인 비림(卑林)이 있다.



공자 사당옆 마당에 제자들처럼
매달려 있는 나무 모습

◎ 동천주당(東 天主堂)

서학과 천주교리가 들어오던 산실 천주당, 북경에 간 우리의 사신들은 모두들 제일 먼저 천주당을 구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너무 황홀하고 이해 할 수 없는 것 뿐이어서 도리어 괴이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기천사가 그려진 천장그림을 보



북경의 공자사당(만세사표)

고는 사람이 떨어질까봐 밑에서 바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하고, 높은 천장과, 유리벽화와 동천주당 남천주당의 아름다운 건축물은 오늘날 보아도 북경 미인으로 뽑히기에 천혀 손색이 없다.

관리인이 문을 열어 주어 성당안의 김창업, 홍대용 등의 사신들이 갔을때도 있었다는 오르간을 구경할수 있었다.

15) [북학의] 돌베개간안대희역 129쪽



동천주당



성당의 오르간

◎ 고 관상대(古 觀象臺)

북학파 사신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 한곳은 북경시내의 관상대이다. 자금성의 성보다 한 걸쯤 높이 쌓아올렸는데, 그곳에 올라가면 성안이 훤히 내려다보여 외국사신들은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었다. [북학의]의 저자 박제가나 홍대용들 소위 북학파 학자들은 그런 기구들을 땅에서 올려다보며 아쉬움을 달래며 돌아서야 했을 것이다.

오늘날 보아도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 이 들 정도로 규모며 단단함은 유지하고 있다.



고 관상대

◑ 열하! 잊지못할 피서산장(避暑山莊)¹⁶⁾

열하는 중국서 제일 큰 황가의 원림이요 행재소이다. 처음 지을 때는 채색이나 아로새김 없이 지어 피서산장이라 이름 지었으나 나중에는 점점 호화스러운 곳이 되어갔다. 연암일행은 고종이 여기로 피서를 와 있었기에 만수절에 맞추느라 고북구를 흐르는 강을 밤새 아홉 번이나 건너며 부랴부랴 열하로 간다. 북경에서 열하까지는 약 420여리가 된다. 그때 묘하게도 같은 시기 티벳의 반선 와 있었는데, 황제를 만나려면 그를 먼저 만나고 들어오라는 것이다. 유학의 사상만이 최고의 학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사신들은 라마교의 예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황제의 노여움을 사, 6일 만에 북경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피서산장의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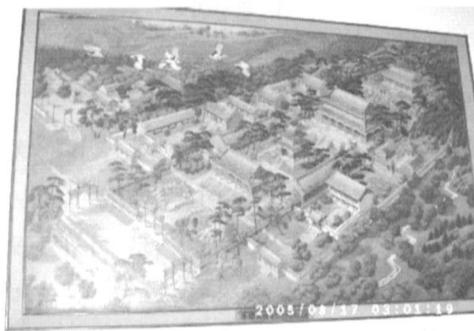
외팔묘중 「수미복수지묘」

그곳의 성 밖으로 있는 외팔¹⁷⁾ 廟는 다른 종교를 수용하려 지어 놓은 것인

16) 피서산장 강희42~건륭57년(1703~1792) 89년동안 지어졌다.

데, 대승이 사는 곳 이란 뜻의 찰십륜포, 그 옆에 지어진 폰탈라 궁, 청의 세력과 타민족의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다.

열하에도 장성 이북의 유일한 도서관이 있던 태학이 있다. 고종인 건륭황제는 이곳 열하에 공묘를 만들어 놓은 후 무려 열아홉 번이나 참배를 하였다. 공묘 사당 중 태산, 북경, 다음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어디보다 뒤지지 않았다. 지금은 일부 건물이 남아 중학교로 쓰여 지고 있다. 연암 일행은 그 근처의 숙소에서 묵었다는데 그곳을 알아내는 쾌거도 있었다. 그곳의 태학은 문화혁명 때 모양새를 잊었지만 도서관이 있던 자리가 남아있어 그때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다.



옛 열하의 태학

승덕은 한여름인데도 습도가 없고 초가을 날씨마냥 상쾌하다. 피서산장에 들어서면 궁의 크기와 정원을 꾸민 아름다움에 놀란다. 작은 돌을 붙인 정교함, 누구의 손이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일까. 궁을 보고 나와 창문이 없는 버스를 타고 열하의 산성을 오른다. 구름한점 없이 맑고 청명한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산아래 펼쳐진 외팔묘 건물들의 유리지붕을 더욱 빛나게 한다. 멀리 앞산에는 방망이를 거꾸로 세워놓은 듯 하다던 경추봉이 보인다.

상쾌한 기온과 피서산장내의 경관 등이 과연 황제의 행궁이 될 만 하였겠다. 그러나 고종은 피서의 목적도 있었지만, 그곳은 장성밖의 요새였고 북방의 몽고족이나 오랑캐가 침입해 올까봐 그곳으로 가 각국의 사신들을 불러들이는 고도의 정치술을 펼던 것이다. 이는 유목국가이던 원나라가 녹음이 우거지면 수도를 떠났다가 가을이면 돌아오던 이치를 따른 것이다. 문화수준이 낮

17) 외팔묘 피서산장 착공 10년후인 강희52~건륭54년(1713~1789) 76년동안 지어짐.
1994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았던 그들이 군사력만으로 정복국가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진문화와 종교까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통치술을 평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외팔묘중 수미복수지묘

2) 청나라 황제들

청나라 때는 기록에 나타나는 연행횟수는 위에서 본대로 497회나 되는 연행을 다녀왔다. 여기서 청나라 황제들의 순서를 잠깐 살피고 넘어가면 오늘날의 답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대 천명(天命) 태조고황제, 누루하치

1559생/ 1616(58세 등극)/ 1626崩(11년간 통치)

처음에는 국호를 후금이라 칭함. 30년후 북경으로 도읍을 옮김.

2대 천총승덕(天聰崇德) 태종문황제, 황태극

1592생/ 1627(35세 등극)/ 1643崩(17년간 통치)

1636년 국호를 청으로 바꿈. 그해 12월 우리나라를 쳐 들어옴(丙子胡亂)

3대 순치(順治) 세조장황제, 복림

1638생/ 1644(6세 등극)/ 1661崩(18년간 통치)

1645년 이자성 살해, 오삼계와 힘을 합쳐 삼번의 난 평정, 중국의 완전 통일, 몽고의 한족지배.

4대 강희(康熙) 성조인황제, 현엽

1654생/ 1662(8세 등극)/ 1722崩(61년간 통치)

강희52년부터 피서산장 착공, 8년후 피서산장이라 편액걸림.

5대 옹정(擁正) 세종현황제, 윤진

1678생/ 1723(45세 등극)/ 1735崩(13년간 통치)

6대 건륭(乾隆) 고종순황제, 홍력

1711생/ 1736(25세 등극)/ 1795崩(60년, 4년간 상왕으로 통치)

十全老人, 조부 강희대제보다 황제의 자리에 더 있을 수 없다며 60년 되던 해에 물러나 4년 동안 상왕으로 머뭄.

7대 가경(嘉慶) 인종예황제 옹염

1760생/ 1796(37세 등극)/ 1820崩(25년간 통치)

8대 도광(道光) 선종성황제, 민녕

1782생/ 1821(39세 등극)/ 1850崩(30년간 통치)

9대 함풍(咸豐) 문종현황제, 혁저

1831생/ 1851(20세 등극)/ 1861崩(11년간 통치)

서태후, 함풍과의 사이에 아들 동치를 나아 신분상승.

서태후 별장이라는 [이화원] 지음.

10대 동치(同治) 목종의황제, 재순

1856생/ 1862(6세 등극)/ 1874崩(13년간 통치)

19세로 죽어 모후 섭정 시작됨.

서태후 중국의 격동기를 겪는 50여년을 철권 통치함.

11대 광서(光緒) 덕종경황제, 재첨

1871생/ 1875(4세등극)/ 1908崩(34년간 통치)

12대 선통(宣統) 황제, 부의-

1906생/ 1909(3세등극)/ 1911(3년 통치)

이후 중국은 원세개가 황제로 자처하며, 황제복장을 입고 땅에 묻혔음.

3) 燕行길에 만나는 글

호풍음우가(胡風陰雨歌)

- 봉림대군(효종)-

청석령 지나거나 초하구(草河溝) 어디메오
호풍도 차도찰사 궂은비는 무슨일고
아무나 내 행색 그려내어 임 계신데 드리고자.

안시성(安市城)

- 추사 김정희 -

묶어 세운 뜻 봉우리 들은 넓어 평퍼지고
거탁(車鐸)은 짤렁짤렁 한 벌을 지나가네
성위에는 이제껏 당나라 시대 달이
반분은 이지러져 남은 빛을 비추누나

태자하(太子河)

- 채제공 -

어느 나란들 망하지 않으며/ 어느 뉴군들 죽지 않을 수 있으리
한번 망함이 한스러움이 아니며/ 한번 죽음도 슬픔이 아니다.
사람들은 태자 단(丹)이 화를 불렀다하나/
나는 단이 통쾌한 일을 했다 말하리
황금 호랑이로 천하를 포효했고/ 아방궁을 감히 올려다 보았네

영원위(寧遠衛)

- 허균(선조) -

채찍비껴 말 달리어 긴 언덕에 내닫는다.
서로만난 소년들 의가 양양하구나
집두루막 벗어주고 좋은 술을 많이 사서
청류에 머물러라 여랑 노래 부르누나

산해관기(山海關記)

- 김경선 -

요순의 시대부터 태평하게 살았는데 / 진시황은 어인일로 백성을 괴롭혔다
재화가 소장에서 일어남을 모르고 / 첫되어 방호한다 만리장성 쌓았구려

두 눈에서 지워지지 않는 봉황산(鳳凰山)

- 이 색 -

안시성 싸움과 양만춘 장군,
연개소문과 당태종 설인귀의 대결
주머니 속 물건이라 우습게 여겼건만
눈에 화살 맞을 줄 어떻게 알았으랴.

나빙이 박제가에게 매화 한폭을 그려주며 써준 詩 한 수

겨우 두 번 그대와 만났었는데
생각해도 이제 그댄 떠나고 없네
우리사이 길 뜻을 한하지 않고
그대 흘연 떠나감을 한탄 한다오
뜻 잠결에 그대를 만났었는데
서두르며 몇 마디 이야기 했오

삼천리 밖 조선사람 이렇게 만났으니
아사 만남 혼쾌하여 그 모습 그렸다오
사랑스런 그대 운치 어디에다 전줄거나
매화의 화신임을 분명히 알겠구나
어인일로 그대와는 보자마자 친해졌다
떠난단 말 흘연듣고 인생괴롭 말했다오

모르겠네, 그대도 꿈을 꾸면서
혹시 나를 만나지 않았던가요.

이제부턴 아사라도 담박하게 대하리라
이별의 아픈 마음 정신 가장 슬프나니

박제기¹⁸⁾가 나빙에게 편지로 부친 詩

- 1790년 연경에 다녀옴 -

누런 주렴 선방의 독서성을 떠 올리니
꿈결에도 매화는 눈에 환히 비치누나
수레 오른 오늘 마음 시원치 아니함은
보내주신 시구에 이별의 정 읊려서라.

가난했던 박제기는 책이든 서화든 변변하게 사지 못했으나 나빙을 비롯한
북경의 문사들에게 받은 시가 들어있었고, 돌아와 잠을 잘 때도 나빙이 그려준
매화가 그 곁에서 늘 함께 했던가보다. 그런 그리운 정을 시로 적어 보낸 답시
이다.

일야구도하기(一夜具渡河記)

- 박지원(정조때인 1780년 다녀옴) -

“요동은 들판이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강물이 울부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요하도 늘 울부짖는다. 밤에 강을 건너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
이다. 낮에 건널 땐 눈으로 위험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 신경이 눈으로
쏠리게 되고, 몸도 마음도 눈이 보는 위험한 상황에 따라 두려워하고 겁내기 마련
이다. 이러니 어느 계를에 물소리에 신경이 써지겠는가? 낮에는 울부짖는 강물 소
리를 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

나는 지금 한밤중에 강물을 건넜다. 그러므로 눈으로 위험한 상황을 볼 수 없었
다. 따라서 위험은 들리는 소리에 집중되었고, 그 소리는 걸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이제야 도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보고

18) 1778년 처음 연경 다녀옴. 정사채제공 이덕무와 전릉제8순절-유득공, 이희경 1801년 유득공과 연경
세 번째 다녀옴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보고 듣는데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보고 드리는 것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것이 도리어 병통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말안장 위에 다리를 오그리고 올라앉았다. 아차 한번 떨어지는 날엔 하수의 고기밥이 되는 판이다. 그러나 나는 하수 물을 땅인 것처럼, 내 옷인 것처럼, 내 몸인 것처럼, 내 성정인 것처럼 여기고 태연했더니, 드디어 무서움은 사라지고 거센 물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 아홉 번 강물을 건넜는데도 의자위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만주에 가서 물어보라 그들은 그것을 자기네 것이라 할것이 아닌가. 제 나라를 지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평안하 마음으로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압록강은 우리를 죄로 정하는 고소장이라 한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타하지 못한 역사적 책임. 깨져나간 역사적 비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주먹을 쥐고 결심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압록강을 가자, 가서 새 역사의 약속을 듣자, 새 약속을 믿어서만 묵은 죄를 면할 것이다.

– 함석헌의 압록강 –

사실도 기억(기록)하지 않으면 부재가 되고,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라고 자꾸 기억하게 되면 실재가 된다. 천년 전, 천년 뒤를 생각해본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이 호산장성은 천년 뒤엔 정말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될는지 모른다. “분명히 기억하고, 또 기록해라.” 눈을 감으면 압록강의 물결소리가, 눈을 뜨면 멀리 통군정의 표정이 그렇게 말한다.

– 이승수. 한양대학교교수 –

4. 맷는말

길은 우리 인류에게 익숙한 단어이자 우리 사는 모든 것은 길을 통해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여행, 학습, 정보, 명예, 출세, 그 모든 것이 길을 통해 시작되고 열린다면, 국가는 관광, 외교, 수교, 축하사절단들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조선 오백년의 역사는 우리만의 아픔이자 어쩔수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특기할 만한 행로가 있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걷는 일중 우리 나라는 소위 대국이라는 중국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녀와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 의식이 바로 의주로를 통해서 가야하고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동양의 최대강국인 중국을 섬기면서 다른 주변국가들과 회유정

책을 써서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우리나라 국가의 대사는 중국의 지시와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국가를 대표해서 사신들이 중국을 다녀와야 했다. 그런 그들이 지나는 길로서는 海路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의주로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연과 이야기 껴리와 애환이 남아 있는 그들이 오가며 느끼고 보았을 길을 한번 되짚어보았다. 우리가 어쩔수없이 그런 일을 해야 했드시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어버린 현장이고, 그런 역사도 지명으로만 남아있는 곳,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버린 곳들도 많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모양과 쓰임새가 바뀌고 변하고 있어 이 세상에 영원한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 그래도 한번쯤 알고는 넘어가야한다. 왜냐하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 역사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연행노정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아니 만났다기 보다 역사속의 그들과 함께 걸어 보았다. 그들이 지나갔다면 연행록상에서 들었던 지역을 지날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회가 밀려왔다. 이제 힘으로는 우리의 땅이었던 곳을 찾아 올 수는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 문화로 역사로 우리것을 찾고 지키는 일만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런 길에서 더 넓은 무엇인가를 보고와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삶을 열게 해주는데 목표를 두었던 사람들, 그 길에서 우리라는 공감대 의식하나만으로도 연행길의 여정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여느 길과 다르다는걸 느끼게 된다. 그런 길이 내가 살고있는 파주를 지나가고 있으니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할 수 없는 소중함으로 다가온다. 우리의 땅을 두고 천리를 돌아 몇 배나 더 먼 길을 가야 그 연행길도 밟아 볼수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말해야한단 말인가.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시점에서 다녀온 연행길, 그 길에 남겨진 그리움들, 소중한 기억이었으니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한중연행노정답사연구회 cafe. daum.net/chinaview 및 2005 국내외 燕行露呈 답사자료집.

- 임기중 著 [연행록연구] 일지사 2002
- 최혜숙 著 [高麗時代 南京研究] 경인문화사 2004

문경새재박물관 著 [길위의 역사, 고개의 문화] 실천문화사 2002
이윤희 著 [파주역사문화기행] 파주문화원 2003.
이해웅 著 계산기정 민족문화추진회 1803
박제가 저 [北學議] 돌베개간
<http://www.naver.com> 자유촌.

감악산 설인귀 설화 고찰

이기형*

1. 들어가는 말
2. 역사속의 설인귀
3. 설인귀 설화의 유형과 의미
4. 설화와 소설 「설인귀전」의 상관성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민중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는 이야기에는 민중들의 집단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민족의 범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그 민족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으며, 지역적 범위로 전승되는 이야기에는 지역민 고유의 사고와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증거물이 존재하는 전설에는 지역의 역사적 자취가 배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중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는 이야기를 단순한 흥미거리와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속에는 엄연한 역사적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870년경에 호머에 심취했던 실리이만이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하게 된 계기도 지역에 전승되던 전설을 통해서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도 비슷하다. 얼마 전, 고고학계에서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남아있던 기록을 근거로 천여 년 동안 묻혀있던 한강 유역의 고구려나 백제의 유적을 발견하였다. KBS 역사 스페셜을 통해 방영되기도 한 이러한 성과는 그 지역에 전승되던 지명설화나 전설에도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과거의 기록이나 민중들에게 전승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역사를 복원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 연구위원

도 한다.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파주에는 특이하게도 당나라 장수였던 설인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설인귀는 신라와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까지 넘보던 당나라의 장수이다. 설인귀는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통일을 방해한 적장으로 지탄받아야 할 인물이다. 그럼에도 파주 감악산 주변에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심지어 산신으로까지 모셔지고 있는 것은 어찌된 까닭일까? 또 조선 후기에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던 소설 설인귀전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지리적으로 파주는 고려 왕조가 도읍한 개성과 이성계에 의해 도읍한 한양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고려와 조선 이전에도 파주는 남과 북을 경계로 하는 임진강을 안고 있어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의 각축장으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파주는 고려 왕조가 신성시했던 오악(五嶽) 중의 하나인 감악산(紺岳山)이 자리하고 있어 민속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곳 적성면 감악산 주변 여러 지역에는 설인귀와 관련된 지명전설과 서사성을 지닌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감악산의 정상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비(碑)가 서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설인귀비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곳에 설인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인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 글에서는 파주 지역에 전승되는 설인귀 설화의 유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떠한 이유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 침입에 앞장을 선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이야기가 이 지역에 전승되는가, 산신으로까지 모셔지고 섬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인귀비에 담긴 뜻은 무엇이며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먼저 한중 역사서에 설인귀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탐색해본다. 한중 설화에는 설인귀가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파주 지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살펴 역사와 이야기의 간극을 좁혀볼 가능성을 탐색해볼 것이다. 또 조선 후기, 여러 종류의 독서물로 출간이 되어 많은 독자층을 이루었던 소설 「설인귀전」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설인귀 설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영향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이 글은 역사적 기록과 전승되는 이야기,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추

론의 성격을 떠므로 역사학계의 해석과는 다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2. 역사 속의 설인귀

역사서에 의하면 설인귀(613~682)는 중국 강주 용문 출신으로 고구려 보장왕 4년(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할 때 군졸로 투군(投軍), 안시성 싸움에서 공을 세워 유격장군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이후 655년 영주 도독 정명진 좌우위중랑장 소장방과 고구려 적봉진을 공격하여 보장왕 17년(658년) 우령 군중랑장으로 승진하였고 이세적과 육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였으나 횡산(횡산)에서 패전하였다. 보장왕 25년(666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남생과 남건이 내분을 일으켜 장남 남생이 당나라로 망명하여 신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설인귀는 좌무위장으로 요동안무대사 계필 하력(契苾何力)을 도와 고구려를 침입하여 남건의 군사를 물리치고 보장왕 27년(668년) 고구려의 항복을 받았다. 이후 설인귀는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호부의 총독이 되어 고구려를 통치하였다.

설인귀는 계림도행군총관으로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풍성강, 금강 하류 기벌포(伎伐浦)에서 패전하였다. 681년 과주자사(瓜州刺史) · 대주도독(代州都督)으로 임명되었으며, 다음해 돌궐을 격파했다. 뒤에 본위대장군(本衛大將軍)으로 임명되고 평양군공(平陽郡公)에 봉해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설인귀는 당나라에서는 용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한민족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통일을 방해한 적장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파주시 감악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전해오는 설화를 통해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감악산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파주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 당나라 장수인 설인귀 설화가 감악산 인근에 전승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파주 적성의 감악산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주시 적성(積城)은 원래 고구려 칠중현(七重縣)¹⁾으로 신라 경덕왕 때 중성현으로 개칭하고 고려 때 적성현이라 고쳤다.²⁾ 이 곳에는 칠중성이 있는데

1) 김부식, 「삼국사기」 권37, 잡지6 ; 한국학문현연구소 편, 「邑誌」 경기도①, 아세아문화사, 1985, 119쪽.

2) 파주군 편, 「坡州郡誌」 中, 1995, 제3편 지명유래 12장 積城面 참조.

토탄성(吐呑城)이라고도 불리워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에는 “토탄고성(吐呑古城) 일명(一名) 성산(城山)”이라 되어 있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토탄성(吐呑城) 금칭중성(今稱重城)”이라 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토탄고성(吐呑古城) 일명(一名) 성산(城山) 재현서삼리(在縣西三里) 군고칠중성(郡古七重城)이라 되어 있다. 적성의 다른 이름 즉 ‘토탄(吐呑)’이란 말 그대로 ‘토하고 삼키는’, 즉 ‘뺏기고 빼앗는’ 삼국시대 이래 격전장으로서의 의미가³⁾, 성산(城山)이나 중성(重城), 칠중성(七重城)이란 명칭 또한 모두 격전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적성 지역 민중들은 한 세력이 아니라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때에 따라 서로 다른 힘에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은 이곳 민중들이 국가라는 정치적 힘보다는 지역적인 세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적성 감악산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제를 지내는 신산(神山)이었다.⁴⁾ 고려조에는 오악(五岳 : 송악, 감악, 운악, 북악, 관악)의 하나로 신성시 되었다. 감악산에 대한 기록은 조선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많은 기록이 설인귀와 연관을 맺고 있다.

가. 명산은 감악(紺岳)이다. 현 동쪽에 있으니 신라 때부터 소사(小祀)를 삼았다. 산 위에 사당이 있으니 봄 가을에 나라에서 향축(香祝)을 내리어 제사를 지낸다. 현종 5년 갑인에 거란(契丹)군사가 장단에 이르니, 감악(紺岳) 신사(神祠)에서 정기(旌旗)와 군사와 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거란 군사가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였으므로 나라에서 명하여 사당을 수리하고 제사를 지내어 보답했다. 세상에 전하기를 “신라 사람이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제사 지내어 산신으로 삼았다.”고 한다.⁵⁾

나. 권남이 병들면서부터 오랫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송악(松岳)에 기도하러 집을 다 비우고 가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 드디어 감악(紺岳)에 기도하는데, 마침 풍우(風雨)가 있으니, 세상에서 전하기를, 감악 산신(紺岳山神)은 곧 당(唐)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라고 하므로 권남이 신(神)에게 말하기를,

3) 洪再善, 橫城 七重城 調査 略報, 「佛教美術」 7, 東國大博物館, 1983, 22쪽.

4) 김부식, 「삼국사기」 잡지 제사부.

5) 「조선왕조실록」 1권 세종 148 자리지 경기 양주 도호부 / 적성현

“신(神)은 당(唐)나라 장수이고, 나는 일구(一國)의 재상(宰相)이니, 비록 선후(先後)가 같지 않더라도 세(勢)는 서로 비슷한데, 어찌 서로 군박(窘迫)하게 굴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였다. 무당이 신어(神語)를 하는데, 노(怒)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감히 나와 서로 벼티는데 돌아가면 병이 날 것이다.”

하니, 그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었다.⁶⁾

다. 『신동구여지승람』 제11권 적성현편

감악사(감악사(紺岳寺) : 항간에 전해 오기는 “신라에서 당나라 장수 설인귀(薛仁貴)를 산신(山神)으로 삼았다.” 한다. 본조에서도 명산으로 중사(中祀)에 기재하고, 봄 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서 제사한다.⁷⁾

가~다의 공통점은 감악산은 신령스런 산으로 국가에서 제를 올리는 신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신사에는 당나라 장수인 설인귀가 산신으로 무당들에 의해 모셔지고 있었으며, 산신으로 섬김을 받는 설인귀는 거란 군사들이 두려워 할 정도로 영힘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감악산은 설인귀와 깊은 인연이 있으며, 신으로 좌정하여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감악산의 신사와 설인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감악산 신당의 제청을 고쳐 짓는데 수군이 140여 일의 역사를 하였다 는 연산조 기록⁸⁾이나 중종 이후의 많은 왕들이 감악산에서 기도와 기우제를 드렸다는 기록에서 감악산을 신령스럽게 대한 당시 조정이나 민중들의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설인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설인귀에 대한 기록은 삼국통일의 과정에서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보장왕 11년(652년)에서 신라 문무왕 16년(676)까지 여덟 차례 설인귀에 대한 기록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설인귀는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장수로 고구려를 공격하는 시기와 신라가 당나라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국사기』의 설인귀는 고구려

6) 『조선왕조실록』 1권 세조 034 10/09/02(임자)

7) 고전국역총서 41, 『신동국여지승람』 II, 민족문화추진회 편, 317쪽.

8) 『조선왕조실록』 연산 036/06/02/12(병신)

정복에는 많은 전공을 세우는 인물이지만, 신라와의 싸움에서는 승패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설인귀에 대한 초기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 보장왕 4년 때이다.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여 건안성, 개모성, 비상성,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안시성을 공격할 때 설인귀가 등장한다.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의 장수 연수 등이 이세적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맞서 싸우려 할 때 당나라 설인귀가 이상한 복장으로 고함치면서 우리 진으로 돌진하니 감히 대적하는 자가 없었고 우리 군사가 쓰러져 죽기 시작했다⁹⁾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진', '우리 군사' 란 표현은 한국 민중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설인귀의 모습은 중국의 기록과 매우 유사하여 우리 나라 민중의 시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설인귀에 대한 중국의 역사 기록은 『구당서(舊唐書)』 권 83·열전 제33과 『신당서(新唐書)』 권 111·열전 제36, 설인귀전, 『자치통감(資治通鑑)』(唐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인귀의 출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어느 사서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설인귀는 당나라의 무장(武將)이었던 설안도(薛安都)의 육세 손으로 이름은례(禮)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⁰⁾ 또 『신당서』 열전 제36·설인귀전 첫 부분에도 약간의 기록이 나타난다.

설인귀는 강주 용문인(絳州龍門人)이다.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농사로 업을 삼았다. 장차 부친의 산소를 옮기려 하는데 쳐 유씨가 말했다. 나리께서는 세상을 떠나 재주를 가지고 계시지만 때를 만나야 비로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자께서는 친히 요동을 정벌하려고, 용장을 구한다는데 이는 얻기 힘든 기회입니다. 나리께서는 어찌 공명을 도모함으로써 스스로 명성을 얻지 않으시렵니까? 금의환향한 다음에 산소를 옮겨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인귀는 장군 장사귀를 찾아가 응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송(宋)나라의 주변(朱辯)은 “『신당서』에 기재된 일은 구당서의 배로 모두 소설에서 취한 것들이다. … 중략… 나는 사관들에게, 만약 별다른 이야기를 넓히고자 한다면 마땅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들은 바를 모아서 기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9) 『삼국사기』 권21 「고구려 본기 제9」 보장왕 상

10)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 14·태종 정관 19년 하, 6226쪽, “薛貴, 安都之六世孫, 名禮, 以字行”.

는¹¹⁾ 기록을 남겼다. 이로 볼 때, 설인귀가 당나라 무장이었던 설안도(薛安都)의 후손이라거나, 강주 용문현 사람이라는 사실은 역사적 객관성을 떤 기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설인귀의 활약상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 태종 정관 19년(645년) 당태종은 요동에서 출발하여 고구려 말갈병이 지키는 안시성을 공격했다. 이때 용문인 설인귀는 이상한 옷을 입고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진을 함락시키자 행하는 곳에 대적할 자가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이 무너져 흩어지자 대군들이 이를 덮쳐 고구려 군사들은 크게 패하여 죽은 자가 이만여 명이었다. 태종은 인귀를 바라보고서 불러 유격장군(遊擊將軍)에 임명했다.¹²⁾ 『자치통감(資治通鑑)』의 이러한 기록은 앞에서 살펴본 『삼국사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의 기록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자치통감(資治通鑑)』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신라와의 전쟁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 외에 설인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역사적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전승되는 중국의 『신·구당서』나 『자치통감』에 기록된 이야기는 대부분 민간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바탕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3. 설인귀 설화의 유형과 의미

설인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역사적 사서보다는 민간에 전승되는 유형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다. 적성 인근 지역에 전승되는 설인귀에 대한 설화는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설인귀와 관련된 지명유래¹³⁾

⑤ 마지리(馬智里) : 적성군 서면 지역으로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주월리에

11) 朱辯, 「曲洧舊聞」卷9 〈凡史官記事所因者有西〉條下, “新唐書載事倍於舊, 皆取小說 … 予謂史官欲廣異聞者, 當聽人聚錄所聞見”.

12) 『자치통감(資治通鑑)』 6223~6226쪽.

13) 『坡州郡誌』 中 문화재와 민속, 파주군, 1995. 제3편 지명 유래 참고.

서 태어나 장성하여 용마와 갑옷, 투구, 칼을 얻은 후 적성 일대에서 훈련하였다. 그의 말발굽이 마지리를 가장 많이 지나갔다고 하여 마제리(馬蹄里)하고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마지리가 되었다.

- ㉡ 무건리(武健里) : 설인귀가 이곳 산골짜기에서 무술을 연마한 곳이다.
- ㉢ 설마리(雪馬里) : 적성군 동쪽 지역으로 설인귀가 칠중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말을 달려 훈련했으므로 설마치(薛馬馳), 또는 설인귀가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인 상봉을 거쳐 감악산봉으로 말을 달려 무예를 쌓았다고 하여 설마리(雪馬里)라 한다.
- ㉣ 말굽두리 : 설인귀가 주월리에서 이곳으로 말을 타고 달릴 때 말굽소리가 요란스럽게 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 백옥봉 집터 : 백옥봉 밑에 있는 집터. 인조 때 지사 이의신의 〈踏山賦〉에 “땅을 파다가 한 개의 비를 얻으니 곧 설가의 옛 터(得一碑於開土乃薛家之遺址)¹⁴⁾라 하였다. 고구려 때 설인귀가 이곳에서 태어나 당나라에서 장가 되어 모국을 친 죄를 자책하여 죽어서 감악산 산신이 되어 나라를 지켜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명 유래는 일정 지역의 명칭이 생기게 된 유래를 설명하는 것이다. 적성 지역의 지명들에서 설인귀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⑤백옥봉의 설인귀 집터에 대한 기록은 제법 사실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감악산 주변 적성면 일대의 지명 유래는 『삼국사기』나 중국의 사서에 비해 훨씬 구체성을 띤 것들이다. 또한 설인귀가 1400여 년 전의 당나라 장수였음에도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지명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믿고 있다. 위에 제시한 지명 외에도 여만리, 밤재, 놀노리 새말 등의 지명도 설인귀와 관계된 지명이다.

별판인데 임진강변에 별판인데 백옥봉이 암전하게 오똑 섰거든. 인계 거 밑에서 자란 사람이 설인귀야. …중략… 여기서 우리가 듣기는 설인귀 장사가, 설인귀라는 장사가 저짝 사기막이란 데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든 있어요, 거기. 서쪽 올라가든 설인귀 굴이 거기 있는데 …중략… 그 양반이 거기 가서 공불 했대요. …중략… 그 양반이 설마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공불 많이 하시구, 도를 닦으시구 …중략… 그 양반이 설마리란 데가 있어요. 설마

14) 한국학분한연구소 편, 『邑誌』 경기도(1), 아세아문화사, 1985, 323쪽.

릴 내려오니까 말이 나왔대는 거야요. …중략… 거기 오는 도중에 여만리라는 데를 오니깐 옛을 고려래, 옛. …중략… 밥재라는 데가 또 있는데 곳에서 고 밑에 밥재라는 곳에서 밥을 자셨대는 거야. 밥재라는 곳에서 밥을 자시군 늘 노리라는 데서 놀다 가셨대는 거야. …중략… 거기서 짜끔 더 내려가쁜 새말 이. 그 말은 얼루 가버리구. 그 말이 큰 게 또 다시 나왔대요. …중략… 여기저 기 설마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밥재루 해서 나와 땅긴 설인귀 굴이 있구. …중 락… 객현리 농부가 밭을 가는데 거기서 갑옷이 나왔어. …중략… 무건리라는 데는 그 양반이 말 타구 훈련한 데구.¹⁵⁾

설인귀에 대한 지명 설화의 특징은 출생에서부터 성장하여 무예를 연마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적성군지』 고려조에는 설인귀가 육계토성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설인귀를 설인귀의 출생에 대한 중국 기록은 단지 용문에서 출생했다는 것만 존재한다. 이에 비해서 적성 지역의 지명유래는 출생과 생활환경, 행동반경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설인귀와 관계된 지명은 중국에서도 여러 곳이 있다. 주로 당태종과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싸움을 했던 중국 봉천성(奉天省) 지역의 ‘어니하(御泥河), 압강석(壓韁石), 장군동(藏軍洞), 고려성(高麗城)’ 등이 그 곳이다. ‘어니하(御泥河)’는 중국 봉천성(奉天省) 심양현(瀋陽縣) 심양 서쪽 20에 있는 강이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친정(親征)할 때 이 강에서 연개개문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데, 설인귀가 와서 어가(御駕)를 구해주었다고 해서 어니(淤泥)를 어니(御泥)라고 바꾸었다. 압강석(壓韁石)은 봉천성 요양현(遼陽縣) 요동(遼東)의 동남 예가대촌(倪家臺村)의 북쪽에 있는 큰 돌로 설인귀의 다른 이름인 설례가 돌을 사용하여 말고삐를 죄었다는 곳이다. 장군동(藏軍洞)은 봉천성 개평현(蓋平縣)에서 동북으로 40리 떨어진 호로욕(葫蘆峪)에 있는 골짜기로 설례가 요동 정벌시 고구려 기병에게 몰리자 군사를 감추었다고 하는 곳이다. 또 고려성(高麗城)은 설인귀의 정동(征東) 때에 지어진, 둘레가 1리 남짓 되는 성이다.

적성에 남아있는 지명 유래나 설화가 출생부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데 비해 중국에 전해지는 지명 설화는 모두 설인귀가 투군(投軍)하여 전쟁할 때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중국의 지명설화보다는

15) 이기형, 「한국구전설화집」 11 고양 · 파주편, 민속원, 2005. 283~285쪽.

설인귀에 대한 지명 유래는 ‘조희웅 노영근 · 임주영, 『경기북부구전자료집』 I, 박이정,’ 에서도 조사되어 있다.

적성에 전승되는 이야기들이 설인귀가 출생에 대한 진실이 담겨있다고 판단된다.

2) 설인귀의 초인적 능력

앞의 기록이 설인귀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지명 유래에 비해 양주시 남면의 허영이(남·69세)가 들려준 이야기는 비교적 서사성을 갖추고 있다. 설인귀에 대한 허영이의 이야기는 설인귀의 초인적 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⑦ 설인귀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산 구석에 사는 고모에게 엎혀살았다.
- ⑧ 나이가 차 고모가 설인귀에게 소 두 마리로 산비탈 밭을 갈게 했다.
- ⑨ 점심 때 고모가 밥을 이고 올라가보니 소는 나무에 매어두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 ⑩ 깨워 밥을 먹이고 두어 시간 두에 다시 올라가 보니 소는 그냥 나무에 매어있었다.
- ⑪ 설인귀가 양밭에 보습을 끼우고 혼자서 삽시간에 밭을 갈아버렸다.
- ⑫ 설인귀가 장사라는 것을 눈치 챘 고모가 먹을 것을 마련해주었다.
- ⑬ 설인귀는 돼지 한 마리, 한 말 밥, 술 한 동이를 삽시간에 먹어버렸다.
- ⑭ 밥을 먹고는 집을 떠나 굴에 들어가 도를 닦아 장사가 되어 떠났다.¹⁶⁾

이 이야기의 초점은 설인귀의 영웅성에 있다. 소 두 마리가 종일 갈아야 하는 산비탈 밭을 두 밭에다 보습을 달고 삽시간에 갈았다는 것이나 한 끼에 돼지 한 마리와 한 말 밥, 술 한 동이를 먹었다는 것은 설인귀의 초인적 힘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초인적 힘을 지녔던 설인귀는 가난으로 에너지의 근원인 밥을 먹지 못하게 된다. 설인귀는 밭가는 일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고 고모는 충분한 먹을 것을 주어 그의 능력을 확인하고 있다. 결국 평민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가난이라는 경제적 환경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없기에 설인귀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6) 양주시, 「양주 상여와 회다지 소리 빛 양주 소놀이굿 활성화 방안」, 2004, 341~344쪽.

화자 허영이는 어린 시절 감악산 중턱에서 숯을 구워 파는 부친과 함께 살며 동네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적성 지역 사람들은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여 고담을 주고받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이야기 소재가 설인귀였고, 설인귀 이야기를 모르는 이 지역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지역 사람들은 설인귀가 당나라 장수라는 것은 모른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화자조차 설인귀가 장수였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국적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설인귀는 왜 당나라 장수가 되었는가? 적성 지역은 지명에서 보듯이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자주 지배세력이 바뀌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 주민에게 국가 개념의 통치세력보다는 삶의 문제 즉 생존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결국 설인귀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당나라와 고구려의 분쟁이라는 환경에서 찾았을 것이며 자신의 초인적 능력을 인정해준 당태종의 휘하에 들어가 영웅성을 발휘했을 것이다. 당의 고구려 정벌 후 평양에 설치된 안동도호부의 총독이 된 설인귀는 자기 출생 지역인 적성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베풀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 지역 주민에게 설인귀는 평민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로 각인되고 당연히 신과 같은 존재로 숭앙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3) 감악산의 설인귀 비에 대한 의문

허영이의 이야기에는 설인귀 굴과 빗돌비석 설화가 포함되어 있다. 설인귀 굴은 설인귀가 무예를 닦았다고 하는 곳으로 감악산 정상 부근에 있다. 이 굴은 조선 중기의 이름난 도적 임꺽정이 숨어 지냈다고 해서 임꺽정 굴이라고도 한다. 빗돌비석은 감악산 정상에 있는 문자 없는 비석이다. 문자가 없는 이 비(碑)를 주민들은 '비돌대왕비, 빗돌대왕비' 등으로 부르며 신성시하고 있다. 『적성군지』 고려조에 이의신이라는 사람이 이 비석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이나, 오래 되어 글자가 마멸되어 있는 감악사의 신단이 있고 그 곁에 설인귀 사당이 있는데 왕신사 또는 음사라고 기록한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 등으로 볼 때 신라 때부터 이 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비석을 만들어 산 정상에 운반한 과정에 대한 설화도 전해지고

있어 흥미롭다.

사람들이 설인귀 비석을 만들어 놓고는 운반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아래 동네 소를 맨 아홉 집 사람에게 혼몽을 해서 내일 소를 부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소 주인들이 응낙을 하고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소의 몸이 땀에 젖어 있고 비석은 산 정상에 옮겨져 있었다.¹⁷⁾



감악산 정성에 있는 설인귀 비

이 이야기에는 설인귀 비석이라는 것 외에 비 자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고 단순히 비를 감악산 정상으로 옮기는 과정의 신이함만이 담겨있다. 때문에 이 비가 설인귀와 관련된 비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가 설인귀 비라고 믿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이다. 이 비는 적성 지역에 베푼 설인귀의 공덕을 기리는 일종의 선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던 것이 이 지역 무당들이 설인귀를 신으로 섬기면서 신성(神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감악산 정상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무문비인가? 그것이 몇 가지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다. 첫째 본래는 문자가 있었지만 오랜 세월 풍우에 시달려 문자가 마멸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은 동일한 시대에 만들어진 다른 비석에서는 문자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둘째는 자식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석이나 석상 등의 자연물을 갈아 먹는 민간의 기자(祈子) 풍속에 의해 마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설인귀는 이 지역 주민에게는 위대한 영웅으로 숭앙받는 신과 같은 대상이다. 따라서 뛰어난 자식을 낳으려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 때문에 설인귀 비석의 문자가 마멸되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본

17) 앞의 책 357~359쪽.

래부터 문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설인귀는 당나라에는 영웅이지만 한민족에게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신라의 통일을 방해한 인물이다. 때문에 설인귀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승상을 신라 왕조가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왕조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든 이 지역주민들에게 설인귀는 영웅으로 인식되었기에 오해를 피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문자를 새기지 않는 비를 세웠을 것이다.¹⁸⁾

살펴본 바와 같이 적성면 감악산 주변에는 설인귀의 출생과 성장, 무예 수련 과정에 얹힌 지명 유래, 설인귀의 초인적 힘, 설인귀와 관련된 비석에 대한 설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설인귀 설화에 대해 거의 알고 있으며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도 않고 있다.

4. 설화와 소설 「설인귀전」의 상관성

설인귀는 중국에서 실존했던 인물이며 당태종을 도와 고구려 정벌을 수행한 장수로 중국 민중들에게는 영웅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서(史書) 외에도 『태평광기』의 설화를 시작으로 시, 희곡 소설의 다양한 양식으로 문학 작품화 했다. 중국의 자료를 볼 때 단편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던 설인귀는 당대의 유행하는 다양한 문학적 장르로 변모되고 적층되면서 청대에 이르러서는 설인귀 자료의 총집산인 장회소설(章回小說)을 형성했고¹⁹⁾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설인귀전(薛仁貴傳)」, 「서정기(西征記)」, 「설정산실기(薛丁山實記)」, 「번리화서정전(樊梨花西征傳)」, 「울지경덕전(蔚遲敬德傳)」과 같은 12종의 〈설인귀전〉이 본을 만들어냈다.²⁰⁾ 한국화한 「설인귀전」은 번역의 수준에 그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여러 유통본으로²¹⁾ 파생되어 읽혔다. 한글로 번역되고 개작된 이들 대부분은 중국소설의 번역으로 판단되는데²²⁾ 이 글에서는 1918년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국립도서관 소장의 활자본 「백포소장 설인귀

18) 이상의 추론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 가능성의 타진임을 밝힌다.

19) 중국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금재, 「설인귀전」의 「설인귀정동」 수용과 그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8~11쪽에 소개되어 있다.

20) 이윤석, 〈설인귀전〉의 원천에 대하여 『淵民學志』 제9집, 2001, 197~199쪽.

21) 이윤석, 「설인귀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7, 참고.

22) 이명구, 이조소설연구 서설, 『성대논문집』 제13집, 1968, 31쪽.

전」을 중심으로 적성 지역의 설화와의 상관성을 살펴본다.

「설인귀전」은 42회의 회장체 소설이다. 「설인귀전」은 주인공 설인귀와 설인귀의 공을 가로채려는 장사귀, 설인귀의 적인 고구려의 합소문(연개소문)의 대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영웅소설이다. 기본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당나라 태종 때 용문현에 사는 설영과 그 아내 반씨 사이에서 설인귀가 태어난다. 인귀는 자라면 서 말을 하지 않다가, 15세가 되었을 때 책방에서 잠을 자다가 백호가 달려드는 꿈을 꾸고 나서 드디어 말을 하게 된다. 한편, 태종은 일몽(一夢)을 꾸고 용문현의 백포 장군 설인귀가 장차 동정(東征)에서 자신을 구해 주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인귀는 부모가 죽은 뒤 무예를 익히고 육도삼략을 공부하며, 위급한 사립을 구제하느라 가산을 탕진한다. 인귀는 주립을 견디지 못해 유원외의 집에서 기식한다. 유원외의 딸 금화는 인귀가 귀하게 될 인물임을 예감하고, 인귀에게 비단옷을 주었다가 아버지에게 들켜 집에서 쫓겨난다.

금화는 한 굴에 들어가 피신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찾아온 인귀를 만나 혼인한다. 인귀는 의형제를 맺은 주청의 권유로 동정에 참가하기로 한다. 태종은 장사귀를 용문현으로 보내 인귀를 찾아오게 하니, 장사귀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 투군(投軍)한 인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을 투군했다가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인귀는 번홍해의 땅을 구해 주고, 방천화극을 얻는 한편 그녀를 부실로 맞아들이게 된다. 다시 세 번째의 투군장을 내니, 장사귀는 인귀를 속이고 설례로 개명하게 한 후에야 그를 받아들인다. 태종은 올지경덕을 원수로, 장사귀를 선봉장으로 삼아 동정에 나선다.



설인귀와 연개소문의 싸움 모습. 화살을 겨누는 장수가 설인귀, 칼을 든 장수는 연개소문이다. 뒤에서 지켜보는 이가 당태종이다.

도중에서 인귀는 큰 굴을 만나 그 곳에서 여보살로부터 다섯 가지 보배를 얻는다. 인귀는 이 보배들을 써서 만나는 적들을 모두 물리치나, 장사귀는 이 모든 공을 사위에게 돌리고 황제를 속인다. 태종이 사냥을 하던 중 합소문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이 때 인귀는 말이 달리는 대로 한 곳에 이르러 태종을 만나게 되니, 합소문을 물리치고 태종을 구출한다. 마침내 인귀를 알아본 태종은 장사귀 일족을 잡아 가두고 설인귀를 원수에 봉한다. 설원수는 합소문과 그의 군사들을 몰살시키니 부여 왕이 항복한다. 평요왕에 봉해진 설인귀는 고향에 돌아왔으나 실수로 아들 정산을 쏘아 죽인다.

그러나 운몽동 왕오노조는 정산을 폐려와 단약을 먹여 회생시켜 후일에 부자 상봉하도록 한다. 설인귀는 변소저를 맞아들여 두 부인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설인귀전」은 영웅의 일생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한 작품이다. 먼저 고귀한 혈통이다. 산서 강주부 용문현의 설영의 처 반씨가 53세에 꿈에 별이 품안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설인귀를 잉태한다. 설인귀의 출생은 천상의 존재가 하강하여 인간으로 변신하는 유형이다. 이것은 건국신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영웅탄생의 공통적인 유형으로 설인귀가 범인(凡人)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는 비정상적인 출생이다. 설인귀는 출생 후 15세가 될 때까지 입을 열고 말을 하지 못한다. 또 설인귀는 백호성(白虎星)이 지상으로 하강한 인물이다. 15세까지 말을 못하던 설인귀는 할머니의 50세 생일날 말문을 열고 할머니의 수명장수를 축원한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양친이 병사한다. 중국에서 백호성은 가장 꺼리는 상복(喪服)의 재앙을 의미한다. 백호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째는 탁월한 능력이다. 설인귀는 한 끼에 밥을 한 말 닷 되를 먹는다. 설인귀의 대식(大食)은 삼사십 인이 끌 수 있는 큰 나무기둥을 혼자서 세우는 괴력(怪力)으로 이어진다. 또한 설인귀는 활의 명인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한 쌍을 한 살에 꿰는 능력을 지녔다. 넷째는 기아에 해당하는 고난이다. 일찍 부모를 잃은 설인귀는 약간 남은 가산마저 무예를 닦느라 탕진하고 토굴에 살 정도로 생활이 곤궁해진다. 이러한 설정은 주인공의 활약을 예비하는 준비단계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조력자의 도움이다. 설인귀가 빈궁에 빠져 있을 때 도움을 준 왕무생이나, 설인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도움을 준 울지경덕 등이 속세의

조력자라면 구천현녀는 선계(仙界)의 조력자이다. 구천현녀는 땅 속의 선계에서 구천현녀를 만난 설인귀는 그에게서 백호편(白虎鞭), 화수포(火水袍), 진천궁(震天弓), 오지천운전(五枝穿雲箭), 무자천서(無字天書)의 다섯 가지 보물을 얻는다. 이후 구천현녀는 설인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를 돋는다. 또 문인 이정을 보내 설인귀를 돋는 향산로군도 선계의 조력자이다. 여섯째는 위기 극복이다. 이 소설의 갈등관계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내적은 갈등으로 황제에게 응몽현신인 설인귀의 존재를 숨기고 그 공을 가로채려는 장사귀의 갈등이다. 또 하나는 본질적인 갈등으로 합소문과의 경쟁이다. 합소문과의 경쟁은 「설인귀전」의 중심 갈등이며 선계와 산신계의 대립이기도 하다. 설인귀를 돋는 구천현녀나 향산로군은 천상의 선인이며, 합소문에게 비도(飛刀)를 주고 어려울 때마다 돋는 목각대신은 주폐산의 산신이다. 때문에 천상의 선인과 산신과의 대립에서 천상의 선인과 설인귀가 승리한다는 것은 예정된 귀결인 것이다. 마지막은 투쟁으로 위기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는 내용이다. 설인귀는 자신의 공을 가로채고 심지어는 천산곡에 넣어 죽이려까지 한 장사귀의 음모를 구천현녀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합소문에게 불잡혀 항복하려는 태종을 구한 후 합소문을 제압하고 고구려를 정복한다. 이후 돌아와 평요왕에 봉해지고 가족을 찾아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설인귀전」의 주요 화소를 중심으로 적성 지역 설화와의 상관성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먼저 설인귀의 신분이다. 「설인귀전」에서 설인귀는 강주 용문현 설가장 사람으로 재산이 누만금인 설항(薛恒)의 둘째인 설영의 아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당서 열전 제36, 설인귀전에는 “강주 용문인으로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여 농사로 업을 삼았다.”로 기록되어 소설과 차이가 있다. 또한 설인귀전의 이본인 「정동전(征東傳)」 3회에서 쌀을 구걸하러 간 설인귀를 백부 설옹이 멸시하자 “백부님 무예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예부터 공후장사들은 모두 평민출신들입니다. 지금 조카는 무예를 열심히 배워 익히고 있습니다. 잠시 파묻혀 위세를 떨치고 있지 못하나, 언젠가 공후장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니 백부님 멸시하지 마십시오.”라 하여 평민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설인귀는 평민 출신임이 분명하다. 다음은 설인귀의 출생지이다. 중국의 사서나 문학 작품에서는 설인귀가 강주 용문현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당나라 역사에서 설인귀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당태종의 안시성을 공격할 때이다. 설인귀가 이상한 옷을 입고 고구려 병

들을 크게 무찔러 공을 세우자 태종이 인귀를 불러 유격장군에 임명했다고 한다.²³⁾ 이때가 그의 나이 34세 때이다.²⁴⁾ 그 이전에는 일개 평민출신의 군졸이었기 때문에 설인귀의 존재가 기록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이전 설인귀의 자취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설인귀전』에서 설인귀는 백호성의 현신으로 15세까지 말을 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백호성의 현신이라는 화소는 설인귀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화소이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설인귀가 고구려 사람으로 입당하여 투군(投軍)하여 군졸이 되었을지라도 일정 기간 말이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민중들에 전승되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설인귀가 입었다고 하는 이상한 옷이다. 이 옷은 고구려 사람이 입는 흰색의 옷이었기에 중국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을 것이다. 설인귀는 장사귀의 휘하에 투군한 이후 줄곧 옷을 입었으며, 합소문과의 싸움에서도 흰옷을 입어 백포소장으로 불렸다. 설인귀가 당나라 장수가 되어서도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정체성의 확인이라 보인다. 물론 이 흰 옷은 한국인의 복장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설인귀가 활의 명인이라는 사실이다. 설인귀는 고난에 처했을 때 활을 쏘아 기리기 등의 짐승을 잡아 생계를 유지했을 정도로 활에 능했다. 또한 장수가 되어서 합소문과 싸울 때도 활을 주로 사용했다.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 왕이 활을 잘 쏘아 주몽으로 불렸듯이 고구려 사람들이 활을 잘 쏘았다는 것은 역사서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설인귀가 고구려의 적성 출신이라면 역시 활의 명인일 가능성이 높다.

소설 『설인귀전』의 중요한 화소인 ‘15세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 흰 옷을 입었다, 활을 잘 쏘았다’ 등의 내용을 적성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인귀 관련 설화와 종합해볼 때 설인귀는 중국인이 아닌 고구려의 적성 출생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고난에 처했을 때 거처했다는 굴 역시 설인귀가 감악산 정상 근처의 설인귀 굴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인귀는 1400여 년 전의 인물이다. 중국에 남아있는 부분적인 사서의 기록

23) 「자치통감」, 6228~6226쪽.

24) 「구당서」에는 설인귀가 당고종 개요원년(681년) 나이 70에 병출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신당서」에는 당고종 영순 2년(671년) 나이 70에 출했다고 기록 되어 있다. 「신당서」의 기록을 존중한다면 이 때 그의 나이는 44세가 된다.

외에는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많은 독자층을 형성했던 소설 「설인귀전」도 오랜 적층의 과정을 거친 것이기에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엔 부족하다. 이 글은 설인귀에 대한 역사와 소설의 간극을 적성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를 통해 연결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술되었다. 적성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 유래나 설인귀에 대한 전설, 사물전설로 볼 때 설인귀는 적성 지역에서 출생하여 자신의 출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나라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설인귀는 자기 출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흰 옷 입었고, 이것이 중국인에게는 영웅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징표로 인식된 듯하다.

5. 나오는 말

설화 중에서 전설은 한 지역의 역사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적성 지역에 전승되는 설인귀에 얹힌 지명유래와 전설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인귀는 삼국통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당나라 장수이다. 그럼에도 파주 적성에 설인귀에 대한 설화가 전승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먼저 한국과 중국 역사서에 남아있는 설인귀의 흔적을 탐색해보았다. 이 결과 「삼국사기」의 기록은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에 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설인귀의 삶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서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소설 「설인귀전」은 중국인들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적 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성 지역에 남아있는 지명유래와 설화는 설인귀의 출생과 성장과정, 무예를 연마하는 과정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것이 설인귀가 파주에서 출생한 인물이라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추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설인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확인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중국의 기록 또한 설인귀라는 인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설인귀가 적성 지역에서 출생했고 성장했다는 지명유래와 설화는 설인귀가 당나라 군에 투군하여 공을 세우기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설화를 거쳐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된 「설인귀전」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성

지역에 전승되는 설인귀 관련 설화와의 연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설인귀 설화를 통해 설인귀는 적성 지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평민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입당했으며 그 결과로 중국인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400여 년이 지난 후 한 인물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설인귀는 당나라 군에 들어가 고구려의 정벌에 공을 세웠기에 결과적으로 한민족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장수이다. 그러나 어떠한 역사적 사실은 상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비록 민족 전체로는 부정적일지라도 설인귀는 안동도호부 총독이 되어 자신이 출생한 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이고, 때문에 적성 지역 민중들은 설인귀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영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설인귀를 감악산의 산신으로 모셔지게 했을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설인귀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적성 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를 통해 설인귀라는 인물에 대해 희미하게 가려졌던 역사적 진실의 한 단편을 다시 엮어보는 것으로 의의를 삼는다.

최경창과 홍랑 문학 연구

오 순 희*

1. 시작하는 말	5. 최경창 관련 유적과 문학
2.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	1) 최경창 기념관
3. 홍랑(洪娘)	2) 묘비
4. 최경창과 홍랑의 만남과 이별	3) 삼당시인
1) 첫 번째 만남과 이별	4) 최경창의 시
2) 두 번째 만남과 이별	5) 최경창의 스승과 교유인물
3) 최경창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6. 끝맺는 말

1. 시작하는 말

조선중기에 시와 풍류를 아는 젊은 관리 최경창(崔慶昌 1539~1583)과, 재색을 겸비한 경성의 기생 홍랑(洪娘)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아름다운 연시가 있었다. 잠깐 스쳐 지나가고 말면 그뿐인 관리와 기생. 사랑도 잠깐이요, 이별도 그리 서러워 할 일이 아니던만, 그들은 사대부와 기생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다. 그동안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 얘기는 홍랑의 한글 시를 중심으로 단편적으로만 전해졌다.

홍랑의 시 원본과, 홍랑과의 인연과 시조 작성 당시의 정황을 써 놓은 최경창의 육필 원고, 그리고 홍랑을 다시 만났다가 헤어질 때 최경창이 써준 한시 2수(首), 또 서화 감식안으로 꼽히는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1936년 당시, 가람 이병기(李秉岐. 1891~1968) 선생이 이 자료들을 보고 고증 평가해서 쓴 발문 등을 2000년 11월 '학고재'에서 공개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학고재' 자료에는 홍랑이 최경창의 병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을 걸어 상경해서 만났다는 것까지만 전해지고, 그 후의 일은, 조선 중기의 학자 남학명

*연구위원

(南學鳴 1654~?)의 문집 ‘회은집’에서 그 후일담을 찾아볼 수 있다. 최경창이 파직되고 7년 후 함경도에서 벼슬을 제수 받아 부임 중 객관에서 죽었는데, 홍랑이 그 시신을 쫓아 서울로 왔고, 파주에 있는 무덤을 지킨 것으로 밝혀졌다.

당대에 손꼽히던 사대부 문장가와 기생의 애달픈 사랑 얘기가 400여년을 지나 현대에 와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가람 선생은 “간곡하고 심절한 그 작별의 뜻이 언사에 넘치는 우수한 작품이며 보배”라고 평하였다. 이 자료들은 국문학사 연구에도 희귀한 사료(史料)가 될 것으로 평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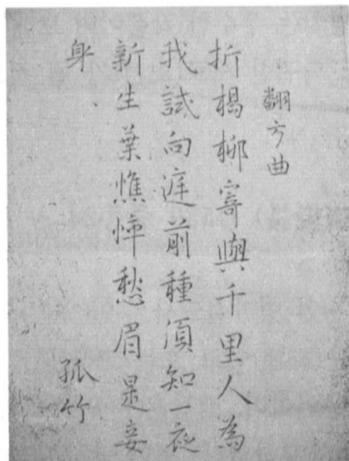
2. 고죽 최경창(孤竹 崔慶昌) (1539 중종34 ~ 1583 선조16)

최경창은 1539년 9월 평안 병마절도사 수인(守仁)의 아들로 전라도 영암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가운(嘉運)이고 호는 고죽(孤竹)이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 박순(朴淳)의 문인이며, 백광훈(白光勳)과 함께 이후백(李後白), 양응정(梁應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또한 당시(唐詩)에 뛰어나 옥봉 백광훈(玉峰 白光勳), 손곡 이달(蓀谷 李達)과 함께 3당(三唐)시인으로 불리었다.

1568년(선조 1) 증광문과을과로 급제하여 북평사가 되고, 예조 병조의 원외랑(員外郎)을 거쳐 1575년에 사간원 정원에 올랐다. 1576년 영광군수로 좌천 되었는데 뜻밖의 외직을 받게 되어 관직에 뜻을 잃고 사직 하였다, 다음해 대동도찰방(大同道察訪)으로 복직하였다. 1582년 선조가 종성부사로 두 계급을 승진하여 특수(特授) 하였으나, 이를 시기한 북평사의 무고한 참소가 있어 말썽이 되자 대간에서는 갑작스러운 승진을 문제 삼았다. 그 일로 다시 성균관 직강직의 명을 받고 상경하는 도중에 종성 객관에서 45세의 나이로 객사하였다.

학문과 문장에 능하여 당대의 문인이었던 율곡 이이(栗谷 李珥) 구봉 송의필(龜峯 宋翼弼) 최립(崔笠) 등과 무이동(武夷洞)에서 수창(酬唱)하였으며, 또한 송강 정철(松江 鄭澈) 서의(徐益) 등과 삼청동에서 교류하면서, 조선 중기 8문장으로 불리고 서화에도 뛰어난 재질이 있었다. 율곡 이이는 최경창의 시를 가리켜 ‘청신준일’ 하다고까지 평할 정도였다. 음악에도 뛰어나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하며, 영암 해변에 살 때 왜구를 만났으나, 통소를 구슬피 불어 왜놈

들을 향수에 젖게 하여 위기를 모면했다는 일화가 있다. 숙종 때 청백리에 록 선 될 만큼 청렴했던 최경창은, 사후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강진의 서봉 서원(瑞峯書院)에 봉향되어 있으며, 최경창의 증손이 1683년 펴낸 저서 〈고죽 집〉에는 홍랑의 시 '뭣 버들 가려 꺾어...' 와 이 시를 최경창이 한역한 번방곡(翻方曲)을 비롯하여 236편의 시가 실려 있다.



번방곡(최경창 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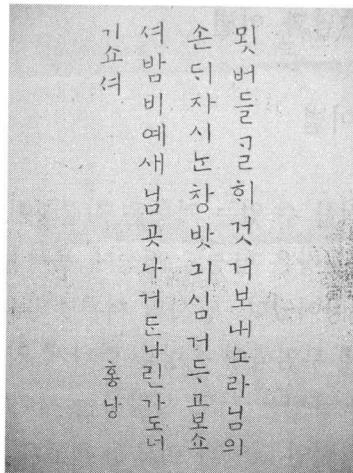
3. 홍랑(洪娘)

홍랑은 최경창이 북도평사로 경성에 가 있을 때 홍원의 관기였다. 최경창이 경성에 부임했을 때 연회 자리에서 처음 만나, 최경창의 시를 읊은 것이 인연이 되었다. 홍랑은 그해 겨우내 최경창의 막중(幕中)에 같이 있게 되었다. 최경창이 이듬해 봄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쌍성까지 와서 작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함관령에 이르러 날이 저물고 마침 비가 오자

뭣 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낙 곳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홍랑시(친필)

라는 아름다운 연시를 지어 최경창에게 보냈다. (산에 있는 벼들가지를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오니, 주무시는 방의 창문가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행여 밤비에 새 잎이라도 나거든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임에게 보내는 지순한 사랑을 뒷벼들로 구상화 시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임에게 바치는 순정은 뒷벼들처럼 항상 님의 곁에 있겠다고 다짐하며 연정가를 보낸 것이다.

그 뒤 서로 소식이 끊겼다가, 1575년(선조 8)에 최경창이 병이 들어 봄부터 겨울까지 병석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로 집을 떠나 7일 만에 서울에 와서 병을 간호하였다. 그 일로 최경창은 파직되고 홍랑은 이듬해 고향으로 되돌아갔으며, 1583년(선조 16) 최경창이 죽자 몸을 단장 하는 일 없이 파주에서 무덤을 지켰다. 임진왜란 때는 최경창의 시고(詩稿)를 등에 짊어지고 피난을 다녀서 최경창의 주옥같은 시들을 병화(兵火)에서 구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확실치 않은 홍랑과 그녀의 시가 조선중기의 것으로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최경창과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엔 기생을 ‘여악’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로 양반 계층과 어울려야 했던 만큼 각종 악기와 가무, 문장을 배웠다. 관동지방 기녀들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을 잘 불렀고, 함흥의 기녀들은 용비어천가를 잘 읊었다고 한다. 천민 신분이었지만 예술 보존자의 역할을 해 온 기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옛 문화의 명맥을 이어오는데 그들의 역할이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최경창과 홍랑의 만남과 이별

1) 첫 번째 만남과 이별

두 사람의 행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은 최경창이 써 놓은 서첩의 서문에 있다. 1573년 가을에 최경창은 함경도 경성에 북평사로 부임했다. 서울에서 천리 길이 훨씬 넘는 변방이었다. 당시의 서른넷의 최경창에겐 이미 처지가 있었지만, 혼자서 경성에 부임하여 홍랑을 만나게 되었다. 시와 풍류를 아는 최경창과 재색을 겸비한 홍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홍랑은 비록 기생 신분이었지만, 문학적인 교양과 미모를 지녔다. 두 사람이 단순한 연인 사이를 넘어서, 시와 풍류를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한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경창과 홍랑은 한 겨울을 군막에서 보냈는데, 그 시대의 기생은 군인들의 바느질과 빨래 등의 수발을 들었고, 군인들의 잠자리 시중까지 들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기였던 홍랑도 변방에서 겨울을 나는 최경창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관리와 기생의 사랑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최경창이 경성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이듬해 봄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 조선시대 기생은 노비였기 때문에 소유권이 해당 지역 관청에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경창이 기록해 놓은 것에 의하면 “홍랑은 경성에서부터 쌍성(함경도 영흥)까지 며칠 길을 따라오다가 나와 이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함관령’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렸다. 이곳에서 홍랑이 내게 시를 지어 보내왔다.”고 적어 놓고 있다.

2) 두 번째 만남과 이별

그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소식이 끊긴 채 1년 남짓 지났다. 그러다가 최경창이 병을 얻어 몇 달간 누워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홍랑은 그 날로 상경 길에 올라 7일 밤낮을 걸어 서울에 도착했다. 한양에 온 홍랑은 최경창을 극진히 간호하였다. 1576년(선조 9) 봄, 사헌부는 최경창의 파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다. “최경창은 식견이 있는 문관으로서 몸가짐을 삼가지 않고, 북방의 관기를 불시에 데리고 와 사니, 이는 너무나 기坦없는 일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그때는 최경창이 경성을 떠나 온지 2년이나 지났을 무렵이었다. 최경창

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을해년에 내가 병이 들어, 봄부터 겨울 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홍랑이 이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병석에 누운 연인을 걱정해서 찾아 왔던 홍랑의 행동이 최경창을 파직으로 까지 몰고 간 것은, 그때의 시대 상황에 있었다. 최경창은 “그때 양계의 금이 있었고, 국상 때였다.” 고 적어 놓았는데, ‘양계의 금’ 이란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계는 중국과 접경한 변방지역인데,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번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양계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엄격하게 막았던 것이다. 그리고 최경창과 홍랑이 같이 있던 때는 명종 비 인순왕후가 죽은 지 1년이 채 안된 국상기간이었다. 이런 일들을 빌미로 최경창을 시기하던 이들에 의해 결국 최경창은 파직 당하게 되었고, 홍랑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성에서 이별한 뒤 2년 만에 병석에 누운 최경창을 찾아온 홍랑, 그들의 두 번째 재회는 최경창의 파직과 이별로 끝이 나고 말았다. 눈물로 홍랑을 떠나보내며 최경창은 ‘송별(送別)’ 이란 제목으로 두 편의 한시를 지어 주었다.

말없이 유란(幽蘭)을 주노라
오늘 하늘 끝으로 떠나고 나면 언제 돌아오랴
함관령의 옛 노래를 부르지 말라
지금까지도 비구름에 청산이 어둡나니

옥 같은 뺨에 두 줄기 눈물 흘리며 봉성을 나서는데
새벽 꾀꼬리 한없이 우는 것은 이별의 정 때문이네
비단 적삼에 명마를 타고 하관 밖에서
풀빛 아스라한데 홀로 가는 것을 전송 하네

이별의 슬픔 속에 경성으로 돌아가며, 마음만이라도 같이 있기를 원했던 홍랑에게 준 송별의 한시(칠언절구七言絕句) 속에 담긴 것은 간절하고도 지극한 사랑이었다.

3) 최경창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

최경창이 파직 당하고 홍랑이 경성으로 떠난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학고재' 자료에는 홍랑이 최경창의 병 소식을 듣고 7일 밤낮을 걸어 상경해서 만났다는 것까지만 전해지는데, 조선 중기 때의 학자 남학명(南學鳴 1654~?)의 문집 '회은집'에서 그 후일담을 찾아볼 수 있다.

최경창이 파직되고 7년 후 함경도에서 벼슬을 제수 받아 부임 중 객관에서 죽었는데, 홍랑이 그 시신을 쫓아 서울로 왔고, 파주에 있는 무덤을 지켰다고 한다. '회은집'에는 "고죽의 후손에게 들으니 홍랑은 고죽이 죽은 뒤에 스스로 얼굴을 지저분하게 하고 파주에서 묘를 지켰다 한다. 임진왜란 중에는 고죽의 시고(詩稿)를 등에 지고 피난 가서 병화(兵火)에 소실됨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승에서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차이와 죽음으로 계속 될 수 없었다. 홍랑은 최경창과 두 번째 이별을 하고 7년이 지난 후에, 최경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홍랑은 경성에서 최경창이 있는 파주로 쫓아가 그의 무덤 옆에 묘막을 짓고, 고운 얼굴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는 세수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빗지 않으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회은집'에는 홍랑이 임종할 때 "나를 님 곁에 묻어 주오"라는 유언을 남겼고, "홍랑이 세상을 뜨자 고죽의 산소 아래 장사를 지냈다."고 되어있다. 해주최씨 가문에서는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기리어 최경창 부부의 합장 묘 아래 무덤을 만들어 주고, 지금까지도 해마다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또 "그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적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최 즙'이라고 전해진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

5. 최경창 관련 유적과 문학

1) 최경창 기념관

최경창이 어려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은 전라남도 영암이다. 13세에 혼인을 한 최경창은 처가가 있는 처가에서 한동안 살기도 하였다. 전남 영

암군 동구림에는 종가가 있어서 가문에서 추앙하는 다섯 분의 선조의 위패를 놓고 향사를 모신다. 문헌공 최충과 강호공, 홍랑의 연인 고죽공 최경창, 고죽 공의 증손자 양파공, 만성공, 다섯분의 위패를 모시고, 종가의 사우(祠宇) 동 계사(東溪祠)에서 제례를 행한다. 2004년 개관한 고죽의 기념관에는 당시에 입었던 장군복과 관복, 신발 등을 전시해 놓고 있으나, 고죽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이 아니고 복사품이다.

2) 최경창 묘비

홍랑의 묘비에의 앞면에는 詩人洪娘之墓 라 써 있고, 비문에는 “고죽이 후 일 종성 객관에서 돌아가시자 홍랑은 영구를 따라와 시묘했다. 이어 홍랑이 죽자 문중이 합의해 고죽 선생 묘 앞에 후장 했으니 홍랑의 인품을 가히 알지 니라” 라고 돼 있다.

최경창과 홍랑의 묘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최경창이 홍랑의 시를 한역한 번 방곡 비석이 세워져 있다.



고죽시비

번방곡(翻方曲)

절양류기여천리 인위아시향정전
(折楊柳寄與千里 人爲我試向庭前)
수지일야신생엽 추췌수미시강신
(須知一夜新生葉 摧悴愁眉是姜身)

3) 삼당시인

조선시대의 세 시인(詩人) 백광훈, 최경창, 이달을 지칭하는 말. 보통 삼당(三唐)으로 칭한다. 그리고 이들의 시를 삼당시(三唐詩)라고 한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 한시(漢詩)에 있어서 송시풍(宋詩風)을 따랐으나, 이러한 풍조를 배격하고 당시(唐詩)를 주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이전에는 정사통, 박은, 박순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대두되다가 두드러지게 일파(一派)를 형성한 것이 곧 이들 삼당이었다. 이들은 정서면을 중시한 시를 쓰려고 했으며, 성조감각(聲調感覺)을 중시했다. 그러나 삼당시인은 미염(媚艷)한 만당풍조(晚唐風潮)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 뒤 다시 송시풍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세 사람 모두 서출로서 불우한 생을 살다간 시인들이었다.

4) 최경창의 시(詩)

別愼評事 (신평사와 이별하며)

노란 국화 필 때 함께 멀리 여행하여
북풍과 쳐울 기러기에 이별의 정이 배나 더했네.
강호는 땅에 가득하고 가을 구름은 막혀 있는데
어느 곳 달 밝은 밤에 서로 생각할 것인가.

黃菊開時俱遠行하여
風寒 倍離情이라
江湖滿地秋雲隔한대
何處相思月正明고

別盧士稚 湖南幕 (노사치가 호남 진영으로 부임하는 것을 송별하여)

선인이 일찍이 해남 고을을 다스려
이십 년 전에 먼 여행을 했었네.
금일 그대를 보내고 또 이별을 애석해 하니
북쪽 구름과 겨울 기러기가 이별의 수심을 돋네.

先人曾鎮海南州하니
二十年前作遠遊라
今日送君惜別하니
雲寒助離愁라

送鄭肅衣季涵之北關 (어사 정계함이 관북에 가는 것을 전송하여)

함관에서 북으로 올라가니 말이 자주 넘어지고
설령에서 서쪽으로 보니 바다는 하늘에 닿았네.
여로에 중양절을 또 어느 곳에서 맞을 것인가
극화는 예 성가에 시들어 쓸쓸하네.

咸關北上馬 이요
雪嶺西看海接天이라
客路重陽 何處요
黃花冷落古城邊이라

咸興題詠(함흥제영)

함흥은 예로부터 큰 도회니
해가 뜨면 시끄럽게 거마가 먼지를 일으키네
성 밖 다리 주위 벼드나무에
왕래하는 이들 중엔 이별하는 사람들이 많네
咸興自古大都會니 日出喧喧車馬 이라
城外橋頭楊柳樹에 往來多是別離人이라

鏡城題詠送李善吉還朝
(경성에서 지어서 이선길이 조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다)

철령이 다시 이천리나 머니
백초와 황사가 벽지에 자욱하네.
서기는 정벌에 따라 나가 어느 날에 돌아올고
해마다 속절없이 고향에 돌아가는 책만 보내네.

鐵關更遠二千里하니
白草黃沙迷絕域이라
書記從征機日歸오
年年空送還鄉客이라

老病有孤舟(늙고 병든 이에게 외로운 배만 있다.)
科作(과거 시험에서 짓다.)

세모에 두습유가 동정호에 책이 되어
유유한 신세가 가벼운 갈매기 같았네.
파죽과 무산 쪽으로 물결이 높아 교룡이 노하고
한 몸이 만리에서 외로운 배를 슬퍼했네.
파리한 몸은 외로운 밤에 차가운 서리 기운을 띠고
무협의 원수이 울음은 우거진 단풍 속에 그쳤네.
물가 갈매는 으슬으슬한데 가을바람은 가득하고
달은 밝고 적적한데 빈 강만 흐르네.
옛 친구나 새 친구에게서는 한 자의 편지도 없고
아우와 누이는 떠돌아다녀 어느 곳에서 찾을꼬.
병기들은 땅에 가득한데 변방은 멀고
가서 따르고 싶으나 길이 막히고 머네.
먼 곳에서 늙고 병들어 눈물만 속절없이 뿌리고
짧은 배옷으로 하물며 잣은 풍상을 견딤에라.
나부끼는 한 나뭇잎은 어느 곳에 머무를까

부질없이 일생 동안 한량없는 시름만 실었네.
상나라 조종에서 강을 건너는 노를 시험도 못하고
속절없이 공자처럼 뗏목 타본다는 것이 부끄럽네.
쓸쓸히 외로운 그림자가 넓은 바다에서
우두커니 서서 아득히 고향 산천을 그리워했네.
붉은 얼굴로 돌아감을 이루지 못했는데 세월만 가
며도는 쇠잔한 인생 속절없이 머리만 희어졌네.
공명은 이미 거울 속을 향해 늦어 버렸고
성군을 이루려는 일념은 이윤 주공의 생각만 남았네.
궁한 수심은 모두 임금을 위해 오래되었고
머리를 돌려 부르짖으며 가을의 창오산을 향했네.
조정에서는 이 늙은이의 병을 전혀 생각지 않으니
마음속에 가득한 조정에 대한 근심을 누가 알리오.
나그네로 외로이 지내며 길이 깊은 정성 안고 있으니
이 인생은 길이 창주에 가서 노니는 것을 저 버렸네.
내일 밤에는 또 어느 곳에서 뒷줄을 끊을꼬
푸른 물결은 한이 없고 수심만 아득했네.
시를 짓는 것이 뉘시터의 늙은이에 부끄러워
백 년 동안 근심 없이 뉘시만 드리우고 있었네.

追次(추차)

萬竹(만죽)

무단히 한 눈물이 저절로 수건을 적시니
천하 사람들이 지하의 티끌이 되었네.
물노라 다리 주위 베드나무가
최고즉 같은 이를 얼마나 보았는가.

無端一 自沾巾하니
天下人爲地下 이라
爲問橋頭楊柳樹가
見如崔子機多人고

5) 스승과 교유인물

(1) 스승

- 박순(朴淳 1523~1589)
- 이후백(李後白 1520~1578)
- 양웅정(梁應鼎 1519~?)

(2) 교유인물

◉ 삼당시인(三唐詩人)

- ① 고죽 최경창
- ② 옥봉 백광훈
- ③ 손곡 이 달

◉ 팔문장(八文章)

- ① 고죽 최경창
- ② 옥봉 백광훈
- ③ 구봉 송익필
- ④ 중호 윤탁연
- ⑤ 아계 이산해
- ⑥ 율곡 이 이
- ⑦ 고담 이순익
- ⑧ 간이 최 립

◉ 그 밖의 교유인물

- ① 우계 성 혼
- ② 백록 신옹시
- ③ 하곡 허 봉

6. 끝맺는 말

2005년 11월 7일 교하읍 다율리에 있는 해주 최씨 선산에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시제가 있었다. 문중 회장과 종손 등 20여명이 넘는 후손들이 모여 조상에게 묘제를 지내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최경창과 부인 선산임씨 합장묘에 제를 올린 후, 홍랑의 묘에도 똑같은 음식을 차려 놓고 정성껏 제를 올렸다.



최경창묘



홍랑묘

그러나 홍랑의 제례에는 축문을 읽지 않았다. 솔도 석 잔을 올리지 않고, 한잔 술만 올리고, 제주도 종손이 아니고 문중을 대표해서 후손 중 한 사람인 시인 최향섭씨가 맡아 하였다. 적실도 아닌데다가 기생제사에 종손이 제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것은 최경창부부 합장묘에서 제를 지낼 때나 홍랑의 묘에서 제를 지낼 때, 후손들은 혼백이 음복을 하는 동안 잠시 뒤 돌아앉았다

가 일어서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제례 형식이었다. 묘제가 끝난 후 구경하던 나에게도 홍랑에게 올렸던 술 한 잔을 건넨다. 술을 받아 마시니 홍랑의 제상에 놓았던 밤이며 대추까지 듬뿍 손에 쥐어 준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음식을 거두어 묘 바로 아래 재실에서 점심을 먹는 자리까지 동행하였다. 청석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후손 최은호씨는 이곳에서 8대째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게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최경창 부부 합장묘와 홍랑의 묘는 원래는 월릉면 영태리에 있었는데, 1969년 선산이 군용지로 선정 되어 지금의 자리로 이장하게 되었다고 하며 본래 있던 자리에는 지금 미군부대가 들어서 있다고 하였다. 최은호씨는 묘를 이장할 때, 홍랑의 무덤에서 옥으로 된 목걸이며 반지, 귀고리와 옷 등이 있었다는 얘기를 당시 이장(移葬)을 도와 일을 했던 선친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장을 하는 와중에 없어져버리고 지금 문중에 전해지는 유물은 없다고 하며 안타까워하였다.



시제장면

최은호씨는 또 한 번 묘를 이장해야 할 처지라고 하며 한숨을 쉬었다. 묘 앞으로 바로 큰길이 생기기 때문이다. 조상의 묘를 두 번씩이나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후손들은, 당국에 대책을 문의해 보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고죽의 기념관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으로 옮겨 갈까 생각 중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문향의 고장인 파주에 문학과 사랑을 가진한 최경창과 홍랑의 묘가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참고자료〉

國語國文學資料事典 (한국 사전 연구사)

최경창 후손의 자료 ('고죽집' 일부 복사본)

최경창 후손의 자료 (2000년 11월 각 일간지 기사)

풍수로 본 파주의 명당

- 황희묘와 윤관묘 간산기(看山記) -

우 관 제*

1. 풍수란?
2. 황희묘의 풍수 형국
3. 윤관묘 풍수 형국

1. 풍수란?

풍수의 기본 이론은 고대 동양철학 중의 기와 음양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풍수에서는 기를 “생기”로 발전시켰는데 이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음양의 기를 대표하며 만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생기가 있는 땅을 길하다고 하고 생기가 없는 땅은 흉하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대지는 마치 인체와 같다는 고대의 대기유기설에 의하면 대지를 한 유기체로보아 대지의 각 부분은 인체의 경락, 혈위 같은 것을 통해 관통된다고 했다.

생기는 이 경락을 통해 운행하며 풍수에서의 혈은 곧 이같은 논리와 일맥 상통한다. 수룡경(水龍經)의 “수법(水法)” 편에서는 “돌은 산의 뼈이고 흙은 산의 살이며 물은 산의 혈맥이고 초목은 산의 피부인데 모두 혈맥이 통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발미론(發微論)의 “강유편(剛柔篇)”에서는 대지를 구성하는 네가지 원소를 사람의 인체와 비교하여 “물은 피이므로 너무 약하고 불은 기에 해당하므로 너무 강하며 흙은 살이기 때문에 좀 약하고 돌은 뼈이므로 좀 강하다. 물, 불, 흙, 돌을 합치면 땅이 되는데 마치 穴, 氣 骨, 肉을 합치면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대지는 바로 인체와 같기 때문에 대지의 맥은 인체의 맥과 같다

* 연구위원

는 논리이다. 발미론의 부침편(浮沈篇)에서는 더 나아가 지리학자가 지맥을 보는거나 의사가 병자의 맥을 보는게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명의는 맥의 음양을 잘 가려 약을 쓰고 지맥을 잘보는 자는 지맥의 부침(浮沈)을 잘 살펴 혈(穴)을 찾는 도리는 같다.”라고 규정했다. 풍수에서 혈은 “자웅이 서로 사랑하고 천지가 서로 통한다는 의미이다. 자웅이란 부부라는 뜻이다. 부부가 결합하면 자식이 생기고 자웅이 교배하여 만물이 생기는데 이것은 천지가 생기게 되는 이치이다. 그래서 양공(楊公)을 龍家의 자웅이라고 부른다. 혈을 판단하고 기를 찾자면 “기를 조상에서 찾고, 기를 교배하는 데서 찾으며 기를 태가 생기는데서 찾는다.”, “산에 혈이 생기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태기가 있고 자식이 있으며 능히 생산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아래에 모이는 혈은 사람의 음낭과 같다”고 했다. 때문에 풍수 혈의 원래 뜻은 여자의 음부를 상징한다. 혈은 마땅히 여자의 음부처럼 음양이 교배하는 곳으로 기를 모으고 생육하며 만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인정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기 빌랄한 정신과 역량을 상징한다. 고대의 사민집에 의하면 도시부락은 모두 생기가 있는 땅을 선택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고인들의 자연관을 잘 나타내 주는 “천인합일” 사상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천지는 대우주이고 사람은 소우주”라고 했듯이 자신으로부터 우주를 추측한 것이다. “주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깝게는 사람으로부터 찾고 멀게는 만물에서 취한다”는 논리가 이러한 타당성을 더해준다. 천일합일은 천, 지, 인을 한 유기 정체로 보고 풍수에서 숨쉬는 관계로 표현되는 이른바 태조산, 태종산, 소조산, 소종산으로부터 부모산에 이르기까지 그 등급의 차이는 있으나 구성의 원리가 일치한데서 볼 수 있다. 부모산도 같은 원리에 따라 세분되지 만 구조는 역시 변하지 않는다. “사민집”의 풍수 환경을 비교해 볼 때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기본 구조는 일치된다. 이를테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물을 끼고 있는 용수배합이야 말로 함께 호흡하는 친화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파주는 예로부터 명당·길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조선시대 광해군 때는 교하로 도읍을 옮기자는 ‘교하천도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파주에는 수 많은 인물묘역이 명당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황희선생 묘와 윤관묘역에 대한 간산기(看山記)를 적어본다.

2. 황희 묘의 풍수 형국

황희 묘는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위치하고 있다.

황희 정승은 조선 초의 명재상으로 청렴결백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는데 청백리로 이름 높은 훌륭하신 先生의 墓를 참배할 수 있는 看山 행사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깨끗하게 포장된 자유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노라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녘의 山川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이 생각 저 생각 하다보니 어느덧 선생의 墓에 도착했다. 묘역 주위를 둘러보니 後孫들이 깨끗하게 손질한 모습이 마치 정승의 고결한 성품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신평 선생님을 모신 우리 회원들은 간단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참배한 후 주위를 둘러보니 주위의 국세는 나무랄데 없이 훌륭하다. 선생의 封墳 모양은 다른데서는 보지 못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사각으로 된 封墳의 앞쪽 左右로 2단으로 돌을 쌓아 封墳의 모양이 거북의 발 모양 같기도 하고, 마차의 손잡이 모양 같기도 하며 封墳 뒤에서 보면 凹字 모양으로 되어있다. 入首龍을 살펴보니 主山에서부터 之玄屈曲으로 내려온 龍이 分水脊上을 만들고 살짝 起頭하여 到頭를 만들고 堂板을 튼 실하게 만든 후 毽簪을 형성하였다. 裁穴은 到頭를 枕靠하여 가장 큰 氣運에 葬하였다. 青龍 案山이 蛾眉沙의 모양으로 훌륭하며 주위의 四勢가 順하게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水口를 바라보니 水口역시 關鎖하였으나 外堂 水口는 斜飛하게 흐른다.

坐向은 良坐坤向에 庚酉 破口로서 文庫消水 自生向에 합법하다. 그러나 左旋龍에 左旋水로 아쉬움이 있으며, 案山의 모양은 훌륭하나 向을 한곳이 약간 배가 나와서 欠이며 朝堂 聚積이 부족하여 아쉽다.

穴板의 左側은 둥그스름하여 튼실하나 白虎쪽 穴板 좌측은 수맥의 영향으로 인하여 약간 虛하다. 또한 青龍에 비하여 內白虎가 짧아서 左先弓의 모양이다. 다시 한번 훌륭하신 정승의 墓에 고개 숙여 예를 올린 후 반구정으로 향했다. 반구정은 임진강 기슭에 세워진 정자로 황희 정승께서 관직에서 물러나 초야에 묻혀 갈매기를 벗삼아 여생을 보내시던 곳이다. 반구정에 올라 임진강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노라니 웬지 모르게 서글퍼진다. 반구정에서 내려오면 선생의 影堂과 동상이 있다. 先生의 유업을 기리기 위하여 後孫들이 영

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선생의 호를 따라 방촌영당이라고 한다. 影堂 주위를 둘러보니 아쉽게도 수맥 위에 있다. 흔히들 窩穴을 大富之地라 하며 삼태기 明堂이라 하여 風水師들이 좋아하나 아무리 주위의 局勢가 좋다고 하여도 주의할 점은 수맥을 피해야 한다. 이곳 影堂은 수맥으로 인하여 주인은 없고 객만 있다. 그러므로 貴氣相資를 하지 못했다. 또한 이곳은 가족끼리 한가롭게 나들이를 즐기며 자녀들에게 역사 공부와 함께 훌륭하신 先生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안성맞춤인 듯 하다.

3. 윤관묘 풍수형국

윤관(1040~1111)장군은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장군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용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장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잠시도 책읽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곱살 때 뽕나무를 소재로 한 칠언절구의 시를 지어 주위를 놀라게 하였으며 무술에도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장군의 본관은 坡平(파평), 자는 同玄(동현), 시호는 文肅(문숙)이며 장군은 고려 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을 세워 고려 개국을 도운 三韓功臣(삼한 공신) 辛達(신달)의 고손이며 檢校小府少監(검교소부소감)을 지낸 執衡(집형)의 아들이다.

장군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숙종때 어사대부, 어부상서 등을 거쳐 한림학사 승지가 되었다. 그 당시 북쪽 국경지대에 새롭게 일어난 동여진 족이 세력을 확대하고 고려의 국경 요새 등을 잠식하기 시작하였다. 1103년 부족장에 우야소가 그 자리에 올랐을 때에는 그 세력이 함흥 부근까지 들어와 주둔할 정도였다. 이리하여 고려군과 우야소의 여진군은 일죽즉발의 충돌 상태에 놓였으며, 1104년 초 완안부의 기병이 먼저 정주관 밖에 쳐들어왔다. 이에 숙종은 무력으로 여진 정벌을 결심하고 문하시랑평장사 임간을 시켜 이를 평정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여진군에게 패하자, 윤관은 왕명을 받고 추밀원사로서 동북면 행영병마도통사가 되어 국경을 침범하는 여진족의 정벌에 나섰으나 그들의 강한 기병부대에 패하고 임기응변으로 강화를 맺고 철수하였다. 고려군은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진족은 말을 탄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

어 고려군 보다 기동력이 빨랐던 것이다.

윤관 장군은 이 일을 교훈 삼아 숙종에게 전의하여 전투력 증강과 기병의 조련을 위해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하고 고려군을 빠르고 강한 기병 부대로 길렀다. 1107년(예종3) 여진족이 다시 국경을 침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윤관 장군은 대원수로 임명되어 부원수 오연총과 함께 별무반을 포함하여 군사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족을 물리쳐 135개의 마을을 점령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어 1108년 함주, 영주, 응주, 복주, 길주, 공험진, 송녕진, 통태진, 진양진 등 아홉곳에 9성을 쌓고 남쪽 지방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 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때 오랑캐땅을 개척한 것이 사방 700여 리에 달했고, 선춘령에 경계비를 세워 고려의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농토를 빼앗긴 여진족은 계속 침략하면서 9성을 돌려주면 다시는 침략을 하지 않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9성을 돌려주고 강화를 맺었다.

여진족에게 9성을 되돌려 주자 윤관을 시기하던 신하들의 모함으로 여진족 정벌에 실패했다는 추궁을 받아 공신의 칭호마저 빼앗기고 벼슬을 박탈당했다. 또한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만 낭비하였다 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탄핵을 받아 개경으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윤관을 아낀 예종은 재상과 신하들의 탄핵을 물리치고 1110년 윤관에게 文武를 겸한 공신으로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 상주국 감수국사라는 벼슬을 내렸으나 윤관은 벼슬을 사양하고 고향인 파평(파주)에서 지냈다. 1111년(예종 6년) 세상을 떠났다.

윤관 장군은 많은 선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어진 성품과 학식을 겸비했다고 전한다. 1130년 예종의 묘정(廟廷)과 조선 문종 때에 송의전에 배향(配享)되었다. 장군의 시호는 처음에 문경이었으나 후에 문숙으로 고쳐졌으며, 해동명장이라는 명성으로 지금까지 추앙 받고 있다.

장군의 묘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에 있다.

서울에서 용미리 석불입상을 지나 304번 국도옆에 넓은 주차장과 커다란 신도비, 홍살문, 사당인 여충사(麗忠祠)와 함께 크고 웅장한 묘역이 있다. 처음 이곳을 찾는 이들은 묘역 전체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웅장하며 묘역으로 오르는 길은 깨끗하게 손질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봉분 주위로는 곡장을 두르고 봉분 정면에는 커다란 상석과 묘비가 있고, 좌우

에 망주석이 있고 커다란 장명등과 좌우로는 동자석,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 장군의 묘역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무덤이 있다. 흥살문 오른쪽으로 윤관장군이 타고 다니던 애마의 무덤과 장군이 타고 다니던 平轎子(평교자)의 무덤이 있다. 다른 곳에서 가끔 말이나 충견의 무덤은 봤으나 가마 무덤은 유일하게 이곳에만 있는 것 같다.

또한 이곳 장군의 墓에는 곡장을 하게 된 역사적 내력이 있다.

중종의 계비 文定王后(문정왕후)의 동생인 尹元衡(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 문정왕후가 죽자 관직을 사직당하고 귀양 가서 죽음을 당했다. 그때 윤원형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선조인 윤관장군의 墓를 파헤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안 후손들이 장군의 유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봉분을 헐고 평장(平葬)을 하였으므로 장군의 墓를 파헤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墓를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그 후 조선 인조와 효종 때 세도가이며 영의정을 역임한 청송 심씨(青松沈氏) 심지원(沈之源, 1593-1662년)이 죽자 그 후손들은 윤관 장군의 墓위에 墓를 썼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영조 때 파평윤씨 후손들이 윤관장군의 墓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장군의 墓 바로 뒤에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墓가 있으므로 장군의 후손들은 심지원의 墓가 入首 龍脈을 차단하여 氣運이 들어오지 못한다며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송 심씨 후손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때문에 두 가문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자 파평 윤씨들은 윤관 장군의 墓 뒤에다 담을 높이 쌓아 심지원의 墓 앞을 답답하게 가려버렸다. 그러자 청송 심씨 후손들은 담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 문제로 조선시대에 몇 백년 동안 山訟(산송)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그 후로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이에 대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두 집안이 서로 양보하여 담을 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듈다. 심씨 집안에서는 전망을 가려 向을 가리므로 손해가 되고, 윤관 장군 후손들에게는 곡장이 入首龍을 놀려 地氣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서로가 손해가 될 뿐이다.

이곳 장군의 墓는 웅장하게 솟은 主山에서 之玄屈曲으로 급경사를 이루며 내려오던 山脈이 장군의 墓 뒤에서 끝나고 새로운 龍脈이 출발하여 훌륭한 틈 실하고 넓은 穴板을 만들었다. 이곳을 초보자들은 곡장 左右가 좁아서 過峽處

로 착각하기 쉬우나 過峽處가 아니고 새로운 龍脈이 출발하는 지점에 葬했다. 곡장 뒤 심지원 영의정 墓에 올라가서 보면 山脈이 右旋으로 돌면서 곡장 좌 측에서 山脈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봉분에 작은 氣運은 있으나 곡장 뒤에서 山脈이 끝나고 새로운 脈이 出脈하여 내려오는 氣運이다. 상석과 장명동 사이에는 水脈이 형성되어 있고 장명동 앞으로 훌륭한 氣運이 있으나 아쉽게도 穴的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다.

이곳의 局勢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고 穴場 주위에 솟아있는 봉우리들도 모두 훌륭하게 솟아서 沙要秀했다. 文筆峰과 天馬沙 등의 모양을 하고 있다.

青龍 白虎는 여러 겹으로 穴場을 감싸며 보호하고 있어서 훌륭하나 내 本身 脈의 青龍은 약하고 外青龍은 다른 峰에서 내려온다. 青龍의 어깨 부분은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내려왔다.

內白虎는 단정하고 효순하고 内白虎 너머로 外白虎가 솟아서 曜星의 역할을 하면서 破口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水口沙의 역할을 한다. 主山에서 부터 내려온 실질적인 幹龍은 外白虎가 된다.

水口는 交 되어 不通丹에 해당한다. 이곳의 外白虎는 破口에서 直風으로 곧바로 불어오는 바람은 개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穴場에는 藏風된 바람이 오도록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한다. 양군송 선사가 穴場에 부는 바람은 도적을 피하듯 하라고 했듯이 이곳 穴場에는 완벽하게 藏風이 돼서 걸러진 순한 바람이 온다.

破口를 막아주는沙는 破口가 우측일 때는 穴場보다 白虎沙가 튼실하고 높아야 하고, 破口가 좌측일 때는 좌측의 青龍沙가 穴場보다 튼실하여 완벽하게 藏風이 되어야 한다고 신평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좌우 青虎沙가 穴場 좌우로 단정하게 내려오나 내 前을 환포하지 못해서 内를 긴밀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파주 임진강 유역 철새 조사

문 성 수*

1. 서 론
2. 본 론
 - 1) 파주의 철새 서식지
 - 2) 파주의 철새 현황
 - 3) 파주의 토새
3. 결 론

1. 서 론

임진강은 강원도 고미탄천, 경기도 평안천, 한탄강등 250여개의 지류가 모여 형성된 길이 272.4km 면적 8,129.5km²강으로 북쪽에서 발원 연천 파주를 거쳐 한강으로 합류하는 한강의 제1지류의 강이다. 분단의 역사로 파주시를 상징하는 생태환경의 보고인 임진강은 어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수많은 어종과 식물 철새들이 서식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곳이다.

우리지역 임진강은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수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서식지별 개체군을 형성하며 지류천이 합류되는 퇴적층 분지를 중심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 해마다 우리파주 임진강을 찾아 서식하는 철새들의 종류와 서식지등 현황을 파악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파주의 대표적인 대규모 철새 도래지는 통일동산 주변, 자유로 문산대교 주

* 연구위원

변, 통일대교 및 초평도 주변, 장파리 취수장 주변, DMZ 민통선 장단반도를 꼽을수 있다. 이곳 철새도래지의 특징은 임진강과 지류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퇴적분지가 조성되어 있고 비옥한 뼈과 습지 초지가 잘 발달 되어 있다. 또한 서식처 인근에는 넓은 평야와 야산이 펼쳐 있어 먹이가 풍부하고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자연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파주의 철새 서식지

(1) 통일동산 주변

통일전망대 밑 곡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류인 이곳은 퇴적물이 많이 퇴적되어 분지를 형성 하고 있다. 주변에는 습지와 초지가 잘 형성 되어있고 논이 평야를 이루고 있어 철새들에게 풍족한 먹이를 제공하고 있다. 한강과 평야를 오가며 단체로 서식하는 재두루미, 개리 쇠기러기, 때 까마귀 등이 대규모 개체군을 형성 서식하는 이곳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철새들이 무리를 형성 서식하였으나 지금은 교하 신도시 및 통일동산 자유로 확장공사로 인해 많은 수의 철새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쇠기러기, 재두루미, 개리등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대표적인 철새 사진	서식지 부근 지도
	

*탐조 된 철새 : 재두루미 / 개리 / 가창오리 / 청동오리 / 때까마귀/고니 등

(2) 자유로 문산 대교 주변

자유로 문산IC 문산대교 주변은 문산천 지류와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다. 문산천 지류의 퇴적물이 넓게 충적되어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뼈 및 습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문산천 주변에 논이 평야를 이루고 있어 먹이가 풍

부하며 임진강과 평야를 오가며 비오리, 쇠기러기, 황오리, 팽이갈매기 등이 무리를 지어 집단 서식하고 있다. 작년까지 많은 종류개최와 수의 철새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LG필립스와 주변 개발여파로 현저히 줄어든 철새들의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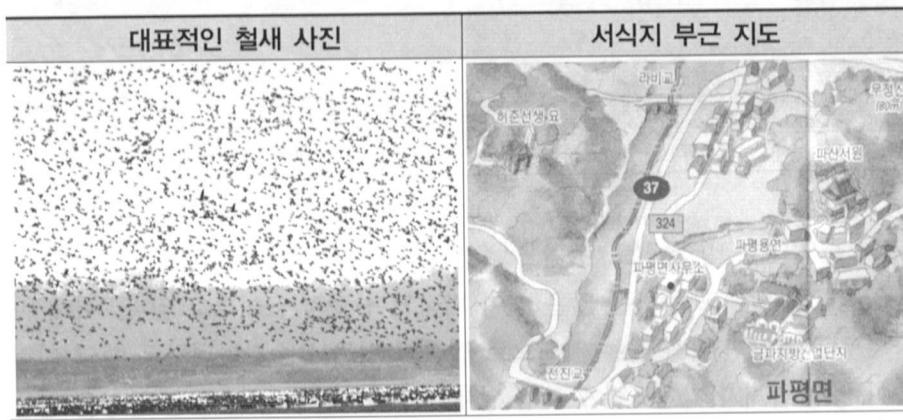
(3) 통일대교 및 초평도 주변

임진각 통일대교 주변은 많은 뱀이 퇴적되어 습지를 이루고 있다. 서해 바다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차로 뱀의 퇴적층이 형성 습지가 자연스럽게 조성 철새들이 서식할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통일대교주변 초평도는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섬의 형태로 중앙에 분지가 조성 50년 넘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초지, 습지가 잘 보존되어 철새들이 서식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있어 재갈매기, 왜가리, 원앙, 팽이갈매기,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고 있다.



(4) 장파리 취수장 주변

리비교와 전진교 중간 장파리 취수장 맞은편 강건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임진강 줄기가 굽어져 물줄기 외곽으로 15,000평의 자연스럽게 모래 퇴적 층 분지가 조성되어 있다. 사람들의 접근이 격리되어 수천마리의 대규모 쇄기러기 때들이 집단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주변에 농지 평야가 있어 임진강과 평야를 오가며 먹이를 조달하며 서식하고 있다. 또한 기러기, 개리, 비오리 들도 소규모 집단 군락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서식하며 철새들이 집단 이동시 대단한 장관을 연출한다.



*탐조 된 철새 : 재두루미 / 개리 / 큰고니 / 쇠기러기 / 큰기러기 / 비오리 / 가창오리등

(5) 비무장 지대 장단반도

반구정 건너편 통일촌 서쪽 장단반도, 해마루촌 덕진산성 주변에는 대규모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희귀조류인 독수리는 총 개체수 3,000 마리로 이중 300여 마리가 이곳 장단반도에 서식하며 겨울을 나기 위해 이곳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먹이가 부족해 탈진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어 안타깝다. 먹이를 찾기 위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문산, 파평, 장단, 적성지역에서는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철새 사진	서식지 부근 지도
	

*탐조 된 철새 : 독수리 / 재두루미 / 황오리 / 청동오리 / 흰뺨검둥오리 / 황조롱이 / 쇠기러기 / 큰기러기 등

2) 파주의 철새 현황

- 독수리 [禿-, einereous vulture] – 천연기념물 제243호

분류	황새목 수리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	
크기	날개길이 79~90cm, 꼬리길이 35~41cm	
색	갈색(몸, 부리), 회색(다리)	
생식	1회에 1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산지, 하천부지나 하구	
분포 지역	지중해 서부, 아시아 동부	

날개길이 70~90cm, 꼬리길이 35~41cm이다. 수컷의 겨울깃은 뒷목과 정수리 피부가 드러나 있고 이마 · 머리꼭대기 · 눈앞 · 뺨 · 턱밑 · 멱 · 앞목에 짙은 갈색 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뒷목과 닿는 부분에는 목테 모양 솜털이 있으며 머리에는 회색 솜털이 있다. 몸통깃은 어두운 갈색이고 부리는 검은 갈색, 다리는 회색, 홍채는 흰색이다. 부리와 발톱이 날카롭다. 여름깃은 온몸이 얇은 갈색을 띤다.

탁 트인 하천부지 · 하구 · 해안에 찾아와 동물이나 새의 썩은 시체를 찾아 먹는다. 둥지는 나뭇가지 위나 바위 위에 틀고 2~4월에 한배에 1개의 알을

낳는다. 날아오르는 힘은 강하지만 잘 걷지는 못한다. 한국에서는 참수리·검독수리·흰꼬리수리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지중해 서부에서 아시아 동부에 걸쳐 분포하며 한국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다.

• 흰꼬리수리 [White-tailed sea eagle] – 천연기념물 제243호

분류	황새목 수리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번식 후 어린 새끼 동반
크기	몸길이 80~94cm
색	황갈색(머리), 갈색, 백색(꼬리)
생식	1회에 1~4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호수, 하천, 하구, 해안, 산림 등 개활지
분포 지역	구북구, 신북구의 최동부지역 (서남 그린란드)



몸길이 80~94cm이다. 크고 육중한 수리이다. 성조는 황갈색에서 담황갈색의 머리와 목, 그리고 백색 꽁지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이다. 유조는 머리와 목의 담색부가 없고 전체가 갈색으로 얼룩지며 백색을 띤 꽁지는 나이에 따라 차가 있다. 검독수리의 유조와는 각이 진 꽁지가 아닌 V자형의 꽁지로 식별된다. 해안의 바위, 진흙 갯벌, 소택지, 내륙의 호수, 하천, 하구 및 개활지나 산림에도 서식하나 산악지대에는 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임진강·한강·낙동강 등 큰 하천이나 하구 또는 동서 해안 및 남해 도서 연안 등 도처에서 월동한다. 단독생활을 하나 번식 직후는 어린 새를 동반하기도 한다. 날개를 완만하게 펴덕거려 난다. 비상할 때에는 날개를 곧게 수평으로 뻗고, 날개를 펴덕여 날 때에는 날개를 일정한 각도로 굽힌다. 산란기는 2월 하순에서 4월 중순이며 1~4개의 알을 낳는다. 주로 암컷이 포란한다. 포란기간 약 35일이고 포육기간 28~35일이면 이소한다. 먹이는 동물성으로 어류인 연어와 송어, 짐승인 산토끼와 쥐, 조류인 오리·물떼새·도요새·까마귀 등을 주식으로 한다. 특히 연어는 기호물이다. 구북구와 신북구의 최동부 지역(서남 그린란드)에 분포한다. 겨울에는 결빙되지 않은 수면을 찾아 일부가 남하 이동한다. 한국에서는 1973년 4월 12일에 천연기념물 제243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 재두루미 (white-necked crane/Grus vipio) – 천연기념물 제2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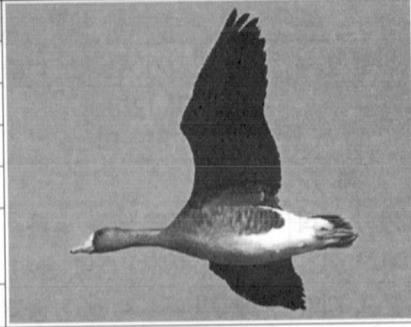
분류	두루미목 두루미과	
생활 방식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룸	
크기	몸길이 약 127cm, 날개길이 53~61cm	
색	담황색	
생식	1회에 2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큰 강의 하구나 개펄, 습지, 농경지	
분포 지역	시베리아, 우수리, 몽골, 중국(북동부)	

몸길이 127cm의 대형 두루미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래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바로 아래에서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 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색이다.

주로 습지 풀밭이나 개펄에 산다. 큰 강의 하구나 개펄, 습지, 농경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겨울에는 암수와 어린 새 2마리 정도의 가족 무리가 모여 50~300마리의 큰 무리를 짓는다. 긴 목을 S자 모양으로 굽히고 땅위를 걸어 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 날아오를 때는 날개를 절반 정도 벌리고 몇 걸음 뛰어가면서 활주한 다음 떠오른다. 날 때는 V자형 대형을 이루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직선을 이루기도 한다. 앞이 턱 트인 개펄이나 습지 풀밭에서 무리지어 잔다. 밤에는 흑두루미처럼 한쪽 다리로 쉬되, 목을 굽혀 머리를 등의 깃 사이에 파묻는다. 4월경에 한배에 2개의 알을 낳는다.

식성은 주로 벼 · 보리 · 풀씨 및 화본과식물의 뿌리 등 초식성이나 작은 물고기나 새우 · 고등 · 곤충 등의 동물성 먹이도 잡아먹는다. 한강 하구에서는 수송나물 · 칠면초 · 매자기 등의 풀씨와 매자기 뿌리의 녹말도 먹는다. 시베리아 · 우수리 · 몽골 · 중국(북동부) 등지에서 번식하고 한국 · 일본 · 중국(남동부)에서 겨울을 난다. 한국에서는 10월 하순에 찾아와 이듬해 3월 하순에 되돌아가는 드문 겨울새이다. 한반도를 지나가는 나그네새이기도 하다. 1945년 이전까지는 1,000마리 정도의 무리가 각지에서 겨울을 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6 · 25 전쟁 이후에는 수십 마리 단위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불과 20~30마리의 무리도 보기 어렵게 되었다. 1968년에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되었다.

• 쇠기러기 [white-fronted goose] 대한민국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분류	기러기목 오리과	
생활 방식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룸	
크기	몸길이 약 75cm	
색	회갈색	
생식	1회에 3~7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농경지, 습지, 만, 간척지 등 탁 트인 지역	
분포 지역	한국,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몸길이 약 75cm이다. 몸 빛깔은 보통 회갈색인데 몸통 앞쪽이 등쪽보다 연하고 이마의 흰색무늬와 분홍색 부리, 오렌지색 다리, 배쪽의 불규칙한 가로무늬 등이 특징적이다. 학명과 영어명은 모두 '이마가 흰 기러기'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흔한 겨울새이고 100~1,000마리 이상의 무리를 쉽게 볼 수 있는데, 11~3월에 해안지역과 평지에서 눈에 띈다.

농경지 · 못 · 습지 · 만 · 간척지 및 하구 부근의 앞이 탁 트인 넓은 지역을 좋아하며, 낮에는 파도가 잔잔한 만이나 호수에서 잠을 자고, 아침과 저녁에는 농경지로 날아와 주로 식물성 먹이를 찾아 먹는다. 툰드라 하천의 섬이나 습지 풀밭에 접시 모양의 등우리를 틀고 5월 중순~7월 상순에 한배에 3~7개(보통 4개)의 알을 매일 1개씩 낳는다. 암컷이 알을 품은 지 21~28일(보통 23일)이면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45일간(캐나다 북서부) 또는 55~65일간(요콘 삼각주)의 성장 기간을 거쳐 등우리를 떠난다.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등지에서 번식하며, 북위 30° 이남 지역에서 겨울을 난다.

•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platyrhynch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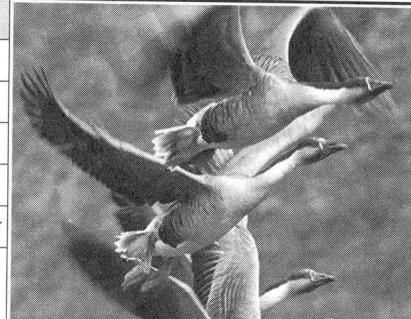
분류	기러기목 오리과	
생활 방식	무리 생활	
크기	몸길이 수컷 약 60cm, 암컷 약 52cm	
색	녹색 머리(수컷), 갈색 얼룩(암컷)	
생식	1회에 6~12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하천, 호수, 못 등지의 풀밭이나 습지	
분포 지역	북반구	

몸길이는 수컷이 약 60cm, 암컷이 약 52cm이다. 수컷은 머리와 목이 광택 있는 짙은 녹색이고 흰색의 가는 목데가 있다. 윗가슴은 짙은 갈색이다. 꽁지 깃은 흰색이지만 가운데 꽁지깃만은 검정색이며 위로 말려 올라갔다. 부리는 노란색이다. 암컷은 갈색으로 얼룩진다. 집오리의 원종이며, 한국에서는 가장 흔한 겨울새이자 대표적인 사냥용 새이기도 하다.

만·호수·못·간척지·하천·해안·농경지·개울 등지에서 겨울을 낸는데, 낮에는 만이나 호수·해안 등 앞이 트인 곳에서 먹이를 찾고 저녁이 되면 논이나 습지로 이동하여 아침까지 머문다. 하늘에서는 V자 모양을 이루고 난다. 4월 하순에서 7월 상순까지 한배에 6~12개의 알을 낳아 28~29일 동안 암컷이 품는다. 식성은 풀씨와 나무열매 등 식물성 먹이 외에 곤충류와 무척추동물 등 동물성 먹이도 먹는 잡식성이다. 북위 30~70° 사이의 북반구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며 지역적 기후 조건에 따라 남쪽에서 겨울을 난다.

• 개리 [Chinese goose] – 천연기념물 제325호

분류	두루미목 오리과
생활 방식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룸
크기	날개길이 41~48cm, 꽁지길이 11~17cm
색	갈색
생식	1회에 4~6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호수나 간척지, 풀밭, 습지, 논밭
분포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시베리아, 카마카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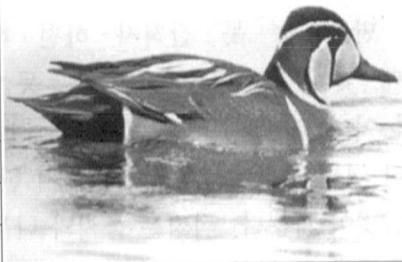


날개길이 41~48cm, 꽁지길이 11~17cm이다. 겨울새로 10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볼 수 있는 머리와 뒷머리·머리꼭대기·뒷이마·뒷목은 붉은 갈색이고 턱밑은 연한 적갈색, 목·뺨·옆목은 흰색이다. 또 가슴은 연한 황갈색, 배는 흰색, 날개는 어두운 회갈색이다. 겨울에 호수나 간척지·풀밭·습지·논밭 등에 수십 마리씩 떼를 지어 살며, 번식지에서는 강변이나 풀밭, 호수의 작은 섬 등에서 땅 위 움푹 패인 곳에 마른 풀을 깔아서 접시 모양의 둥우리를 튼다. 6월경에 4~6개의 알을 낳고 먹이로는 수생식물이나 육상 식물의 잎, 조류(藻類), 조개류 따위를 먹는다. 한국에서는 흑기러기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25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시베리아 중남부, 아무르 등지에서 번식

하고 한국·일본·중국(북동부)·몽골·시베리아(동부)·캄차카반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 가창오리 [Baikal teal]

분류	두루미목 오리과
생활 방식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룸
크기	몸길이 약 40cm, 날개길이 약 21cm
색	
생식	1회에 6~9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하천, 호수, 습지, 만, 매립지
분포 지역	시베리아 동부



몸길이 약 40cm, 날개길이 약 21cm이다. 수컷은 얼굴 앞쪽 절반이 노란색이고 중앙의 검은 띠를 경계로 하여 뒤쪽 절반은 녹색으로 윤이 난다. 부리는 검고, 흥채는 갈색이며 다리는 회색이 도는 노란색이다. 암컷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이며 배를 제외한 몸 전체에 붉은 갈색의 얼룩무늬가 나 있다. 뺨과 벽, 눈 뒤쪽은 노란색이고 검은 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부리가 시작되는 부위에 흰 점이 뚜렷하다.

봄과 가을에 한국을 거쳐 가는 철새이다. 4~7월에 한배에 6~9개의 알을 낳는데,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6일이며 암컷이 품는다. 시베리아 동부에서 번식하고 한국·일본·중국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세계적인 희귀조로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수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 큰기러기 [bean go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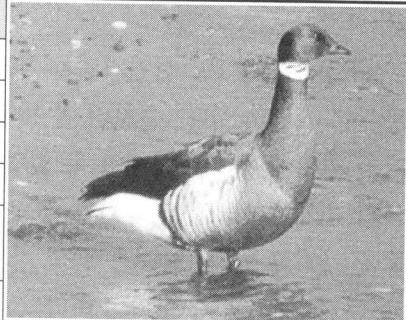
분류	두루미목 오리과
생활 방식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룸
크기	몸길이 76~89cm
색	짙은 갈색
생식	1회에 4~5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하천, 호수, 뜬, 간척지, 만, 농경지
분포 지역	구북구 북부, 북극, 몽골, 북부



몸길이 76~89cm이다. 일반 기러기보다 짙은 갈색을 띠며 부리는 검정색이나 끝 가까이에 등황색 띠가 있다. 다리는 오렌지색이다. 몸 아랫면에 가로무늬가 있다. 한국에 찾아오는 기러기류 중 쇠기러기 다음으로 흔한 겨울새로 전국에서 볼 수 있다. 10월 하순에 찾아오기 시작하여 3월 하순이면 완전히 떠난다. 만·간척지·농경지·못·호수·하천 등의 습지와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쉴 때는 한쪽 다리로 서거나 배를 땅에 대고 머리는 뒤로 돌려 등깃에 파묻는다.

한배의 산란수는 4~5개이며 7개까지도 낳는다. 알을 품는 기간은 약 26일 인데, 암컷은 알을 품기 시작하면 좀처럼 등지를 떠나지 않으며 하루 한 번 정도 먹이를 찾아 나선다. 새끼의 성장 기간은 7~8주이다. 초식성으로 밀과 보리의 푸른 잎이나 버려진 날알, 감자, 고구마, 마름 열매, 잡초 씨 등 다양하게 먹는다. 구북구 북부에서 번식하고, 겨울에는 남쪽 온대지방까지 내려가 겨울을 난다.

• 흑기러기 [黑-, brent goose] – 천연기념물 제325호

분류	기러기목 오리과	
생활 방식	단독 혹은 작은 무리를 이룸	
크기	몸길이 56~61cm	
색	검정 / 푸른빛이도는 회색	
생식	1회에 3~8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만, 갯벌, 간척지, 농경지, 못, 호수, 하천	
분포 지역	시베리아 동부에서 캐나다 서부	

몸길이 56~61cm이다. 머리와 목·가슴은 검정색이고 흰색 아래꽁지덮깃을 제외한 나머지 깃은 푸른 빛이 도는 회색이다. 목에는 흰색 고리무늬가 있으며 등과 어깨깃·허리는 검은 갈색이다. 한국에서는 남해안 연안(전라남도 여수에서 부산광역시 다대포 앞바다에 이르는 해상)에 해마다 100마리 미만의 무리가 찾아와 겨울을 난다.

습한 이끼가 덮인 툰드라 지대의 호수나 하구 갯벌 등지에서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주로 만이나 해안의 얕은 곳에서 지내는데 때로는 하천이나 호수·간척지에도 내려앉는다. 단독 또는 작은 무리로 생활하면서 만조 때나 밤에는

바다 위에서 쉰다. 때로는 육상생활도 하며 해안 암초 위를 걸어다니기도 한다. 6월 중순에 3~8(보통 5)개의 알을 낳는다. 겨울에는 주로 해조류를 먹고 조개류도 먹는다. 시베리아 동부 북극지방에서 캐나다 서부의 툰드라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며, 한국(남부) · 일본 · 중국(북부)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한국에 찾아오는 7종의 기러기류 중에서 개리와 함께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25호로 지정되었다.

• 원앙 [鴛鴦, mandarin duck] – 천연기념물 제327호

분류	기러기목 오리과
생활 방식	소규모 무리
크기	몸길이 43~51cm, 몸무게 444~550g
색	검정 / 푸른빛이도는 회색
생식	1회에 9~22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계곡, 연못
분포 지역	한국, 사할린섬, 일본, 타이완, 중국(북동부), 영국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었다. 몸길이 43~51cm, 몸무게 444~550g이다.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답다. 여러 가지 색깔의 늘어진 댕기와 흰색 눈 둘레, 턱에서 목 옆면에 이르는 오렌지색 깃털(수염깃), 붉은 갈색의 윗가슴, 노란 옆구리와 선명한 오렌지색의 부채꼴 날개깃털(은행잎깃) 등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갈색 바탕에 회색 얼룩이 있으며 복부는 백색을 띠고 눈 둘레는 흰색이 뚜렷하다.

한국에서는 전국의 산간 계류에서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이나, 겨울에는 겨울을 나려는 무리들이 내려오므로 봄 · 가을의 이동 시기에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 광릉 숲에서는 해마다 15~20마리의 무리가 번식한다. 여름에는 4~5마리 또는 7~8마리의 무리가 활엽수가 우거진 계류나 물이 관공 또는 숲속 연못 등지에 살면서, 저녁에는 계류의 바위 위나 부근의 참나무 가지에 앉아서 잠을 잔다. 겨울에는 북녘에서 번식하는 무리가 내려와 저수지 · 수원지 · 호수 · 바닷가 · 냇가 등지에서 몇 마리 또는 100~200마리씩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주위가 가려진 나무 밑, 바위, 물위로 뻗은 나뭇가

지에 앓아 머리를 등으로 올리고 한쪽 다리는 들고 잔다. 한배에 9~12(때로는 13~14)개에서 22개까지 알을 낳아 28~30일 동안 품으며 알을 깨고 나온 새끼는 나무 위의 구멍에서 땅 위로 뛰어내려 물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다. 도토리를 비롯한 나무열매를 즐겨 먹으며 달팽이와 작은 민물고기도 잡아먹는다. 한국 · 사할린섬 · 일본 · 타이완 · 중국(북동부) · 영국 등지에 분포한다.

• 쇠부엉이 [short-eared owl]

분류	올빼미목 올빼미과
생활 방식	단독 생활
크기	몸길이 35~41cm
색	누런 갈색
생식	1회에 4~8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풀숲, 관목숲, 하천부지, 갈대밭
분포 지역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몸길이 약 35~41cm이다. 앞이 탁 트인 곳에서 낮에 사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올빼미이다. 깃은 누런 갈색이며 굵은 세로무늬가 있다. 날개는 길고 날개 뒷면과 아랫면에는 짙은 얼룩이 있다. 머리의 귀 모양 깃은 작아서 야외에서는 볼 수 없다. 얼굴 모양과 귀 모양 깃의 크기가 개체마다 달라서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흔한 겨울새이다. 보통 저녁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나 낮에도 활동한다. 날 때는 날개 끝을 활 모양으로 굽힌 채 좁고 긴 날개를 펴거려 파도 모양으로 낮게 난다.

풀숲이나 관목 그늘, 습지 또는 마른 갈대밭의 땅 위 오목한 곳에 알을 낳는데, 4월 하순~5월 상순에 한배에 4~8개에서 때로는 9~14개까지 낳아 암컷이 24~28일 동안 품는다. 어미새가 새끼를 돌보는 기간은 12~17일이다. 들쥐나 작은 들새 및 곤충류를 잡아먹으며 먹이를 풀숲에 숨겨 두는 버릇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 · 남아메리카에 분포한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위 약 43°에서 북극에 이르는 지역에서 번식하고 대체로 번식지의 남쪽 온대 지역에 내려가 겨울을 난다.

• 잣빛개구리매 [hen harrier] – 천연기념물 제323호

분류	황새목 수리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소규모 무리 생활
크기	날개길이 33~40cm, 꼬리길이 22~28cm
색	회색
생식	1회에 4~5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습지, 갈대밭, 초원
분포 지역	시베리아 · 몽골 · 중국(북동부) · 유럽



날개길이 33~40cm, 꼬리길이 22~28cm, 부리길이 1.5~2cm이다. 이마에서 허리까지는 잣빛이고 어깨와 등은 다소 갈색을 띤다. 아랫면은 흰색이다. 부리는 회색이고 흥채는 노란색이다.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겨울새로서 벼드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는 습지에서 서식한다.

4~5월에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으며 번식기 외에는 잘 올지 않는다. 먹이는 참새류 · 오리류 · 설치류이다. 땅 위에 있는 것을 잡아먹거나 날아가는 작은 새를 쫓아가 잡기도 한다. 땅 위를 걸어다니기도 하고 가볍게 뛰기도 하는데, 뛸 때는 꼬리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든다. 시베리아 · 아무르 · 몽골 · 중국(북동부) · 유럽 등지에 분포하고 한국 · 일본 ·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 흑두루미 [hooded crane] – 천연기념물 제228호

분류	두루미목 두루미과
생활 방식	무리 생활
크기	몸길이 약 105cm
색	몸빛은 회흑색, 머리와 목은 흰색
생식	
서식 장소	논 · 밭 · 습지
분포 지역	시베리아 남동부, 만주, 한국, 일본



두루미목 두루미과 새. 몸길이 1m 정도. 날개길이 48~53cm, 꼬리길이 16~19cm, 몸빛은 회흑색이고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앞 이마와 눈 앞에는 검은

색의 센털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는 뺨간 피부가 노출되어 있으나 어린 새는 회백색의 털이 나고 노출부가 없다. 부리는 노란색이나 암황색이고 다리는 까맣다. 날 때에는 긴 목과 다리를 앞뒤로 뻗어 전체적으로 수평에 가까우며 무리가 날 때에는 V자 모양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100마리 이상의 무리를 지어 논·밭·습지 등에서 곡물이나 식물의 줄기·잎·뿌리 등을 먹고 작은 물고기·우렁이·개구리 등을 먹기도 한다. 밤에는 안전한 장소를 골라 지상에서 잠을 잔다. 삼림에 둘러싸인 습지에서 번식한다. 시베리아 남동부, 만주·몽골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국·중국 동북부, 일본에서 겨울을 난다.

• 저어새 [Platalea minor] – 천연기념물 제205호

분류	황새목 따오기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적은 무리 생활
크기	몸길이 약 84cm
색	흰색
생식	한번에 4~6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간척지, 늪지, 갈대밭, 논
분포 지역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하이난섬, 인도



황새목 따오기과의 새. 몸길이는 86cm이고 날개길이는 33~38cm이며, 꼬리길이는 10~12cm 정도이다. 수컷의 겨울깃털은 흰색이고, 목의 진한 황갈색 테와 모관(毛冠)이 없다. 눈 바로 위까지의 이마, 눈 가장자리, 턱밑, 멱 윗부분은 나출한 검정색 피부인 점이 노랑부리저어새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눈 바로 앞에는 반달모양의 노랑무늬가 있으며 꼬리는 모난꼬리이고, 꼬리깃 수는 12개이다. 여름깃털은 흰색이지만 뒷머리에는 황갈색의 긴 맹기와 같은 장식 깃이 많이 있다. 목 아랫부분에는 등황갈색의 목테가 있고, 또 윗등의 깃끝은 황갈색을 띠기도 한다. 암컷은 수컷보다 약간 작을 뿐 빛깔은 거의 같다. 부리는 먹물빛을 띠며, 끝이 넓어서 배의 노나 긴 순가락처럼 생겼고, 노랑부리저어새와 비슷하지만 중간의 가는 부분이 특히 짧다. 또한 넓은 부리를 좌우로 움직여서 작은 민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등을 잡아먹는다. 다리는 검정색이며 흥채는 붉은색이다. 일반적인 습성은 노랑부리저어새와 비슷하며, 1~2마리, 또는 작은 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으나, 20~50마리의 무리를 짓기도 한

다. 경계심이 강해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인가와 먼 강 하구나 해안이 가까운 저수지 등에서 주로 산다. 동우리는 마른 풀이나 나뭇가지로 짓고 4~5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기는 7월 하순 무렵이고, 알에는 흰 바탕에 담자색·담갈색의 반점이 흩어져 있다. 번식·분포권은 불확실하나 한국·중국 등의 동북아시아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일본·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한다. 한국에는 겨울에 극히 드물게 도래하여 번식한다.

• 고니 [Cygnus bewickii] – 천연기념물 제201호

분류	기러기목 오리과 고니속
생활 방식	무리 생활
크기	몸길이 1.05~1.4m
색	흰색, 흑색
생식	1회에 4~8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호수, 하천
분포 지역	



기러기목 오리과 고니속에 속하는 새의 총칭. 백조라고도 한다. 고니는 이 속의 오리·기러기류 중에서 가장 대형이며 목이 길다. 고니·흑고니·큰고니 등 7종이 있으며 몸길이는 1.05~1.4m이다. 일반적으로 몸빛은 흰색이나 흑고니는 온몸이 흑색이며 풍절우(風切羽)는 희다. 흑고니는 온몸이 백색이며 부리는 대부분 등색이고 부리 기부에 있는 혹돌기와 눈은 흑색이고 다리도 흑색이다. 어린 흑고니는 혹이 없고 회색이다. 큰 고니는 암수 모두 순백색이지만 얼굴과 목이 등갈색으로 물들어 있는 개체가 많다. 부리는 앞끝이 검으며 절반은 노랑색이다. 고니는 암수 모두 백색으로 큰 고니보다 작지만 생김새는 매우 비슷하다. 얼굴에서 목까지는 갈색이며 부리의 앞부분은 흑색, 기부는 황색이다. 북반구에는 흑고니 *Cygnus olor*, 미국고니 *C. columbianus*가 분포하며, 남반구에는 흑고니 *C. atratus*가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넓은 소택지에서 짹을 이루어 번식하며 넓은 세력권을 갖는데 남반구에서는 외적이나 다른 조류의 간섭이 적기 때문에 흑고니는 군락(群落; colony)을 형성한다. 북반구에서는 이동이 활발하며 호수나 하천에서 무리를 지어 월동한다. 고니류는 물가의 갈대밭이나 툰드라의 저목 아래 풀이나 이끼 등으로 집을 만든다. 산란기는 6월경이며 1번에 4~8개의 알을 낳는데 암컷은 포란을 하며 수컷은

집과 암컷을 보호한다. 포란일은 30~36일이다. 고니류는 기관이 가슴뼈 속으로 말려 있어서 나팔효과로써 큰 소리를 낸다. 한편 흑고니의 기관 구조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거의 소리가 없다. 이 종은 유럽에서는 야생번식하는데 반가금화(半家禽化)되어 다리의 색 등이 변화해서 공원·호수·강 등에서 길러진다. 흑고니와 흑고니는 기분 좋을 때나 적대동작으로서 꼬리를 올려 팽창시키고 목을 그 아래 숨기는 습성이 있다. 큰 고니는 헤엄칠 때는 목이 S자 모양이고 경계할 때는 목을 수직으로 세운다. 한국에서는 낙동강의 하구에 1000마리, 주남저수지에 1000마리, 진도 해안에 800마리, 둔전저수지에 200마리 정도가 월동하는데 주로 10월에 도래하여 다음해 3~4월에 되돌아가는 겨울새이다. 한국에서는 고니·큰고니·흑고니를 백조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하였다.

• 왜가리 [Gray heron]

분류	황새목 왜가리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소규모 무리 생활
크기	몸길이 91~102cm
색	회색(등), 흰색(아랫면)
생식	1회에 3~4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못·습지·논·개울·하천·하구 등 물가
분포 지역	한국·일본·중국(동북부)·몽골·인도차이나·미얀마



몸길이 91~102cm이다. 한국에서 보는 왜가리과에서 가장 큰 종이다. 등은 회색이고 아랫면은 흰색, 가슴과 옆구리에는 회색 세로줄무늬가 있다. 머리는 흰색이며 검은 줄이 눈에서 뒷머리까지 이어져 댕기깃을 이룬다. 다리와 부리는 계절에 따라 노란색 또는 분홍색이다. 한국에서는 흔한 여름새이며 번식이 끝난 일부 무리는 중남부 지방에서 겨울을 나기도 하는 텃새이다. 못·습지·논·개울·강·하구 등지의 물가에서 단독 또는 2~3마리씩 작은 무리를 지어 행동한다. 주로 낮에 활동한다. 날 때는 목을 S자 모양으로 굽히고 다리는 꼬지 바깥쪽 뒤로 뻗는다. 이동할 때는 밤에도 난다.

침엽수·활엽수림에 집단으로 번식한다. 중대백로와 섞여 번식 집단을 이

루거나 단독으로 무리를 짓는다. 수컷은 둥지 재료를 나르고 암컷이 둑지를 튼다. 4월 상순에서 5월 중순에 한배에 3~5개의 알을 하루건너 또는 3~4일 간격으로 1개씩 낳는데 암수가 함께 1개 또는 2개째 알부터 품기 시작한다. 25~28일 동안 품은 뒤 부화하면 50~55일 동안 암수가 함께 기른다. 먹이는 어류를 비롯하여 개구리·뱀·들쥐·작은새·새우·곤충 등 다양하다.

백로와 함께 집단으로 찾아와 번식하는 곳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진천군 노원리(천연기념물 13), 경기도 여주군 신접리(천연기념물 209), 전라남도 무안군 용월리(천연기념물 211), 강원도 양양군 포매리(천연기념물 229), 경상남도 통영시 도선리(천연기념물 231), 강원도 횡성군 압곡리(천연기념물 248) 등이다. 북부에 사는 번식집단은 겨울이면 남쪽으로 이동하나 남부의 집단은 주로 정착하여 텃새로 산다. 한국·일본·중국(동북부)·몽골·인도차이나·미얀마 등지에 분포한다.

3) 파주의 텃새

• 새매 [sparrow hawk] – 천연기념물 제323호

분류	황새목 수리과
생활 방식	단독 또는 소규모 무리생활
크기	몸길이 약 32~39cm
색	
생식	1회에 4~5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낮은 산지, 숲
분포 지역	한국, 일본, 시베리아, 쿠릴열도, 알타이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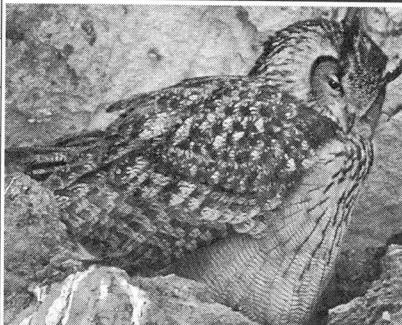
몸길이는 수컷이 약 32cm, 암컷이 약 39cm이다. 수컷은 윗면이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고 윗목에 흰색 가로무늬가 있다. 아랫면은 흰색이며 붉은 갈색 가로무늬가 있다. 암컷의 윗면은 갈색이고 가슴과 배는 흰색 바탕에 짙은 갈색 가로무늬가 있다. 흰색 눈선이 뚜렷하다. 다리와 눈, 부리의 납막(瞼膜)은 노란색이다. 날 때는 짧고 둥근 날개와 긴 꽁지가 돋보인다.

낮은 산지 숲이나 숲 부근의 탁 트인 곳에 서식한다. 높이 4~8m의 나뭇가

지에 둥지를 틀고 5월경 한배에 4~5개의 알을 낳는데, 때로는 다른 새의 둥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알을 품는 기간은 32~34일이며 새끼를 기르는 기간은 24~30일이다. 작은 새나 쥐·메뚜기·뿔잠자리·나비(유충) 따위를 잡아 먹는다. 한국에서는 흔한 털새이다. 참매·붉은배새매·개구리매·황조롱이 등과 함께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되었다. 한국, 일본, 시베리아 중부 및 동부, 쿠릴열도, 알타이산맥 등지에 분포하며 북부 지역에서 번식하는 집단은 중국 남부나 인도차이나·미얀마·인도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남부의 번식 집단은 털새로 산다.

• 수리부엉이 [Eagle owl]

분류	올빼미목 올빼미과
생활 방식	단독 생활
크기	몸길이 약 66cm
색	진한 갈색
생식	1회에 2~3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강의 절벽, 중부 이북지방의 심산
분포 지역	연해주, 한국, 만주



올빼미목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 몸길이 약 66cm. 올빼미과에서 가장 큰 종이다. 머리꼭대기에서 등까지는 회갈색으로, 각 깃털은 흑갈색 파도모양 얼룩 무늬에 상아색 테두리가 되어 물결치는 듯하다. 턱밑은 흰색이며, 가슴과 배는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세로무늬가 있다. 부리는 구부러져 있는데 끝은 뾰족하고 색은 검다. 이 종의 특징은 눈 위에 난 귀털인데, 올빼미류와 부엉이류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 위의 이마에 귀모양의 털이 있는 것은 부엉이류이고 털이 없이 얼굴만 둥근 것은 올빼미류이다. 평지에서 고산에 이르기까지 서식하며 바위나 벽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둑우리 없이 2~3개의 알을 낳는다. 식성은 육식성으로, 주로 꿩·산토끼·개구리·뱀·곤충 등을 잡아먹는다. 한국 전역에 분포하며, 과거에는 흔한 털새였으나 약용으로 남획하였기 때문에 점점 감소되어 수리부엉이를 포함한 올빼미·부엉이류의 새를 천연기념물 제324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황조롱이 [kestrel] – 천연기념물 제323호

분류	황새목 매과
생활 방식	단독 혹은 소규모 무리생활
크기	몸길이 30~33cm
색	갈색
생식	1회에 4~6개의 알을 낳음
서식 장소	산지, 인가
분포 지역	세계전역(툰드라 지역 제외)



몸길이 30~33 cm이다. 매류에 속하는데, 수컷은 밤색 등면에 갈색 반점이 있으며 황갈색의 아랫면에는 큰 흑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머리는 회색, 꽁지는 회색에 넓은 흑색 띠가 있고 끝은 백색이다. 암컷의 등면은 짙은 회갈색에 암갈색의 세로얼룩무늬가 있다. 꽁지에는 갈색에 암색띠가 있다.

날개를 몹시 퍼덕이며 직선 비상한다. 때로는 꽁지깃을 부채처럼 퍼고 지상에서 6~15 m 상공의 한곳에 떠서 연 모양으로 정비 범상(停飛帆翔)을 하며 지상의 먹이를 노린다. 단독 또는 암수가 함께 생활한다. 전선·전주·나무 위·건물 위 등에 앉기도 한다. 먹이가 되는 작은 새는 나는 것보다 앉았다 날아오르는 것을 잡으며, 삼킨 먹이 중 소화가 되지 않은 것만 펠릿으로 토해낸다. 4월 하순에서 7월 초순에 걸쳐 4~6개의 알을 낳는다. 포란기간 27~29일이며 27~30일이 지나면 독립시킨다. 설치류(들쥐)·두더지·작은 새·곤충류·파충류 등을 먹는다. 도시의 건물에서도 번식하는 텃새이다. 산지에서 번식한 무리가 겨울에는 평지로 내려와 흔히 눈에 띠나 여름에는 평지에서 보기 어렵다. 천연기념물 제323호로 지정.

3. 결 론

파주는 독수리, 두루미, 쇠기러기, 부엉이, 원앙, 괘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개최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고 있다. 파주 임진강 하류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도래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 생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풍부한 먹이, 습지와 분지 넓은 평야의 자연생태환경, 민통선이라는 사람과 격리 될 수 있는 보호막 등

좋은 환경 여건으로 많은 철새들이 우리 파주 임진강을 찾아오고 있다.

요 근래 2~3년 동안 느낀 점은 해마다 철새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파주의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소음 및 수질 등 오염으로 환경파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서식지를 지날 때마다 환경생태 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느낀다.

자연 생태 환경의 파괴가 우리 인간에게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은 지구촌 곳 곳의 이상 기후 및 재난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자연과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 공존할 수 있는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본격적인 파주의 개발로 철새 서식지들이 많이 환경파괴가 되어가고 있다. 개최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자연 생태환경을 고려한 개발과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해 집단 서식지가 잘 보존되어 철새들이 활기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으면 한다.

* 일부 철새 사진 및 내용은 NAVER 백과사전 및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과제

이기형*

1. 머리말
2. 학교의 민속교육 실태와 문제점
 - 1)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
 - 2)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문제점
3. 학교 민속 교육의 방향
4. 맺는 말

1. 머리말

사람은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몸으로 익히고 생각하는 태도를 따르게 된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대개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며 생각하는 방식 역시 유사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삶의 방식이나 생각하는 태도 등이 그 집단의 문화이다.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함께 가지는 총체적 개념이며, 한 사회나 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징이라 하겠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범위를 좁혀 민중의 시각으로 문화를 보면 민속(民俗)이 된다. 민속이란 민간의 생활인 동시에 생활의 계속 또는 반복에서 이룩되어 전승되는 민간 공통의 습속이다. 민속은 사람이 자기가 속한 자연적 환경, 역사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 지혜와 신앙으로 엮어 낸 생활 풍속이다. 한 민족 사이에도 지역별, 계절별, 생업별 등으로 각기 독특한 민속을 지니고 있

*연구위원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민속은 지역의 특수성, 독자성을 보존하는 훌륭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 살아가는 방식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속은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수천 년 동안 형성된 문화의 개념이 단 백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너무나 변화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민속을 어떤 개념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민속은 과거와 현재, 보편과 특수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체로 민속은 과거로부터 전승되는 공동체의 살아가는 방식을 문화의 개념으로 이해 한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현재적 상황을 받아들여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를 민속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전자를 민속의 정의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삶의 방식은 온전한 민속이 될 수 없다. 후자를 인정한다면 과거 조상 들이 살아온 민속은 현재의 민속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

민속을 보편과 특수라는 축으로 보면 보편이란 민족의 차원에서의 논의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은 주변의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다른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 속에도 지역에 따라 삶의 방식은 많은 차이를 띠게 마련이다.

민속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관련이 있다. 민족문화의 개념으로는 한 집단 내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규정짓기 어렵다. 민속은 한 지역 또는 집단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속 문화는 민족과 지역, 시대에 따라 제각기 다른 독자성을 지닌다¹⁾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적 시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 민속 문화를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 사회를 이루는 문화는 어린아이 가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동일 하게 체득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개인적 성격의 틀을 마련한다면 한 사회 내지 지역의 독자적인 성격 즉 문화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사회화를 경험하는 대표적 모형이 학교에 서의 교육이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틀을 결정

1) 임재해, 「마을민속 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민속 연구 13집, 마을민 속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4), 27쪽.

짓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에서 공동체문화를 전승하게 하는 것은 민속을 전승하는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²⁾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이 글에서는 민속 문화의 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학교에서 민속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민속 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 북부의 도농 복합도시인 파주시의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먼저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파주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예능발표 대회의 사례를 통해 민속 교육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재능과 취미활동을 살려주는 예능 교육은 음악이나 미술, 체육교과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민속 분야는 현재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 때문에 민속 교육은 현 교육제도상 특기적성 시간이나 특별활동, 방과 후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학원이나 개인교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민속 예술이 학원이나 개인교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혼자 않기에 대부분 특기적성이나 방과 후 활동으로 교육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특별활동이나 특기적성의 결과를 발표하는 무대인 예능발표대회의 상황은 민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각 학교에서 민속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민속 교육의 실태를 설문과 직접 또는 전화, E-mail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현장에서 민속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시각은 오늘의 학교 민속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로 비교적 오랫동안 민속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민속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이상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의 면담은 민속교육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학교의 민속 교육 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민속 문화를 활성화하고 발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제안을 해보기로 한다. 파주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와 제안은 다른 지역 학교 민속교육의 실태와 제안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임재해는 앞의 글 '전승 방법의 세 갈래: 가르치고 돌려주고 함께 하기'에서 학교에서 마을민속을 가로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제시하였다. 앞의 책 40~47쪽.

2. 학교의 민속교육 실태와 문제점

1) 파주시 학교의 민속교육의 실태

(1) 파주시의 지역적 특징과 학교 현황

파주시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으로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 매우 복잡한 기능을 지닌 도농복합 지역이다. 통일로를 중심으로 파주시의 서북부에 위치한 금촌, 조리, 탄현, 교하, 문산읍 등은 서울, 일산과 인접하여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도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1차 산업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또한 금촌동과 문산읍 사이에 위치한 월릉 지역에는 첨단 LCD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등 본래의 생활 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반면 통일로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위치한 광탄, 파주, 법원읍과 적성, 파평, 군내 지역은 농업이 주된 산업기반이면서 동시에 군사지역으로 묶여있어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이다. 파주시의 이러한 지역적 구조는 민속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는 격변의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파주 지역 생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파주시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초중고 67개의 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41개교에 21,50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중학교는 16개교에 7,848명이, 고등학교는 10개교에 5,72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³⁾ 그러나 인근 고양시가 확대되고 많은 학교가 들어서면서 파주시의 학생들이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고양시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파주시에는 금촌, 탄현, 교하, 문산 지역 등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첨단 LCD 공업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자연스레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가 개교하여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때문에 일산으로 빠져 나가는 교육인구는 감소되고 있다. 반면 동북쪽에 위치한 광탄, 파주, 법원 지역의 학생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금촌과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제 44회 2004 파주시 통계연보(2003년말 기준), 파주시.

(2) 학생 예능경연대회를 통해 본 학교 민속 교육 실태

경기도의 각 시·군 교육청은 매년 봄, 가을로 학생들이 같고 닦은 예능을 펼쳐 보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특기적성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시간, 또는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 연마한 재능을 이러한 대회를 통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경기도 또는 각 시·군 주최의 이러한 예능 대회는 거의 모든 전국의 시·군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파주시 예능 대회의 상황은 다른 시·군 교육청 주최의 예능대회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경기도 파주교육청이 주관하는 제26회 파주시 학생 예능 경연대회는 2004년 5월 25일 열렸으며 파주시 관내 67개교 가운데 49개교, 약 73%의 학교가 참가한 대규모의 행사였다. 관내 41개 초등학교 중 30개교, 16개 중학교 중 13개교, 10개 고등학교 중 6개교가 참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학교가 이 대회에 참가함에 따라 경연도 파주시 시민회관 대강당, 시민회관 소강당, 인근 문산중학교 강당 등 3곳에서 펼쳐졌다. 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1부 합창에 10팀, 무용 9팀이, 대강당에서 열린 2부에서는 기악합주 13개 팀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문산중에서는 제1부 사물놀이에 초중 16팀이, 2부에서는 고등학교 사물놀이 2팀, 국악독주 6팀, 국악 합주 4팀이 참가했다. 시민회관 소강당 1부에서는 연극 1팀, 현악 독주 8명, 관악 독주 9명이 참가했다. 2부에서는 피아노독주 23명, 독창 18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한 학교에서 두 세 종목에 참가한 경우도 있어 학교 급별을 망라해보면 총 119팀이 참가한 규모가 제법 큰 규모이다.

2005학년도 27회 대회는 6월 13일(월)부터 ~ 14일(화) 양일간에 걸쳐 파주 시민회관 대공연장(한국 음악 및 무용)과 교육청 소강당(합창 및 기악)에서 열렸다. 한국음악에는 17팀에 185명, 성악독창에 5개, 기악독주에 6개, 기악합주에 6개 동아리가 참가했다. 27회 예능발표대회의 총 참가인원은 2784명이고 이중, 민속음악 및 놀이에 참가한 학생은 278명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본고에서 관심을 갖고 살핀 것은 민속예능 분야이다.⁴⁾ 민속예능 분야에는 제 1부에 초·중교 사물놀이 16팀, 고등부 2팀, 국악독주 6명, 국악 합주

4) 필자는 2004학년도(26회)와 2005학년도(27회) 2년간의 예능발표대회를 관찰했다. 두 해의 참가인원이나 공연 참가 부문의 비중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편의상 26회 대회를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4팀이다. 총 119팀 참가팀의 23.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합창에는 〈경복궁 타령〉이나, 〈한강수타령〉 등 민요를 합창으로 부른 팀도 있었고, 판소리 〈춘향가〉의 한 대목 '갈까보다' 나 민요 〈장끼타령〉을 독창으로 부르기도 했다. 국악독주에는 단소나 대금, 피리, 태평소 등으로 〈영산회상〉, 〈양산도〉, 〈자진모리〉 등을 연주했다. 국악합주 부문에는 〈영산회상〉, 〈대취타〉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사물놀이로 참가한 초중고 팀들은 웃다리가락(농악 포함)이 9팀, 삼도가락(농악 포함)이 3팀, 영남가락이 3팀, 호남 우도 판굿, 교하 풍물두레굿, 금산리 풍물놀이 등을 연주했다.

개인 악기 연주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개인교습에 의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때문에 학교 교육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는 분야는 사물놀이나 풍물굿 등 단체 연주 부문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가락은 지역의 전통적인 가락이 아닌 남쪽 지역의 웃다리풍물(가락), 호남우도 판굿, 영남사물, 영남가락 등이다.⁵⁾

이러한 현실은 파주시의 특징적인 민속 공연물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현재 파주시에서 전승되는 민속 예술은 교하 두레파의 풍물가락과 금산리 풍물놀이 뿐이다.⁶⁾ 교하 풍물두레굿파들이 연주하는 가락은 교하지방의 두레파들의 가락을 전승했고, 금산리 풍물파는 금산리 농요파의 가락을 복원한 것이다. 이 두 참가팀을 제외하면 결국 파주시 학교의 민속 예능 교육은 지역적 특징이 없는 일반화된 공연예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학교 민속 교육 실태

파주시 학교의 민속 교육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재 초·중고 67개 교의 특별활동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였다. 이 가운데 회신을 보내준 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 학교이다. 회신을 해준 중학교 중에서 2개교는 중고 병설의 소규모 학교이므로 2개 고등학교에서도 민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등학교 2개 학교를 포함한다면 파

5) 현재 파주시 학교에서 가장 많이 교육하고 있는 가락은 웃다리 풍물로 5개 학교에서 사물놀이, 풍물가락으로 지도하고 있다.

6)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1회에서 10까지의 참가한 파주시의 전통 민속 예술은 술이흘 태평 12지 놀이와 금산리 농요뿐이다.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 지회 편, 「경기도의 민속 예술」, 1997. 이중 탄현면 금산리 농요는 해이리 마을이 조성되어 파주시에서 보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술이흘 태평 12지 놀이는 그 명맥을 잃고 있다.

주시에서 민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8개 학교이다. 이러한 설문지 회수 비율은 약 26%로 2004년 파주시 예능발표대회에 참가한 팀의 비율 중 민속예능 분야에 참가했던 23.5%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

이 설문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파주시 민속 교육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지의 1항은 조사의 기초 자료로 학교의 급별을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8개교에서 회신을 해주었다.

2항은 학교에서의 민속 교육의 실시여부와 유형에 대한 것이다. 총 67개 학교 중에서 민속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8개교로 전체의 26% 가량이다. 이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속 교육의 유형은 전통놀이와 풍물(농악), 사물놀이, 취타대, 민요 등이다. 전통놀이를 교육하고 있는 학교는 2개 초등학교로 널뛰기, 토흐, 제기차기 등을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놀이는 특별한 교사가 없어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로 민속의 생활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지도하고 있는 전통 민속은 연주이다. 풍물(농악)과 사물놀이, 취타대 등이 그것이다. 풍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개교, 사물놀이를 교육하고 있는 학교는 8개 학교이다. 이 가운데 3개 학교는 풍물과 사물놀이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취타대를 운영하는 학교가 1개교, 민요를 교육하고 있는 학교가 1개교이다.

풍물과 사물놀이를 선택한 학교에서 주로 지도하는 가락은 삼도 풍물굿, 웃다리 가락, 우도 가락이다. 이외에도 이들 가락을 현대적으로 접목한 창작 타악(모둠북)이나 퓨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들 풍물놀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탄현중학교의 풍물놀이패와 금산초등학교의 금산리 풍물놀이패이다. 1980년 후반, 파주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금촌읍과 일산 신도시를 인접하고 있는 탄현, 교하 등이 신도시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산업의 기본 구조가 농업이었다. 때문에 70년 초반까지 각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많은 두레패가 있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연마을이 붕괴되고 두레패들도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때문에 파주시에는 현재 금산리 농요만이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⁷⁾ 그동안 전승되던 문산 도당굿·호영산

7) 금산리 농요는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에 전승되는 민요로 경기 서북부와 황해도 소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금산리 농요는 선창자에 의하지 않고 여러 명의 소리꾼이 소리를 번갈아 매기는 것이 특징으로 200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2003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 참고.

호대감 놀이⁸⁾와 술이흘 태평 12지 놀이⁹⁾ 등은 맥이 끊겨 다른 지역에 비해 민속 예술의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유일하게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지도되고 있는 금산리 농요는 모찌는 소리, 하나기로구나 형의 모심는 소리 등의 다양한 논맴소리와 가락으로 짜여져 있다. 반면 다른 중등학교의 풍물패나 사물놀이패에서 연주되는 가락은 전라도의 웃다리 가락이나 우도 가락으로 초등학교에서 명맥을 이어가던 토착 민속가락의 맥이 끊겨 버린 셈이다.

3항에서는 이들 학교에서 전통 민속교육을 실시한 시기를 살펴보았다. 가장 이른 시기에 실시한 학교가 1987년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5~6년 정도의 맥을 잇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 전통 민속 교육이 실시된 시기는 대개 지도교사가 이 학교에 부임한 시기와 일치한다. 이 점은 초·중등 학교의 민속 교육은 지도교사의 열성과 능력에 좌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4항에서는 민속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를 살펴보았다. 2003년을 기준으로 파주시의 초·중등학교의 학생수는 35,080명이었다. 이들 중 민속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의 1,487명 정도로 ·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단적으로 전통 놀이 지도를 받는 학생과 수업을 통해 민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을 제외한다면 집중적인 민속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0.02%에 미치지 않는다. 민속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낮은 비율로 볼 때 학교에서의 민속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5항에서는 민속을 지도하는 담당교사들이 교육에 활용하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교사들이 민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로 특기적성이나 특별활동 시간이다. 지도교사가 음악교과를 담당하는 경우는 수업시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담교과가 없는 초등학교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시간이 배정되는 특별활동 시간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 후 활동으로 민속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일부 있다. 그러나 상급학교 진학이라는 관문에서 있는 중등학교에서 민속교육을 방과 후 활동으로 활

8) 문산 도당굿과 호영산 호대감놀이는 호랑이에게 물려간 사람들의 넉을 위로하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10월에 열리던 굿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전승의 맥을 끊어졌다. 파주문화원 편, 『파주문화 12호』, 1998년 참고.

9) 술이흘 태평 12지 놀이는 파주시 적성면을 중심으로 전승되던 놀이로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바 있다. 그러나 태평 12지 놀이는 대부분 금산리 농요 가락을 기본으로 짠 것으로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현재는 맥이 끊어졌다.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지회 편, 『경기도의 민속 예술』, 1997년 참고.

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정규 교과가 끝나면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학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입시과목지도에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예능대회나 행사 참가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이 잠시 교육을 받다가 흩어지는, 임시방편의 교육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6항에서는 민속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살펴보았다. 민속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연간 최고 2,500만원에서, 최하 예산이 전혀 없는 학교까지 그 격차가 컸다. 연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1개 초등학교이다. 이 경우는 학교가 도지정 연구학교로 선정된 것으로 일상적인 민속교육의 예산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제외하면 교육청에서 특별활동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가 약 300만원,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교가 60~100만원을, 예산이 전혀 없는 학교도 2개교가 있다. 이들 예산의 주된 사용처는 강사료와 악기 구입과 의상제작이다.

예산의 확보 방법은 지역 교육청에서 특기적성 활성화 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연간 300만원을 지원 받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약 60에서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상황으로 볼 때 교육청의 지원 없이 민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이다.

7항에서는 민속교육의 지도방법을 살펴보았다. 민속 교육을 담당교사가 지도하는 비율이 35%,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비율이 45%, 담당교사와 전문 강사를 동시에 활용하는 비율이 15%, 지역 인사가 담당하는 학교가 1개 학교로 5%였다.

민속교육을 지도하는 담당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경우는 중등학교가 대부분이다. 중등학교에서는 음악을 비롯한 예체능 교과의 교사가 배치된다. 민속을 지도하는 교사는 역사교과를 담당하는 1개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능교과 교사가 민속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민속을 지도하는 18개 학교의 담당교사 가운데 민속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은 5명이다. 연수과정은 사물놀이나 풍물로 길게는 150시간에서 짧게는 10시간 정도이다. 나머지 교사들은 풍부한 관련지식이 없이 열정만으로 민속교육에 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속을 지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아도 확인된다. 이들 지도교사들이 민속 교육에 임하게 된 계기를 보면 특별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3명,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2명, 전통 가락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4명

등이다. 학생들에게 민속을 교육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가 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학교민속 교육의 앞날을 어둡게 전망할 수밖에 없다.

8항에서는 이들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부강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도교사가 직접 담당하기 보다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는 16개 학교이며, 지역인사를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2개교였다. 전문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희망을 밝힌 학교의 이유는 지도교사의 수업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와 전문 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는 대부분 20시간이 넘으며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시간을 더한다면 24시간을 초과한다. 여기에 담임 업무와 공문 처리에 쓴는 시간을 더한다면 주당 시수는 30시간도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실정은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에 없는 민속지도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도 전문 강사를 원하는 이유이다. 지도교사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풍물과 탈춤 패 등 동아리 활동을 하던 열정의 연장선에서 민속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수를 받은 5명의 지도교사 중 전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1년 과정 150시간 교육을 받은 교사는 1명이며, 4명은 20시간내외의 강습을 받았으며 다른 11명의 지도교사는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

학교에서 활용을 원하는 전문 강사에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대부분 시간당 1~2만원 정도이다. 특별한 경우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한다는 학교도 1개교가 있었는데 이는 대학의 예술학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였다. 파주시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강사들의 대부분은 서울이나 의정부, 일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비나 식사비 등을 고려한다면 시간당 2만원의 강사료로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 강사가 아닌 지역인사를 활용하겠다는 희망을 보인 학교는 2개교이다. 지역인사는 문화원이나 예술단체와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지역인사를 활용하는 경우 강사들이 대부분 노년층으로 전문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도방법이나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서툴러 일정한 교육성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지역사회 민속과 교육이 연계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된다.

교사들이 지도를 희망하는 민속의 유형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민속놀이

와 풍물, 중등학교에서는 사물놀이와 풍물이 대부분이다. 민속놀이는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기에 교사의 열의만 있으면 지도가 가능하다. 풍물이나 사물놀이 등은 가락이나 장단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사들의 대부분은 파주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고유의 전통 가락을 교육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인사를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문화와의 연계성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9항에서는 이들 지도교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물었다. 교사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 강사나 예산의 확보를 가장 힘들어했으며 학생들의 희망이 적다는 점, 지도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민속을 지도하는 파주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겪는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4) 포본 학교의 상황

다음은 비교적 민속 교육이 적극적인 Y중학교를 표본으로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Y중학교는 읍 소재지에 위치하는 있으며 8개 학급 규모의 남중으로, 11개 학급의 남녀공학의 고등학교와 병설이다. Y중학교에서 민속교육을 처음 실시한 때는 현재의 지도교사가 부임한 1993년 3월부터이다. L교사는 파주시 출신으로 음악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했다. L교사는 Y중학교에 부임해서 처음에는 전공과목인 가존의 밴드부를 지도했다. 그런데 중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점차 민속에 관심을 하며 갖게 되었다. L교사가 처음 지도를 시작한 것은 사물놀이로 94년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학생들이 익힌 가락은 영남사물놀이 가락이다. 이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연주하던 가락의 한 부분이다. 파주시 학교에서 처음 시도된 Y중학교의 사물놀이는 경기도와 시에서 열리는 각종 경연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후 파주시의 여러 학교에서 사물놀이 동아리가 생겨나고 활성화 되었다. 98년, Y교사는 평소 안면이 있던 파주시 국악 협회장으로부터 술이흘 태평 12지 놀이 공연을 제의받는다. 이 놀이는 전임 파주문화원장이 과거 적성 지역에 전승되었다는 단편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경기도 예능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발굴한 놀이다. 이 놀이

는 단편적인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과 같은 여러 연행물의 조각을 짜 맞춘 것이기에 파주의 전통 민속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판단으로 Y교사는 2002년, 기존의 사물놀이를 배우던 학생들을 주축으로 49명의 학생들을 뽑아 취타대를 창단한다. 취타대의 운영에는 의상이나 악기 구입 등 창단에 따른 기본 경비 외에도 연간 약 6~700만원의 예산이 필요 했다. Y교사는 시에 지원을 요청했고 각종 행사에 연주를 맡아줄 공연단체의 필요성을 느끼던 시에서는 적극적인 호응을 하게 된다. 취타대를 창단한 Y교사는 관악전공으로 실질적인 지도가 어려워 한양대 국악과 출신의 강사를 초빙해 학생들의 지도를 맡겼다. 강사는 토요일과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무령지곡과 행진법을 지도하였다.

약 6개월의 연습을 마친 후 취타대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Y교교는 2003년에 2003 유니버시아드 대회, 정조대왕능 행사, 장단콩축제, 울곡문화제 등의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2004년에는 남한산성 문화제 축제,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 참가(최우수), 경기도 학생 예능대회(최우수) 울곡문화제, 장단콩축제, 임진각 상설공연(2회) 등에 참가해 활발한 공연을 했다.

2) 파주시 학교 민속교육의 문제점

앞에서 세 유형의 경로를 통하여 파주시 학교의 민속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속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파주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속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적인 정체성을 잃고 획일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속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민속은 삶의 기반이 되는 그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주시 학생 예능 경연대회에 참가한 비율로 볼 때 전통 민속예능 팀은 23.5%에 이른다. 단순한 수치로 본다면 민속 공연분야가 23.5%의 비율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 비관적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율 중 파주시 고유의 지역적 특징을 담은 민속 예술은 2개 참가 학교에 불과하다. 그 외 대부분의 파주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락들은 영남의 사물가락과 호남의 웃다리 풍물이나 우도의 판굿 등이다. 이 가락들은 대부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가락에서 출발한 것들이다.¹⁰⁾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비롯된 관심은 곧 학교 민속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즉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가락이 전국 민속교육을 평정하고 통일해버린 것이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시작으로 뒤를 따라 만들어진 수많은 사물놀이패들의 노력은 민속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물놀이가 팽창하면서 끼친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대학의 사물놀이나 풍물패, 탈춤패 등의 동아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때문에 자신의 손에 익은 가락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이러한 경력은 오히려 지역적 고유성이나 특수성을 잊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주시 학교에서의 민속 교육은 이미 지역적 성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국 유명 관광지의 토품 가게들마다 판매하고 있는 특산품은 모두들 비슷하다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지역적 정체성을 잊고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은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과 관계된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가족과 이웃이다. 가족과 이웃은 살아가는 표본일 수 있어도 의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제도적인 교육은 초등학교이다. 초등학교는 어떤 형태로든 어린 학생들이 처음으로 민속과 만나는 현장이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처음으로 의도적인 민속교육을 만나게 된다. 민속놀이를 배우거나 기본적이나마 가락을 익히게 된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민속은 잊게 되거나 전혀 새로운 민속예술과 만나게 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는 금산리 농요가락을 배웠는데 중학교에서는 우도가락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또 중학교에서 교하 농악가락을 익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영남가락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성의 결여는 민속에 대한 관심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담은 민속 전통을 보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민속교육이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이다. 교사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지니는 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을 달

10) 우리나라에서 사물놀이를 처음으로 시도한 공연패가 김덕수 사물놀이패였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영호남의 대표적인 가락을 짜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물을 창조해 냈다. 사물놀이 가락은 전통 가락을 잊고 있던 대중에게 민속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찾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전세계에 한국 고유한 가락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축제가 되었다.

라진다. 현재 전개되는 민속 교육도 전적으로 교사들의 열정과 희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교사들은 정규교육과정에도 없는 것을 민속을 보존하고 전승해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속 지도에 임하고 있다. 민속을 지도하는 교사는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서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자비를 들여 공연 경비를 마련하거나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

초등학생이 중학교에 진급하면 새로운 교사들과 만나게 된다. 중학교 교사는 자신의 교육의지에 따라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민속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게 된다. 지도교사에 따라 교육의 목적이나 방향 등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보존과 전승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는 어렵다. 파주시 학교의 민속 교육은 파주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 민속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아니라 예능(藝能) 중심이라는 점이다. 앞의 설문에서 지도교사가 민속교육에 임하는 이유를 살펴본 바 있다. 민속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답변에는 우리의 전통 가락을 보전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있지만 특별활동 시간의 운영이나 지역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한다. 파주시에 전승되는 민속은 수수한 농요나 두레 가락 정도이다. 민속을 도구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교사는 당연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민속교육은 외형적인 면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예능 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전승되는 놀이나 민요, 이야기를 보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3. 학교 민속교육의 방향

문화는 생래적(生來的)인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이 태어나면서 그 사회가 유지해온 문화를 자연스레 습득하게 되는 것이 문화 전승의 기본 구조이다. 지역문화 역시 같은 방법으로 유지되고 전승된다. 급격히 사라지는 지역 문화를 보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지역문화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민속을 계승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속교육은 지역의 고유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학교 민속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민속 교육의 중심은 교사에 놓여있다. 학교 교육의 기준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민속교육은 교육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지도하는 교사 개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느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때문에 학교에서의 민속 교육은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학교 내의 연계나 지속적성이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다.

현재 진행되는 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성격의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민속 교육에서도 지역적인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각급학교의 민속 교육도 체계적인 목적 속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민속 교육의 지역적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문화원이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교육해야 할 민속의 모형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지원의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주시의 경우 현재 전승되는 대표적 민속놀이는 금산리 농요이다. 금산리 농요의 경우 지역학교인 탄현초등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금산리 농요와 가락을 배우던 학생들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금방 그 가락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파주 교육청에서 민속교육의 틀을 마련하여 인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금산리 농요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적어도 이들 학생들에게만은 평생 금산리 농요를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길 것이며 동시에 금산리 농요도 맥이 끊어질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학교에서의 민속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민속 예술을 보는 지도 교사들의 관점 전환이 요구된다. 대체로 민속 예술을 보는 시선은 주로 놀이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놀이의 측면에서 보면, 파주시 학교에서 지역 중심의 민속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된 원인은 교육의 대상이 될만한 민속 자료 즉 놀이가 적다는 점이다. 물론 파주지역에도 일제강점기까지 산대놀이

나 소놀이 등이 전승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¹⁾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도 산대 놀이나 소놀이 등은 이름만 존재했을 뿐 이미 명맥이 끊어진 상태였다. 사라져 버린 민속놀이를 복원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민속교육을 중단 할 수는 없다.

여기서 민속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속 교육을 지도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속이라 하면 전통놀이나 예능 분야만으로 시선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민속 교육의 대상이 눈과 귀로 남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민속 공연예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도 지역마다 고유하게 전승되는 민속의 유형이 존재한다. 학교에서 지역에 전승되는 민요나 설화, 민속놀이, 세시풍속을 발굴하여 교육한다면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민속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도교사의 양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 민속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민속교육은 뚜렷한 교육목표나 지원이 없이 거의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활동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속 교육의 현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들 교사들의 대부분은 대학에서 탈춤이나 사물놀이, 풍물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경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민속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초보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열정과 기능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한 학교 현장에서 한 분야의 민속유형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는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이유는 초등학교나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일정 기간 근무 후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순환근무제 때문이다. 이런 경우 몇 년 동안 실시되던 민속 교육의 맥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새로 부임한 교사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민속 교육은 예외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육성하는 민속예능을 담당하는 교사는 본인의 희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출

11) 村山智順 편, 『朝鮮의 鄉土娛樂』(집문당, 1992), 102~104쪽.

신 교사가 비교적 많이 근무하는 사립학교에서 지역 민속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사립학교는 교사들의 이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한 학교에 교사가 부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지역 출신 교사는 주민들과 의사소통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 사립학교의 지역출신 교사가 민속교육을 지도할 있도록 연수한다면 어느 정도는 민속교육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전문가로서의 교사 양성이 요구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 한다. 학교의 민속교육도 교사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느냐, 교사가 민속의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민속 교육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현재 각 시군의 민속 문화에 대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나 연구는 지역 문화원이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진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사나 연구는 자료의 축적이나 학문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지역문화의 체득을 위한 실제 현장교육과는 유리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를 참여시킨다면 현장 교육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지역에 오래 근무한 교사들은 지역문화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한 편이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문화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에 관심이 있는 교사 동아리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한다면 표본에 의한 조사가 아닌 자세한 연구 진행은 물론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에서 활발히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민속교육이 나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보았다. 학교민속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정해진 교육 목표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민속 교육이 교사 개인의 특정한 의도나 열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7차 교육 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수요자의 요구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육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교육청은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이고 연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속 분야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의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민속을 예능 일변도

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세시풍속이나 이야기 노래 등 생활에서 찾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민속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양성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의 연수에 교사들을 참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수업 모형을 짜서 현장 수업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 전통 민속은 생활 속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4. 맷는말

민속은 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다. 산업화에 따라 삶의 모습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전통 민속도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민속을 현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규정하고 변화의 흐름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민속이란 현재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과거로부터 살아온 조상들의 삶의 방식과 숨결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통 민속을 계승 발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 민속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그 주된 원인은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 민속을 생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이전인 학교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 글은 파주시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속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파주시 학교의 민속교육 실태를 04학년과 05학년 파주시 예능 경연대회, 민속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비교적 활발하게 민속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개 학교를 표본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파주시 학교의 민속교육은 지역적 특수성을 잊고 획일화 되고 있으며, 주로 예능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삶 속에 민속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 민속 교육의 방향을 제안해 보았다.

먼저 학교민속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민속을 예능 위주의 보여주고자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만나는, 친숙한 것으로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속 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청이나 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민속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 교육에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사의 양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사들은 교육의 주체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의 중심에 있다. 교사들이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다면 민속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파주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속 교육에 대해 살펴보았다. 파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민속 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지역 민속 문화가 활발히 전승되는 지역 학교의 상황으로 확장시키기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 글은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 민속 교육의 현주소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소라, 「坡州民謡論」, (파주문화원, 1997).

임재해, 「마을민속 왜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편, 「민속 연구 13집, 마을민속전승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4).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 지회 편, 「경기도의 민속 예술」, 1997.

파주문화원 편, 「파주문화 12호」 1998년 참고.

村山智順 편, 「朝鮮의 鄉土娛樂」 (집문당, 1992).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현황

직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경 력	비고
자문위원	신춘범	파주시 아동동 산31	941-2425	파주문화원장, 문화예술진흥위원	
자문위원	이현희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44-27 롯데캐슬② 202호	017-231-7103	성신여대 사학과 명예교수, 한국근현대사 전공	
자문위원	박경안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367-8	02)303-3448	연세대국학연구원 연구교수, 파주문화원 이사	
연구소장	이윤희	파주시 검산동 성원③ 110-602	016-9311-3120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 파주문화원 이사	
간사	성희모	파주시 법원읍 법원4리 389-1	011-9991-9522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문인협회, 수필가	
연구위원	이동률	파주시 금촌2동 주공 7단지 710-1603	016-806-2603	문화예술진흥위원, 시인, 문인협회 고문	
연구위원	오순희	파주시 법원읍 대능2리 86	011-720-1000	파주문화회, 경기도문화유산해설사	
연구위원	우관제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161	011-665-4184	성균관전례위원, 파주문화원 감사	
연구위원	정현식	파주시 조리읍 놀조리 540-1	011-720-1717	파주문화원 이사, 임진통상 대표	
연구위원	문성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355	016-703-9736	문화기획가, 카트랜드 대표	
연구위원	이재석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	018-363-8192	파주시민회사무국장, 들꽃기행 강사	
연구위원	김성수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34	010-7377-0973	서울문화사학회 이사	
연구위원	최봉희	파주시 금촌2동 후곡마을 403-402	010-2442-1466	파주중학교 교사	
연구위원	이기형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희망A101-1203	016-365-5291	율곡고등학교 교사	
연구위원	김순자	조리읍 등원2리 산41	016-418-3875	문화유산가이드	

■ 『파주연구』 제3호를 발간하며.....

어느 덧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가 창립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향토사 연구자료들이 사장되어 가는 시점에서 출발한 본 연구소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스러운 일은 연구성과물을 담은 〈파주연구〉지를 결호없이 발간해 왔다는 것입니다.

〈파주연구〉라는 명칭의 본 연구소 연구지는 지역의 향토사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여 분석해 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그 결과물들은 파주의 역사속에서 파주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중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중앙사와 대별되는 향토사는 지역민들의 체취와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 삶의 흔적이며 문화입니다.

우리 파주는 역사적으로 중앙 정치무대의 근접지역에서 항상 중앙정치 권력 및 제도권에 속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중앙권역과 함께 맞물려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관심이 중앙사 중심적이었으며 지역의 문화적 성향 또한 서울 중심의 문화 경향을 띠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자칫 파주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향토사 연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파주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파주의 지리적 특성은 중앙사와의 연결고리상에서 차별성을 지닌 독특한 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 은 중앙을 지원하기 위한 주변으로서가 아닌 중앙사에 버금가는 독자적 문화 형태를 갖추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와 인연을 맺어 온 역사 인물은 물론 문화유산의 형성 배경, 역사적 자료 등은 파주가 지닌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특징속에서 그 맥을 이어 온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해 내는 일들이 저조해 온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파주에 형성된 수많은 향토사 자료들이 무분별하게 사장되고 훼손되

어가는 오늘날에 있어 향토사 자료들의 수집과 정리는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파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연마을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는가 하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토속민들이 뿔뿔이 흩어져버리는 주민 해체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사라져가는 파주의 모습과 버려지는 향토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선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님들이 나서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늘 본 연구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신춘범 문화원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일상속에서도 늘 향토사 자료에 대한 소중함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해 오신 본 연구소 연구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향토문화연구소장 이 윤희

여

여

坡州研究 제3호 2005

발행일 2005년 12월 31일

발행처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발행인 파주문화원장 신 춘 범

제작처 승림디엔씨 ☎(02)2271-2581~2

©2004. 파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경기도 파주시 이동동 산 31번지 파주시민회관 2층
전화 : 031)941-2425, 940-8498 팩스 : 031)941-2511

